



데이빗 영맥주석

창세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창세기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

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 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창세기 1장 =====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코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주의 핵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말미잘 같은 단세포 생물이 시간이 지나 다세포로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도,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주장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창조에 동참하신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주관자이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곧 창세기 1장 1절,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

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하나의 본질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주관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양 그 자체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의 빛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어

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 안에 머물며, 창조주 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 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상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후>인데, 이는 광야나 황무지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 형태도 없고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혼돈’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삶의 방향도 없고, 마음도 정돈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온전히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질서와 목적을 가진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그 당시의 땅은 '공허'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후>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깊은 우울함이나 영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코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관계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땅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흑암'은 <호세크>라는 단어로, 깊고 짙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 땅은 빛도, 생명도, 희망도 없

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 오기 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걷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창 1:2] ...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창조의 시작이며, 생명의 탄생을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수면’이라는 표현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속에 머무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태아는 물로 가득 찬 자궁 속에서 자라고, 때가 되면 양수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모습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점차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고, 참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단지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창조 이전 인간의 내면 상태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 마귀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이고, 더 강력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언제나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끄시는 창조주의 손길, 우리는 그 손길 아래 오늘도 새롭게 빛어지고 있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 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건축에는 재료가 필요하고 도구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은 손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권세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 14: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섯 날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6일’은 단순한 하루하루의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설정하신 창조의 시간이며, 동시에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곧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창조는 인간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빛’ <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시며, 그 영광이 인간에게 임할 때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빛을 받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 어둠을 드러내시고 분리하십니다.

“[창 1:4]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말씀이 곧 창조의 본질입니다.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어둠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

은 비로소 무엇이 어둡고 무엇이 빛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며, 영적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물론 빛이 임할 때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간의 심령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임할수록,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고 우리는 점점 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빛을 사모하지 않고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이미 주어진 빛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우리는 매 순간 빛을 붙들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 곧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이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어둠의 영향력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창 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살전 5: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
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은 하늘, 곧 sky
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
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
로 되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늘은 과학적으로 말하
면 대기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기
권 너머, 곧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늘
위에도 물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대
기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물주머니가 존
재함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로운 구
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의도된 분명한 구
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

이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의 영역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면,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누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구별은 곧 영적인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늘에 있었으나 그곳에서 쫓겨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며, 라틴어로는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은 곧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본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추락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머물 자격을 얻지 못한 그는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늘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분명한 구분을 보여주는 영적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신 이유도 단순히 자연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경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땅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루시퍼의 교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창 아래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두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창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나누신 다음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고, 그렇게 물이 모이자 비로소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 1:10]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은 드러난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담긴 깊은 섭리였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일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다 위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땅 위에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거할 수 있는 공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 위에 심겨진 풀과 나무는 단지 자연의 풍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공급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채소가 자라나게 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는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질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살아갈 세상을 가장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방을 정성껏 꾸미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마련해 놓듯이, 하나님은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기쁨과 만족의 표현이며,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긴 감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깊은 기쁨이었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느끼시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셨

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창조의 기쁨에 감사하며, 삶 속에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 1: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창 1: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
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
더라
[창 1: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은 바로 자녀 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배려의 손길이었으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단지 하늘의 장식물이 아닙니

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질서와 리듬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였습니다. 광명체를 통해 하나님은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 1:14]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창 1:16]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별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명체들은 우리 삶 속에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없는 삶, 질서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해와 달과 별들 속에도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돌보는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준비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마다 느끼셨던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우리의 삶 속

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빛과 시간과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조 과정

*** 첫째날(빛으로 오신 주님)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암흑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창 1:2)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는 무질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후>로 써 형태가 없거나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뒤에 언급된 <공허>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가 흑암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요 1:5)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혼돈과 공허함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질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며 희망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둘째날(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창 1:6-7)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궁창을 두고 궁창 위에 물이 생겼으며 궁창 아래의 물이 생겼습니다. 궁창은 하늘(sky)을 뜻합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궁창 위에 물을 두고 궁창 아래의 물을 두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은 대기권을 둘러싼 물이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의 물과 지하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지구 표면의 물과 지하의 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물은 없습니다. 도대체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대기권을 열고

쏟아졌습니다. 그 후론 다시 궁창 위의 물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궁창 안에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 것이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때는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물로 인해 지구 전체가 온실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잘 자라고 동물로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공룡같이 큰 짐승이 살 수 있었으며 큰 짐승에게 적합한 큰 열매들도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룡화석에 보면 공룡 배트 속에 큰 열매들이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공룡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배트 속의 열매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처럼 지구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위를 쳐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를 쳐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방을 둘러 봐도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던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배려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충만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 셋째날(구속의 주님) ***

하나님은 셋째날이 되었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창 1:9)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물 밑에서 물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드러나니까 그 물에다가 식물을 만드시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를 품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거둬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둬질 때 비로서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사 1:18)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거할 수도 없으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날에 천하의 물을 거두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이 물과 함께 잠수하여 죽게 되고 다시금 물과 같이 거듭 태어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 넷째날(사랑의 주님) ***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동안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6일 동안이었지만 어쩌면 6일을 위해

수억년을 참고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세함과 심혈을 기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매우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넷째날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창조와 함께 우주의 생성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학설은 모두 추측과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직접 우주의 생성을 지켜본 사람도 없으며 실제로 우주 전체를 둘러본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태양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과학기술로 알지도 못한 우주의 규모나 구조에 대해 모두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태양계의 집합체인 은하계가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생성된 행성 중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태양을 두셨고 태양과의 거리를 알맞게 하셨습니다.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두셨으며 달을 두어 달과의 인력을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창 1:14)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별들을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따뜻한 햇빛을 공급해주는 태양이 하루로 빠짐없이 불타오르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낭만을 갖게 하는 달빛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 다섯째날(부요케 하시는 주님) ***

인간이 살아가게 될 궁창에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셨고 이번에는 궁창에 새와 물에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창 1:2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궁창에 새가 종류대로 만들어 졌고 물에는 여러 생물들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물에 생물을 만드신 이유는 새와 생물을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 여섯째날(생기를 불어 주시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어의 <We>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

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형상>과 <모양>입니다. <형상>은 영어로 <Image>를 뜻합니다. 하지만 <모양>은 외적인 형상이 아닌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외형은 부모로부터 입혀집니다. 부모가 백인이면 백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동양인이면 동양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외형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얻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속성은 부모를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매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매우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육에서 혼과 육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비로소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령>이 됩니다. <생기>는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 즉시 인간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은 곧 '생명을 가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창 1:6)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7)였습니다.

궁창은 하늘(sky)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기권이며 곧 하늘입니다. 이러한 하늘, 곧 궁창 위에 물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 물이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물주머니 형태를 띄고서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권은 인간의 삶에 여러가지 유익을 주었습니다. 태양의 좋지 않은 전파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오늘날 대기권이 유독가스에 의해 구멍이 나있는 지역에서는 태양으로부터 피부가 노출되어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물주머니가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는 태양의 해로운 전파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물주머니는 지구의 온실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아시대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어도 땅에는 항상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상태가 식물과 동물이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보니 거대한 식물이 자랄 수 있었고 거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같은 거대한 짐승들이 먹고 살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공룡의 화석 중에는 큰 야자수같은 열매가 공룡 위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룡의 존재도 사실이며 공룡의 열매가 되는 큰 열매가 있었음도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노아시대의 홍수로 인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12절에 보면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12)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때 사용되었는 물에 대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지질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 표면에 있는 물보다 지하에 있는 물이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때 지하에 있는 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권을

둘러싼 물주머니입니다. '하늘'은 궁창입니다. 하늘의 창들이라는 표현은 마치 창들이 열려 그곳으로부터 물이 쏟아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땅 밑의 지하수와 하늘 위의 물주머니가 노아의 홍수로 사용되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들을 덮을 정도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주머니



없어진 물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 1: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 1:20]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결국 자녀된 우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생물이 풍성히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지 않고,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 1:20] ...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

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지으신 목적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창은 새들이 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새가 궁창을 날며 땅 위를 덮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질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교하게,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창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나..."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 속에서 질서 있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다양성과 균형을 통해 생태계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창조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결핍이 없도록, 삶이 온전하게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와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이 풍성히 번성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의 창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창조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으며, 하늘과 땅에 생물을 두셨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인간을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 1:2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히브리어 <체렘>으로, 문자 그대로 '형상(image)'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여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

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이들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칠십 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등을 보기도 했습니다.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겔 1: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계 1:13] 쏜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계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본 이들의 기록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 외형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이라면, ‘모양’은 내면적인 성품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모양’은 히브리어 <데무트>로, ‘닮음 (likeness)’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형상뿐 아니라, 그분의 성품까지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점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내면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생명과 번성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고,

인간 역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으며,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 낳기를 꺼립니다. 세상은 결혼 연령을 점점 늦추고 있고, 자녀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이 세상의 질서를 교묘히 왜곡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자녀 출산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업적이나 성취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육하다’는 본래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며, ‘번성하다’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결코 비유적 해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는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생명 사역의 연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단지 과거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완성 하셨습니다.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모든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행성과 그 행성들을 감싸고 있는 은하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무리들, 그리고 그 모든 은하계를 품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공간까지, 모두 ‘천지’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하나, 혹은 아파트 한 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조차 초월하는 거대한 우주를 지으셨고, 그 공간을 온갖 피조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마치 새 집을 마련하고 그 안에 하나하나 가구를 정성껏 들여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넓고 웅장한 천지에 만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성과 섬세한 손길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불과 6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짧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의 집을 짓는 데에도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한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 안에서만 무엇을 이루지만, 하나님께는 시간도, 능력도, 공간도 결코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능력의 한계와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창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 위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많은 이들은 창조 사역이 6일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7일에는 아무런 창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는 별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을 놓친 생각입니다. 제7일, 곧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사역의 가장 영적인 완성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은 하루를 '안식'에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날 또한 중요한 창조 사역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

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다쉬>이며, '거룩'이라는 단어 <코데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성별하다', 곧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천지가 화려하고 웅장해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만물이 풍성하게 채워졌다 해도, '거룩'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본질을 잃게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천지도, 만물도, 인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제7일의 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위한 안식, 성별을 위한 안식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도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다시 일을 하거나, 혹은 열심히 노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노는 것’조차도 결국은 또 하나의 노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일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 한 순간도 쉬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6일 동안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7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서 우리

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안일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안식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
미에서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
다.

[창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 2: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
셨더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
니라,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없으면 땅은 마르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온통 메말라버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 그 땅은 비가 없는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황무지 같은 땅도 옥토로 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어 보이는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금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사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막처럼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인생도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 그 인생은 옥토로 변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황폐한 모습은 지나가고,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

시면 반드시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와도 같은 땅을 경작하고 돌볼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아파르>는 '마른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고 생명 없는, 황무지의 티끌과 같은 흙을 가지고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먼지, 하찮은 티끌-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를 사용하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찮은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 2:7] ...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때 사용된 ‘생기’는 히브리어 <네샤마>로, 사람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인간은 호흡을 해야 살아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자, 그 존재는 곧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은 히브리어 <네페쉬>로 표현됩니다. <네페쉬>는 ‘영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영’ 혹은 ‘혼’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르아흐>가 사용됩니다. 이 <르아흐>는 100% 영을 의미하며, 혼이나 육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아흐>로 존재하십니다-그분은 본질적으

로 100% 영이신 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영’을 <프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시 100%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도 헬라어 <프뉴마>이며,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 속의 ‘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100% 영으로 존재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100% 영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은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완전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과 육이 뒤섞인 불순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르아흐>-즉 100% 영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생령’ 즉 <네페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페쉬>라는 단어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영’이 될 수도 있고 ‘혼’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 육적인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아흐>의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페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 곧 ‘자유의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

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에덴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풍성한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곳에서 지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두려움에 떨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창 4: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낳은 다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따로 창조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인류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동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거하는 복된 장소였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복천년'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천년이 되면 이 땅이 에덴동산과 같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자들만이 그 천년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복천년이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이듯, 에덴동산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묵상과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에덴동산에서 살았으며, 그 동산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곳에는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이 있었고, 입맛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

혀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결핍도 없는 완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 2:9]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선악’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선도 알고, 악도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통해 인간에게 경계와 질서를 가르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축복의 장소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온 땅을 돌렀으며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렀고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동산에는 네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동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

명과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입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 강입니다. 이 강은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금과 보석이 풍부한 지역을 지나갑니다. 비손 강은 전통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주변은 풍요롭고 자원이 넘치는 곳으로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2:11-12]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두 번째는 기혼 강입니다. 이 강은 구스 땅을 감싸고 흐르는 강입니다. 구스는 고대 이집트 남쪽 지역, 즉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일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혼 강은 에덴동산의 동쪽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남쪽 지역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이 강은 앗수르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히데겔 강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으로 동일시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며 고대 문명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이 강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농경과 도시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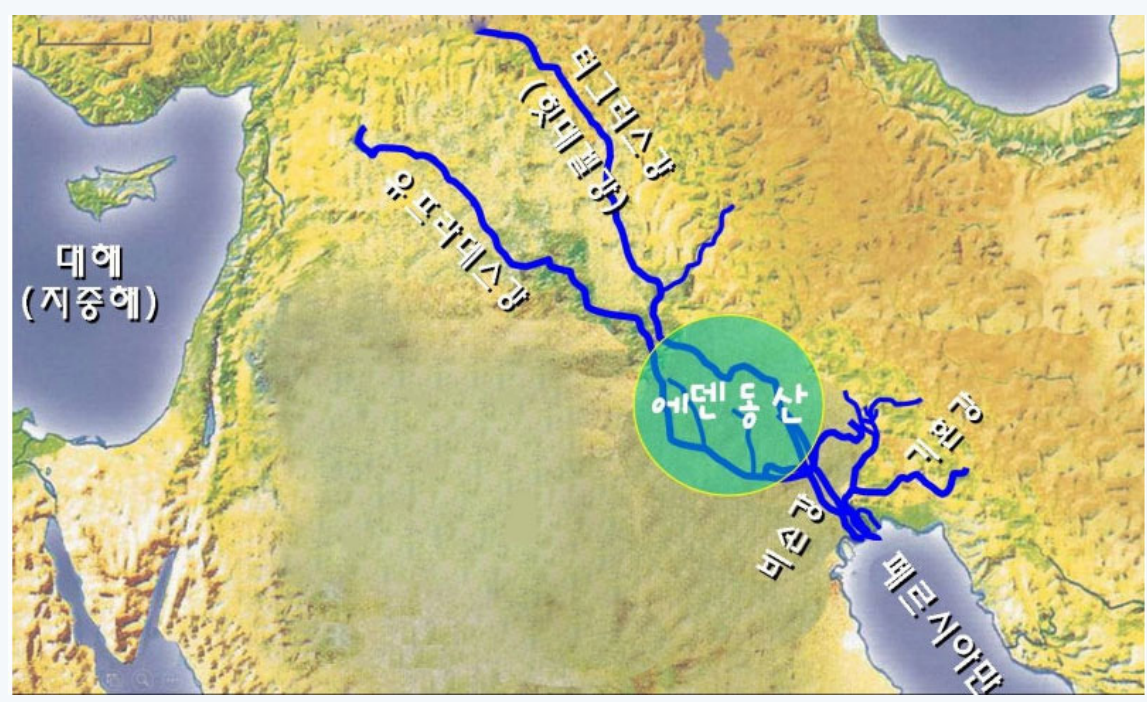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또 다른 중심 강으로, 히데겔 강과 함께 고대 근동 문명의 핵심 수원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이라크를 가로지르며 수많은 역사적 도시들을 품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과 여러 왕국들은 바로 이 강 주변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네 강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생명과 복, 그리고 은혜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물을 흘러넘치게 하심으로써,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물줄기는 단순한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

는 생명의 질서였습니다.

이 네 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 줍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양식, 자원, 생명, 아름다움-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은 단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삶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

시고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창 2:15] ...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단순히 열매나 따먹고 하루하루 편히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놀고먹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수처럼 열매나 따먹고 빈둥거리며 유희자적인 것이 아

니었습니다. 에덴동산이라 할지라도 일해야 하는 곳이었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킨다'는 뜻뿐 아니라,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뜻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식물을 돌보고 땅을 경작하는 것 외에도, 에덴동산 전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곳의 규칙을 준수해야 했고, 동산 안의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동산을 더럽히거나 해치는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고 경건하게 임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결코 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천국이라 할지라도 적응하지 못하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진정으로 편안한 곳이 되려면, 그곳에 어울리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규칙을 따르며, 천국의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그곳이 복된 안식처가 됩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도 낯설고 불편하면 오히려 초가집보다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어겨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규칙은 단순한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준이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곧장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공간, 과연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일까요? 규칙을 어기더라도 매 한 대 맞고 끝나는 곳이 더 나은 건 아닐까요? 선악과 하나 잘못 먹었다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영적 성찰입니다. 에덴동산은 편안함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훈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이 정말 좋은 곳이 되려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창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질서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4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열 명 중 네 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수십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홀로 사는 분들의 비율이 무려 22%나 된

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가 혼자 사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년 세대가 외롭게 살아가는 현실은 더욱 큰 사회적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홀로 살아가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 개인의 가치관 변화,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마귀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가치와 문화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홀로 살아가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창 2:18]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단순히 결혼의 개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에제르>는 '조력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필'이라는 말을 '배우자'로만 해석하지만, 성경은 이 '돕는 배필'을 더 넓은 개념의 '조력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하인이나 종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력자를 얕보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돕는 배필은 힘없는 자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동생에게 형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도움의 손길도 귀한 조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런 밥 한 끼, 작은 선물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조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

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력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보듬어 주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지지해 주고 격려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돕는 배필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조력자를 두시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의 질서입니다.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

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서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창 2:19]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어떻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지 관심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과연 자신과 같은 속성을 지닌 자인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지혜와 분별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잇사>이며, ‘남자’와 상반되는 존재로 지어진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아담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의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여자가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루고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만 홀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머물 집도 없으셨고, 반겨주는 아내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마 8: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는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에 관계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여자를 지으셨고, 그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돕는 배필’은 곧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도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조력자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부족함을 감사 안으며,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보조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혜, 인내, 사랑, 품음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조력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이며,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마주했을 때, 감격스러운 고백을 올립니다.

“[창 2:23]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사

랑과 하나 됨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존재 앞에서 아담은 자신의 존재의 연장과 같은 여인을 바라보며, 뼈에서 나온 뼈요, 살에서 나온 살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할 고백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이루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 2:23]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 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 역시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

다. 실상은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며, 어머니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여자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자의 섬김과 조력 없이는 온전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여자의 손길은 함께합니다. 마지막 옷을 입히고 눈을 감겨주는 이도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살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따로 떼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자는 남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이며,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여자가 없다면, 살아남을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태아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어린아이는 자라지 못할 것이며, 성인도 삶을

이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참으로 여자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동반자이며, 진정한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결혼 초기에만 들려야 할 말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같이 되뇌어야 할 고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 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4단계 공격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귀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귀신을 가리켜 악한 영 더럽고 추한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협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귀신의 세계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습니다.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도 그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교회가 마귀의 세계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질서적이지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공격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귀신은 가장 먼저 '의심의 영'을 보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아주 악하고 보잘것없는 공격 같지만 가장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갖가지 되를 짓게 합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영'은 즉시로 '비판의 영'을 불러 드립니다. '비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질투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질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움의 영'은 상대방을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절망의 영'이 스며 들어오고 맙니다. '절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은 좌절과 실

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 때 우리 안으로 또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살의 영'이 들어와 사람을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귀신의 이러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을 알아야 하며 막아야 합니다. 귀신의 공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단계로 이뤄졌음을 아는 것은 귀신의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공격단계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귀신의 첫째 전략은 '틈'입니다. 귀신은 우리로부터 '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귀신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귀신은 죄와 함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의 공격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배우

자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의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심은 귀신이 주는 첫번째 공격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의 첫번째 공격단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틈'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 침투단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

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격단계에서는 혼자서 회개하면 되지만 침투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적치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선포문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 선포문을 읽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3. 거주단계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 온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주단계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자신이 귀신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란의 영이 거주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활동할 때에 갖가지 음란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중독의 영이 거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여간 해서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단계의 귀신을 내 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는 거주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앉아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성질만 돋구는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사역자에 의해 비록 그 삶 안의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떠난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떠난 귀신이 더 큰 귀신 떼와 함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4. 묶임단계

우리 안에 거주한 귀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귀신들림'이라고 말하거나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묶임단계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뿐만 아니라 죄 인식마저 못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 모양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귀신을 쫓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 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성령님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은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니까요.

창세기 3장 =====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로 유도심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 3:1]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

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슬그머니 바꿉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말은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하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차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마귀의 유도심문에 속아 넘어가

고 맙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며, 거짓된 증언이었습니다.

왜 하와는 이런 거짓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귀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결국 마귀의 계략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결국 나쁜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처럼, 마귀와의 대화는 결국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말합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입에서 누군가에 대한 거짓된 말이 나왔다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누군가 당신을 유혹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과 어울렸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야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창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금하신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포장합니다. 마치 못된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먹지 못하게 꿀단지를 몰래 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을 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유산을 받을 후사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왜곡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애써 얻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마치 노력으로 쟁취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2인자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려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바로 그 교만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적인 죄였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 교만이 스며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만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높아지려 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군림하려 하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결국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교만을 심으려 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고, 순종 대신 자아를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말

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마귀는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할 때, 언제나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감정, 그리고 영적 자존심을 자극하는 이 유혹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스러움’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정욕입니다. ‘보암직함’은 눈으로 보고 탐내는 감각의 욕망이며, ‘탐스러움’은 지혜로 보이게 하

는 영적 교만의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단지 하와를 넘어뜨린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마귀는 접근했습니다.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지요.

"[마 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 4: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치 능력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보이려는 욕망입니다.

”[마 4: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 4: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 마지막 시험은 인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유혹이며, 가장 위험한 교만의 유혹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나의 본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죄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고, 그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고, 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된 공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속임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고, 순종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창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 3: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

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
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반응은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
를 짓고 난 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
십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책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진노의 함
성도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죄의 고통에 짓눌린 자를 찾아 위로하시는 아
버지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죄 가
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
니다. 당신을 때리려는 것도, 혼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사랑의 음
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마귀는 이 단절을 노립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의 벽은 무너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부르시며'라는 표현으로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향해 이름을 부르는, 외침에 가까운 말입니다. 반면 '이르시되'는 <아마르>라는 단어로, 부드럽고 친근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친구 간의 대화, 부부 간의 속삭임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찾으실 때는 <카라>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다소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아마르>로 바뀌어 다정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로 숨어버린 자를 일깨우기 위한 부름은 <카라>였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는 <아마르>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카라>의 외침보다는 <아마르>의 따뜻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부드러운 말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동료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보여주신 그 다정한 부름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자 할 때, 책망의 외침이 아니라 위로의 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도 그 음성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 3: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 3: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창 3:11]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
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여시기 위한 사랑
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잘
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하와에
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
으셨습니다.

“[창 3:13]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며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가 인간의 본성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러한 성향을 가
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들은 온전하고 순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들 안에 마귀의 습성이 스며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에게 죄를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성향은 마귀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마귀의 성품을 덧입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이며,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채워지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삶은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바로 그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

하와의 후손은 단지 인류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이 선언은 인류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것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구원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마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로써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 삶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운명을 함께할 자들을 끌어내리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가 자녀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삶이 두려움과 곤핍함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세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

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자녀를 수고로이 길러야 하는 수고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되는 질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하신 형벌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벌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구속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님의 질서와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더욱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고, 형벌을 거부하는 것이 곧 자유이며, 해방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부담으로 여기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그 권위 아래 거하기보다,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삶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정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거운 짐이나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 감추어진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오히려 더 큰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도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3:17-19]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이 말씀은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삶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남자

는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고, 그 수고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할 때,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생계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사명을 거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고, 진정한 번영과 질서가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남자는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삶은 복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는
본래 불사불멸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였으며, 그
의 삶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어질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
졌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불멸의 존재가 아니
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
아해야 했고, 결국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
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
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근본적인 단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이 끊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과거의 죄를 씻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회복의 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원죄

는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되었지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자범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영적 생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의 삶입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길은 십자가로 다시 열렸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 3: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르는 행위

가 아니라, 아내의 존재를 정의하고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스스로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직접 아내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이유는, 그 뜻이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는 결코 여성을 하대하거나 낮추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생명 계획에 동참하는 존재로서의 위엄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편은 아내를 '하와'로, 곧 모든 자녀의 어머니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되 자녀를 목숨처럼 아끼며 돌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혜의 예표였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상징이었습니다.

“[요 1:35-36]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순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죽옷을 입히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며,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

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의로움을 자처하는 자는 가죽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죽옷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의로움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에덴동산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거룩한 질서와 생명의 길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조치였습니다.

에덴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것은 천국의 모형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명령 외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게 될 것을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장식적

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죄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행위, 거짓을 일삼는 자는 생명나무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아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길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과 영광의 천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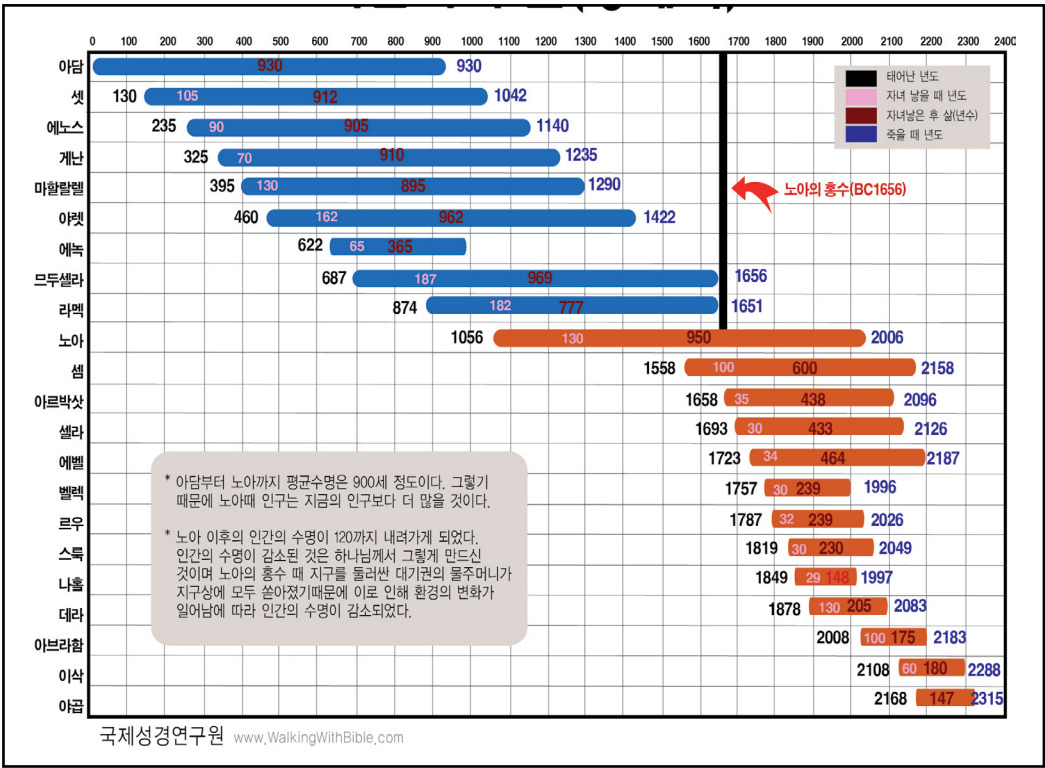
아담의 후손

가인이 살고 있었던 그 때에 이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으로 인
해 어떤 사람은 아담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아니
라 아담 외에 따로 창조받은 인간이 있다는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
입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세월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
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 이전에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은 대략적으로 900세 이
상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20세부터 시작
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자손을 낳았다고 가정
했을 때 노아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수는 오늘날
의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 가인이 살고 있었던 때에 사람
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담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930세까지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자손들 역시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 4: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히브리서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본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창 4:4)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 4:5)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또한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 제물에 앞서 아벨 자신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게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헌금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삶, 태도를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물질이 없어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제물, 둘 다 받기를 원하시고, 둘 다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크게 분노하며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 4:5)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바르게 드린 자를 시기하고 불평하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신 것, 그것이 더욱 분

노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제사가 오히려 더 보기 좋고 값진 제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창 4:3)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고, 피흘림 없이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흘림이 있는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제사였고, 피흘림을 통해 드러

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흘림 있는 제사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흘림 없는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흘림은 곧 십자가이며,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 피를 흘리듯, 생명은 언제나 피흘림을 통해 태어납니다. 사랑도 희생 없이는 거짓이 되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도 피흘림이 따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정성스러운 수확물을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귀하고 보기에 훌륭한 제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피흘림을 드렸습니다. 희생보다 더 깊은 헌신, 그것은 죽음입니다. 가인은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사는 본질부터 달랐고,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흘림 있는 예배, 희생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피의 향기가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분노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를 향한 강한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내면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죄가 문 앞에 얹드려 있다, 즉 문을 열기만 하면 곧바로 죄가 들어와 마음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내면에 이미 죄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지 않았고, 결국 죄를 다스리기보다 죄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범죄하기 직전에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더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이 구절 속 '말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마르>로, 단순한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친근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일부 고대 번역본-70인역(LXX), 사마리아 오경, 불가타(Vulgate), 공동번역 등-에서는 이 표현을 “들로 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곧 가

인이 동생을 유인해 들로 데려간 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직후에도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무서운 단면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미움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질투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가인을 부르십니다.

“[창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아벨의 행방을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물으십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시치미를 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창 4: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며 거짓말을 하는 가인의 태도는 실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도,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는 마귀의 영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신앙의 향기도 사라지고, 마귀의 성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죄에 물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 좋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웃을 미워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문 앞에 엮드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엮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의 길을 걷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 4: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 4: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 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을 아셨습니다. 결국 가인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창 4:11]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저주를 받다' <아라르>는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지를 당하다', '묶임을 당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인을 철저히 막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길 자체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의 처지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묶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효력을 잃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수고가 무의미해지며, 고단함과 고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자신이 직접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저주받았기에, 고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고생합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하며, 결국에는 가난과 질병, 가정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더 비참합니다. 그는 단순히 땅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을 때는 고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저주받으면 인생 전체가 끝없는 고통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쉼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쉬어도 쉼이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잠을 자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노래도, 찬양도 없는 무거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저주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 4:12]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가인의 인생은 떠도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아야 했고, 사람을 피했지만 동시에 사람도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외면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가인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관계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저주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지는 모든 인생을 향한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 4: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창 4:13]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언뜻 들으면 이 고백이 마치 회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것이 두렵고 고난이 무서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에 눌려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죄에 대한 통회가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려는 탄식에 불과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외침일 뿐, 참된 신앙인의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배우자와 자녀, 혹은 재정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소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오직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혀 있던 은혜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죄의 무게를 벗겨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삶은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손을 내미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칠 것입니다.

[창 4: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서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은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창 4:14]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며, 밝은 자리보다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가인은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인 자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왜곡된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한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현실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끌어당기는 자성력을 지닙니다. 결국 삶은 마음에 품은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가인처럼 저주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한, 누가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먼저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저주를 끊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저주와 두려움은 결국 당신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은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 보혈 앞에서 당신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단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품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저주가 끊어졌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가인의 죄는 분명히 크고 무거운 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창 4:15]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아무에게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는 단순한 표시가 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인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표로 인해 가인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표'를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주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언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짐승의 표를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마귀가 주는 표이고, 하나님의 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인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인의 죄가 당신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와 사람을 미워한 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죄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자리, 동일한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당신도 알고, 사람도 알며,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하나님의 표를 받습니다. 반대로 마귀를 따르고 성령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는 생명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는 구원의 인침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짐승의 표 아래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 표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구별하며, 당신을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죄를 범한 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머문 곳은 에덴 동쪽, 바로 놋 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곳이 바로 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라는 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곳이었을까요? 바벨탑이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
제나 세상의 것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가인
역시 그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

쪽 낫 땅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차>로, 단순히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아나다', '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단순히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 세상으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피해 세상 속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이 더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평탄할 수 없습니다. 평안해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 4:16] "낫 땅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 <야샤브>로,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정착하다', '계속 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세상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라도 하듯 그 땅에 정착하려 애썼습니다. 방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머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질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세상의 상징이 된 곳이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 머물며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착하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바벨탑이 우뚝 선 못 땅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정착은 결국 방황일 뿐입니다. 아무리 머물고 있어도 그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시 귀 기울이십시오. 못 땅이 아닌, 은혜의 땅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 4: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
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 4: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
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
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 4: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
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싸라였더
라

[창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
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창 4: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
며

[창 4:22] 싸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창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싸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
년을 죽였도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후손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에게도 그런 후손의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인물,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 4:17] "에녹을 낳은지라."

하지만 이 에녹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그 경건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은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였으나, 가인의 에녹은 또 다른 인물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악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는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창 4: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의 연합이 원칙인데, 라멕은 이 규칙을 깬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창 4:23]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그 끔찍한 살인의 DNA가, 마치 유전자의 저주처럼 후손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뿌리내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저주는 세대를 넘어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분명 가난과 고난, 그리고 불행의 그림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마치 저주의 그림자에 휩싸여 매일 밤 어둠 속을 헤매며, 자신을 해치려는 세상의 눈초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창 4:15]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
는 아무에게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라."

이 표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와 보호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악한 세력
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
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
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주님
의 이름을 새기며,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서 직접 부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
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고통 속
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는 뚜렷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됩니다. 반대로, 마귀의 길을 따르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 즉 하나님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표는 생명의 표이자, 구원의 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생명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짐승의 표 아래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표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구별하며, 결국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창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는 자신의 조상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죽인 자, 저주의 표를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난 자, 그 가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인의 이름을 이토록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랑할 것이 뭐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 보이는데, 라멕은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죄악의 DNA가 라멕 안에서 더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는 점점 거대해집니다.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뽑아야 하는데, 가인의 죄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더 무성해졌습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벌이 칠 배라면, 라멕을 해치는 자는 칠십칠 배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죄는 자랍니다. 그리고 죄는 대를 이어 강력해집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가지가 무성해지고, 악한 사람은 악한 뿌리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 49: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의 삶은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샘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죄악처럼 우리 안에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도끼요, 보혈은 그 뿌리를 말려 죽이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무성한 죄의 가지가 자

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죄의 뿌리는 뽑아내고,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은 결국 가정의 파괴라는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은 단순한 형제 간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자 깊은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비극 앞에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인은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낯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가는 것, 그것도 죄로 인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아담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벨을 대신할 새로운 씨,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은 단순한 또 하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징표였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모으시고, 고난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가인의 사건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

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단순한 족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

이었습니다.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 아담의 가정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후손들 가운데는 죄악의 뿌리가 점점 무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은 잊혀지고, 삶은 점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에노스를 통해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행위요,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는 행위이며,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혹시 지금 황폐하게 느껴진다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잃어버린 예배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끊어졌던 은혜의 줄기는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에노스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와 이름을 다시 부를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회복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당신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

[창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
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단
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이 단어의 뜻
은 ‘형상(image)’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모
양’은 히브리어로 ‘닮음(likeness)’이라는 뜻을
가진 <데무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모양’
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

옥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바 되었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창 5: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뜻이 바로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 5: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 5: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창 5: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창 5: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창 5: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아렛을 낳았고

[창 5:16] 아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5: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18] 아렷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창 5: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창 5: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 5: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5: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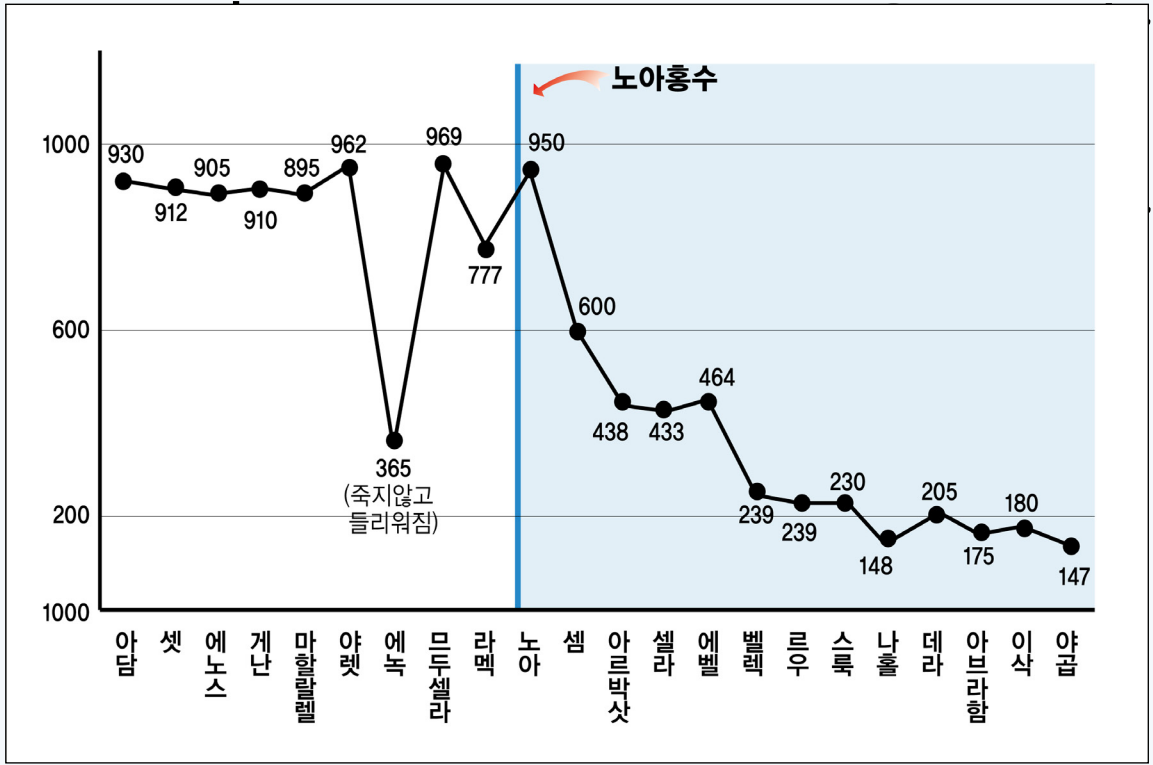
[창 5: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창 5: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 5: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손으로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의 인간 수명이 뚜렷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평균 700세가 넘었지만, 홍수 이후

아브라함 시대가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이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지면서, 대기권 바깥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물층이 지구를 감싸며 마치 온실처럼 생명체를 보호해주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지구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온실 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단축되었고, 식물과 동물의 생육 환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물주머니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학과 과학 연구는 적절한 온실 환경이 생명의 생육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평균 키와 체격을 보십시오. 1970년대만 해도 키 170cm만 되어도 큰 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cm도 흔한 키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환경과 영양, 의료 기술이 얼마나 인간의 성장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 시대는 이보다 훨씬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물주머니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생명 보호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막이 사라지자, 인간의 수명도 급격히 단축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 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이 반복되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 지금은 의료와 과학

이 발달하며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오염과 대기 파괴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얼마나 완전하고 복된 환경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은 그 복된 환경마저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야 합니다.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창 5: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추측해보면,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0년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그의 나이 500세 전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창 9:29] 노아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는 95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600세에 홍수를 겪었고, 방주 건축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때는 그 전후였습니다. 그 오랜 인생 속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가장 기억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인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계획하고 꿈꾸지만, 인생의 방향을 잡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막힌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방주의 나무를 하나씩 쌓아 올리듯,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십시오. 그

러면 당신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6장 =====

[창 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
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
람들을 뜻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
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이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르면, 결혼생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
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매우 신중
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방향과도 직결되
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
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
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
님 백성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계이자 기준입
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
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
선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된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할 때 열매 맺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인도할 것입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수명을 120세로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수명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영생은 끊어지고, 수명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축복은 줄어들고,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900세 이

상 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수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생명을 갉아먹고, 건강을 빼앗으며, 기쁨을 무디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가 들어올 때 사라지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죄만 끊어내어도 회복되는 은혜는 너무나 큼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던 풍성한 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 6: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거대한 체구를 지닌 족속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인류 중에 평범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난히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네피림이 언급된 이유는 단순히 외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네피림 족속은 ‘용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적인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체격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에도 네피림의 후손은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두 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바로 이 네피림 후손을 보게 됩니다.

”[민 13: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도 그와 같았

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그들의 거대한 체구 앞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인 ‘거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인의 체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눈 앞의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서 '한탄하사'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후회는 히브리어 <슈브>로 표현되며, 실수에서 비릇된 되돌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의 죄를 향한 거룩한 슬픔이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반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애통

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 없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선택한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단지 영적인 타락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생명이 단축되고, 축복이 제한되었습니다.

"[창 6:3]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더 이상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명만 단축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며, 복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

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건강, 깨어진 관계, 빼앗긴 기회, 메마른 삶-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잃어버린 축복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창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 6: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 6: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

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 6: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 6:9]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의인의 삶이라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창 6:9] 당대에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타뎀>으로, ‘흠 없는’, ‘온전한’, ‘건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흠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로, 히브리어 <타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완성된’, ‘흠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흠 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 앞에서 의롭고 복된 삶입니다.

[창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
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
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인간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인간에
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의 새
와 땅의 짐승,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그리고 심
지어 땅 자체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
니다.

“[창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

수는 지구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까지 하나였던 대륙은 오늘날의 오대양 육대주로 나뉘게 되었고, 자연의 환경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때 언제나 전면적인 정화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단지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의 예표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결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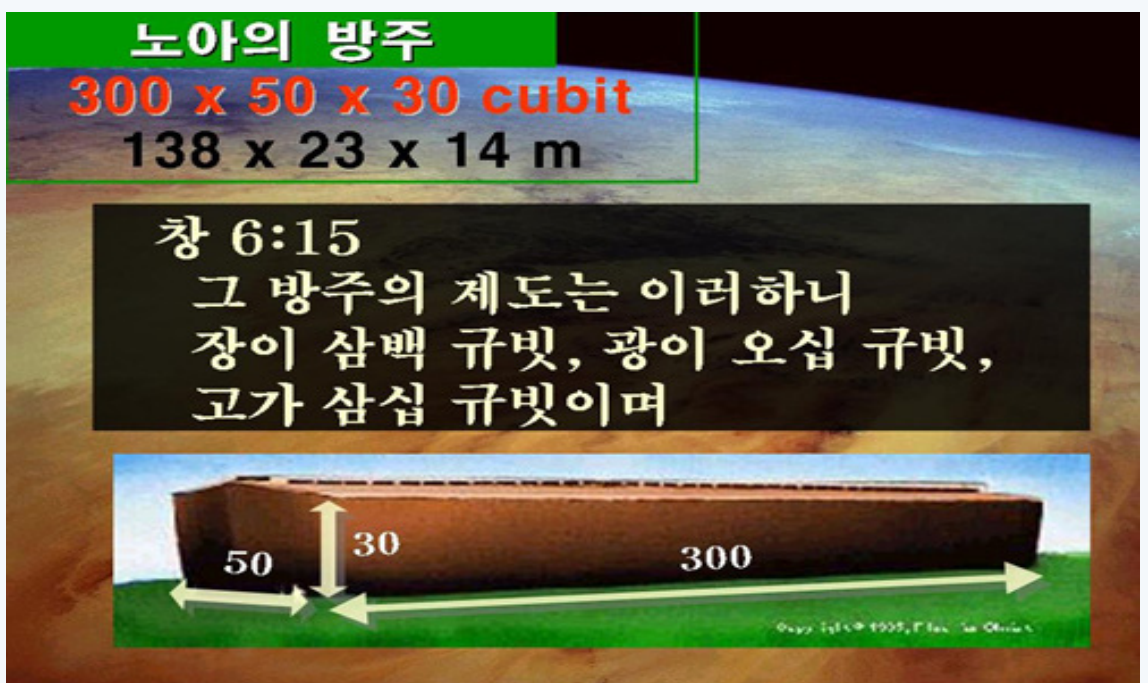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이 예고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

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노아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창 6: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창 6: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 약 138미터, 너비 약 23미터, 높이 약 14미

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벽히 들어맞는 크기였습니다.

혹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 안에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주의 설계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생물들의 종류와 수,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공간까지 모두 완벽하게 고려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는 그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크기, 가장 적절한 공간, 가장 완전한 구조로 생명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은 결국

완전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 6: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 6: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창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단 여덟 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

고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이렇게 여덟 명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세상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인류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인구보다 많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여덟 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파괴를 낳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마귀의 죄악이 세상에 퍼질 때, 하나님의 공의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인류는 스스로 자초한 죄악의 결과로 멸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

[창 7: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창 7: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쌍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들이실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수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쌍이었습니다.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이 장면은 단순한 짐승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수를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단지 생물학적인 분류를 위한 구별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 좌우되는 듯한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정결한 짐승의 수가 부정한 짐승보다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짐승은 선한 짐승을 핍박하고 잡아먹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다릅니다. 선한 짐승은 생명력을 지니고, 더 빠르게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결한 자에게 머물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지 짐승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죄악이 들끓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수는 더욱 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한 자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수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결한 자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 7: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 7: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창 7: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창 7: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창 7: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창 7: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기에 천하의 모든 산이 물에 잠길 수 있었을까요.

"[창 7: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전무후무한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7:11]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큰 깊음의 샘들’이란 곧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현대 지질학자들도 지하수가 바다나 강, 호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지구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품고 있었고, 그것이 화산 폭발처럼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온 땅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창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많은 비가 내린다는 표현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 실제로 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주머니



창 7:11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없어진 물



이 말씀은 대기권 아래의 물(바다, 강, 호수, 하천, 지하수)과 대기권 ‘밖’의 물(물주머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던 이 거대한 물주머니는 지구 전체에 마치 비닐 하우스처럼 온실효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높은 습도와 따뜻한 기후 속에서 식물과 야채가

거대하게 자라고, 공룡 같은 거대한 짐승들도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발견되는 공룡 화석이나 공룡 배속의 큰 열매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룡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수 억만 년 전에 살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지구의 나이를 저마다 추정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인간이 말미잘이나 해파리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론일 뿐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교과서에 실려 사실처럼 가르쳐지는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말씀을 기초로 지구 창조의 근원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문헌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핵심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이자 경고입

니다. 또한 물주머니가 있던 대기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구 전체가 변화된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죄를 향한 공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더욱 명확히 해석될 것입니다.

[창 7: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홍수가 나는 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여덟 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갔지만, 사람은 단지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셋, 함, 야벳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이렇게 여덟 명이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인류 중 왜 오직 이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

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방주 역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외에, 노아에게 다른 자녀는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5: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구절만 보면 노아가 500세 이전에는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언제나 ‘대표 자녀’의 이름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 후손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 가까이 되었는데, 그 긴 생애 동안 단 몇 명의 자녀만을 낳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담 역시 930세를 살며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노아 또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셈, 함, 야벳 외에도 노아에게는 수없이 많은 자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왜 다

른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쇠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노아는 아마도 자신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셋 함, 아벳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 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살아내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그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창 7: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창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

승들을 암수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창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고 여호
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
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
라'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딛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자녀가 무슨 소
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마귀
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삶의 본질과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많
은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는 삶을 그대로 따
라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
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
라"는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이 세상
은 점점 혼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스러
운 가정의 의미는 사라지고, 생육하고 번성하

라는 본래의 목적은 잊혀진 채, 음란과 탐욕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온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으며, 사람들은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세상은 재앙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의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혼돈의 시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창 7: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창 7: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창 7: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창 7: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덮은 물의 높이는 무려 '15규빗'이었습니다.

대홍수-Deluge

궁창위의 물



“[창 7: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오늘날 기준으로 약 7~8미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실로 엄청난 물의 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은 지면의 낮은 곳은 물론이고, 천하의 높은 산까지도 송두리째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자랑과 권세도 이 물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속에 잠기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

신 하나님께서는 산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견고하던 산조차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물로 덮인 사건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입니다. 세상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례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결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죄악은 물에 씻기고,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우리의 삶 역시 세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 7: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 7: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 7: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손길에서 예외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물고기들이 땅에 있던 수많은 생물의 시체를 정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휩쓴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기에, 지면에 숨 쉬고 살던 생물들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 물고기만은 제외였습니다.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고, 생명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허락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375일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홍수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답답함, 지루함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홍수 심판을 통해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신 하나님을 무섭게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방주가 있었기에 생명이 보존되었고, 희망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노아처럼 의로움이 있었다면, 그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사이에서 갈등하고, 답을 찾으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홍수와 같은 심판의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반면, 홍수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한 방주도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

[창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창 8: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창 8: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창 8: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창 8: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홍수의 물은 40일 동안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긴 그 거대한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창 8:1]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거대한 홍수

의 물이 서서히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었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세상 위에 다시 생명과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고인 눈물이 마르며, 묵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사’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순간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계획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보

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고통, 당신의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회복의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거대한 홍수도 잦아듭니다. 무너진 마음도 회복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인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물은 줄어들 것이고, 마른 땅은 드러나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 8: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창 8: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창 8: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창 8: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창 8: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창 8: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창 8: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창 8: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히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혔더니

[창 8: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려 375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월 십칠일에 방주에 들어간 이후, 이듬해 이월 이십칠일까지 방주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길고도 답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 마치 방주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합니

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것은 곧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번에 걸쳐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창 8: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려 보낸 비둘기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창 8:11]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비로소 생명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 8:12]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이며, 간구입니다. 비둘기를 날려 보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는 응답의 사인을 의미합니다. 보내고 또 보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반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지음 받았고, 땅에서 자라며, 땅 위에 살아갑니다. 방주는 결국 땅에 도착해야만 그 역할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반드시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은혜의 땅에 안착시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낼 때, 그는 칠일씩 기다렸다가 다시 날렸습니다. 오늘 날려 보냈다고 내일 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칠일', 곧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칠일은 하나님의 수이며, 창조의 수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7일의 한 주 역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노아는 그 질서를 따라 기다리며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간구했으면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을 바라봅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고난의 끝이었습니다.

“[창 8:13]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헸더니”

‘건헸다’는 말의 히브리어 <하라브>는 단지 물이 마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라졌다는 깊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고난의 파도도, 그분의 손길 앞에서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 물은 감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창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8: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창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 8: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창 8: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방주에서의 긴 여정이 끝나

고,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가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죽음의 물결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감격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예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평안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답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오늘 예배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심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

은 평균 9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인간의 수명을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창 6:3]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이 수명 제한은 단순한 영적 징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 환경 자체의 변화가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하늘을 둘러싸고 있었던 ‘물주머니’는 지구 전체에 온실 효과를 주며 생명체에 유익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면서 그 물주머니는 사라졌고, 그와 함께 생명의 보호막도 무너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어도 공기 중의 습도는 항상 풍부했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부터는 추위와 더위가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며, 밤과 낮의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전의 평화롭고 따뜻한 환경은 이제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의 터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육체는 연약해지고, 일상은 더 고달파졌으며, 수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홍수는 세상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정리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는 쉽지 않은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삶이 험난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이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홍수 이후의 혹독한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평안은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창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8: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

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창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 8: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창 8: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 8:17]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놀랍게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명령과 똑같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생육
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확장이
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명령을 주
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시대
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
다. 그런데 마귀는 이 생명의 명령을 방해합
니다. 생육하지 못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번
성을 막고자 온갖 유혹과 혼란을 심어놓습니
다.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해
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
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첫 시작을 예배
로 삼은 것입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제일 먼저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한 주를 시작할 때도, 한 달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한 달의 첫 날에도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월삭제사입니다.

"[민 28: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 외에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속죄일 등 수많은 절기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곧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이스라엘처럼, 먼저 제단을 쌓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명령 앞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서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사의 연기, 곧 거룩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8:21]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계획하는 바'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예체르>인데, 단지 마음속 생각만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의도와 동기, 목적과 결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래부터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그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 향기를 즐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립니다. 진실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간의 수명 단축이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900세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수명 제한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홍수를 통해 지구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을 둘러싸고 있던 물주머니의 붕괴였습니다. 이 물주머니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주었고, 생물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적 보호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로 이 물주머니가 무너졌고, 지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습기와 일정한 기온이 사라지고, 이제는 추위와 더위가 생겨났습니다. 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의 수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인간은 더 연약해졌고,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으며, 삶은 고단하고 피곤해졌습니다. 더 이상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은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삶이
힘겨워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
십니다.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
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이
후,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
까? 절망으로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그 속에
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게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십니
다.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고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
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변화 속에
서도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 9: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 위에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저주처럼 여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 육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 9: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을 '자유'와 '자기 인생을 즐기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귀가 준비한 함정이며 덫입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진짜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복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창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피 안에 두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는 곧 생명이며, 피는 죄를 속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하신 이유는, 생명을 통해 죄를

속하시려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원칙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건강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냉장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채로 고기를 먹을 경우 다양한 세균과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에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영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피는 포악함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짐승을 피째 먹는 문화는 점점 사람을 거칠고, 공격적이며, 예민한 성격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계에서도 육식동물은 성격이 날카롭고 공격적이지만, 초식동물은 온순하고 평화롭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생활이 성격과 인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단지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오늘날 냉장 기술과 위생 설비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여전히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지 생물학적인 피가 아닙니다. 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시기 위해 피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 9:6]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도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질서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그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 속에는 그 짐승이 죽을 때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습니다. 짐승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 피를 흘리며 강한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섭취가 아니라, 짐승의 성질과 정서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짐승처럼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피가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생명을 해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기록하고 계시며, 피 한 방울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

니다.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 9: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9: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창 9: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 9: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 9: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창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지라

[창 9: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로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는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아무 조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과 햇빛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물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고, 햇빛은 빛 되신

주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고난만으로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만으로도 무지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눈물과 시련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제서야 우리 삶의 하늘에도 무지개의 언약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음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번 심판은 이전처럼 모두를 쓸어버리는 홍수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며, 불은 모든 것을 태워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도

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벧후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지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며, 거룩한 삶으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은혜를 기억하고, 불의 심판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 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 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 살아남은 이 세 사람을 통해 인류는 다

시 퍼져 나갔고, 세상은 또 다른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열국의 표'라고 불리는 이 장은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각각의 민족으로 나뉘어 흩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족속의 수를 세어보면 정확히 70족속입니다. 이 숫자는 단지 통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놀라운 점은, 성경 전반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눅 10: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하필 70명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70족속, 곧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구약의 70족속이 세계의 민족들을 대표했다면, 신약의 70제자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

져야 함을 보여주는 선포였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서로 연결된 깊은 상징입니다.

이와 같은 70의 상징은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세운 이스라엘 장로도 70명이었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역시 70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자, 대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수가 70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성경(LXX)’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12지파에서 70명의 유대인을 초청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 번역본은 헬라문화권 속에서 유대 신앙을 이어가던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었고, 이후 기독교 초기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칠십인역에서는 세계 민족을 72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번역자 수도 72인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후대 문서의 변화로 보며, 민족의 구분이

달라졌음을 반영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숫자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며,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 인류를 향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시작된 70족속, 예수님의 70제자, 이스라엘의 70장로, 산헤드린의 70인, 그리고 칠십인역 성경까지-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여전히 땅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 흐름 안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 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창 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는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포도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오직 자신과 세 아들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현실 앞에서 노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감사보다도,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비극 앞에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경외심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친척도, 이웃도, 아는 이 하나 없이 황량한 땅 위에 남겨진 그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쩌면 그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포도주로 위로받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은 결코 허무함을 채워주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죄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외적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종종 수치와 음란함을 상징합니다. 술에 취한 노아는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연약함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벌거벗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절제도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중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법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흥미롭게 여기며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솔함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불경함이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가정을 향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고작 그 정도 잘못으로 그렇게 큰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경건한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과 연결해 주신 삶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부모를 귀히 여기며 사는 이들의 삶을 보면, 자연스럽게 장수와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의 삶은 자주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여러 영역이 배격거리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부모의 연약함 앞에서 자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질서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 역시 자녀 앞에서 경건하고 신중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하라.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창 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 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 9:27]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 9: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
았고

[창 9: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
었더라

결국 함은 아버지 노아의 입에서 나온 저주
로 인해,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는 신세
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운명
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이 대대로 이어질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족속들의 분포를 보면,
함의 후손은 주로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지역
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낳은
자손들은 이후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
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저주의 그림자가 그
들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노아의 저주는 단순한 말이 아
니었습니다. 함에게 실제로 임하였고, 그의 삶
과 자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
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가문의 미래를 송
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
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저주는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자녀의 심령에 심겨져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도 경각심을 주는 일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은 곧 씨앗입니다. 그 말은 자녀의 인생에 심겨져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도 부모에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축복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함이 부모의 수치를 경멸로 대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가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진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하나

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축복이 흘러야 합니다. 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 문화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0장 =====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 10: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창 10: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창 10:4] 야완의 아들은 엘리스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창 10: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 10: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창 10: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니므롯을 가리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킵보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 6: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용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킵보르>입니다. 단순한 싸움꾼이나 전사를 넘어서, 고대 사회에서 힘과 권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니므롯은 이 <킵보르>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정체성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시대를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로 나타납니다.

바빌로니아의 전승에 따르면 바벨탑은 니므롯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아랍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탑이 있었던 지역을 ‘니므롯의 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와 신화 속에서 강력한 인물로 각인된 존재였습니다.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구절은 바벨탑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뜻을 거스르고, 흠어짐을 면하려 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사탄의 교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다가 쫓겨났듯이, 인간도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다 무너진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건축물인 지구라트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계단식 탑을

쌓았고, 바벨론과 우르 등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세워졌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늘에 다다르려는 상징적 시도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약 30곳 이상의 지구라트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그 구조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형 단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탑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교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과 지구라트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명 속에서도 같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무너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탑’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성공, 자랑, 지식, 종교적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 10: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창 10: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시날 평지’는 니므롯의 땅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이 넓은 평지에 사람들을 한데 모아 그 중심에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웅장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니므롯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교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니므롯은 단순히 힘센 지도자나 용감한 영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앞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사

람들의 찬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철저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교만의 결정체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분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니므롯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또다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자신의 바벨탑을 세울 것입니다. 이 탑은 돌이나 벽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과 이념,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포장된 현대적이고 교묘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며 온 인류를 거짓된 연합과 화려한 약속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니므롯의 교만했던 시도가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사탄

하늘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원래 천사였던 사탄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늘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에 쫓김을
당하고 만다(계 12:7-9).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니므롯

사탄의 앞잡이
(세상의 영걸)

함의 손자 니므롯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걸"이라는 호칭을 받았으며(창 10:8),
시날림지에 바벨탑을 쌓게 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하였다(창 11:4).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7]



바벨탑

"자, 성(City)과 대(Tower)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



신바벨탑

"계 18:2 헬렌 음식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짐승

사탄의 권세수여자

사탄은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계 13:1-10),
짐승은 그가 가진 권한을 통해 거짓선지자에게
세상을 손아귀에 넣도록 하였으며
적그리스도를 세상 곳곳에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사탄

사탄은 신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사탄은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유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기구를 만들도록 인도하고 있다.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세워지는 화려한 탑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반역과 교만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치 '진보'요 '자유'인 것처럼 포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문명은 반드시 무너 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창 10: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창 10: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창 10: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창 10: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창 10: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창 10: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창 10: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 10: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 10: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창 10: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창 10: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창 10: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창 10: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창 10: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과 예라와

[창 10: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창 10: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창 10: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창 10: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창 10: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 10: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자손은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총 70족속으로 나뉘어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지 족속의 수를 세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전 세계로 사람들을 퍼뜨리셨듯이, 이 70족속이라는

숫자 속에는 전 인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징을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눅 10: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70제자는 바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상징적 출발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성경 번역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칠십인역 성경(LXX)’이라고 부릅니다. 칠십인역 성경은 단순히 70명의 번역자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으로 출발한 70족속, 예수님이 세우신 70제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칠십인역 성경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70제자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서로 가깝고 긴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하나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 하나됨을 놓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언어가 같다는 것은 생각과 뜻도 쉽게 하나로 뭉칠 수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 교만과 탐욕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언어의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에 더 쉽고 빠르게

교만과 타락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됨의 힘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됨은 결국 교만의 탑, 곧 바벨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됨의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니므롯의 땅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 시날 평지 위에 거대한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니므

롯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용사'로 표현된 니므롯은 단순히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지배할 야망을 품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날 평지에 세운 바벨탑은 단지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려는 인간 교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빼앗아,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니므롯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흠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 11:4]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흠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은 '가인의 저주'를 끊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옛날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에 방황해야만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니므롯은 바로 이 가인의 저주를 끊길 원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저주를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가인의 저주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창 11:4]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의 말은 마귀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도 니므롯처럼 말했습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니므롯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니므롯의 외침은 무신론적인 발언이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Philo)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그 벽돌에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니므롯은 존재합니다. 세계 전역에 니므롯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니므롯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사회에 니므롯이 있습니다. 여전히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흠어짐을 면하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니므롯에 의해 수많은 연합기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선 사람을 위한 기구이지만 속셈은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 모이는 기구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연합기

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연합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UN)
-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세계 은행 (World Bank)
-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국제 원자력 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 국제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 국제 사법 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지역에도 연합기구가 있습니다.

-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EU)
- 북대서양 조약 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 AU)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남미 국가 연합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

최근 들어 종교 연합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 인권, 사회 정의를 목표로 활동한다고 하지만 속셈은 하나님으로부터 흠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들 종교연합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 (Religions for Peace, RfP)
- 국제 종교 자유 연합 (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IRLA)
- 세계 종교 회의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 국제 종교간 협의회 (The Interfaith Council

on Ethics Education for Children)

- 국제 종교 평화 기구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RI)
- 세계 종교 지도자 연합 (World Alliance of Religions' Peace, WARP)

특별히 근래에 와서는 종교단일을 주장하며 여러 연합기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은 기독교 교파 간의 일치를 추구하고, 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속셈은 하나님으로부터 흠어짐을 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주요 종교 연합 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 세계 개혁교회 연맹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
- 세계 감리교 협의회 (World Methodist Council, WMC)
- 루터교 세계 연맹 (Lutheran World Federation, LWF)
- 교회 일치와 세계 선교 협의회 (Council for

World Mission, CWM)

- 세계 동방 정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Oriental Orthodox Churches)
- 기독교일치진흥회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세계 복음주의 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 세계 성공회 협의회 (Anglican Communion, AC)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연합기구는 다양한 기독교 전통 간의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교파를 초월한 예배와 기도모임을 통해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며 공동 선교 활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벨탑을 쌓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니므롯이 계획하는 일인지도 모른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니므롯의 반역에 대한 조치는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작은 형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홍수와 같은 큰 심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망시키는 대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모이려고 합

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임은 모두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며,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모임이 결코 세우고자 하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깨어뜨리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관된 모임만이 참된 모임이며,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창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창 11: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 11: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 11: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창 11: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창 11: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 11: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창 11: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

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창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세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150세 정도까지 내려가 점점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까지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명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

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하신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서는 모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때문에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마치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뜻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그러나 스테반의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한 이해를 도와 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최후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스테반은 자신의 설교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행 7:2)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란 어느 곳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스테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길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행 7: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원하셨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으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데라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채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편한 하란 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란 땅은 어느 곳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의 사이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간다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유프라데스강을 이용하면서 하란에 먼저 이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버지 데라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알려지지 않는 요인들로 인해 하란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거두어가셨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떠날 가족들을 거두어 미지의 세계로 향하였습니다.

“[행 7: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주했을 때의 심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거주할 땅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누군가를 쫓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

함의 믿음과 순종심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의 강력한 순종심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가 살던 본토는 ‘갈대아 우르’였
으며, 이 지역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는 창세기 2장에 언급된 네 개의 강들이 합쳐
져 있는 지역으로,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갈대아 우르는 최상의 삶을 제공하는 지역이
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 좋은 장소를 떠
나 황량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
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

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였으며, 그 당시 가족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수가 많아야 했고, 항상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안전을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상적인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어 주는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

함은 결국 '데라'가 죽을 때 홀로 서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며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가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것이며,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거대한 땅이라면,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그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축복권과 저주권이었습니다. 이 권세를 통해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고, 저주할 때에는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 이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통한 축복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19])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이 권세를 통해 하늘에서의 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권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장소는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 12:6]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방 땅, 낯선 문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매우 열심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배타적이었고, 외부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그러한 땅에 발을 들였다는 것은 곧 문화적 긴장과 신앙적 시험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세겜 땅 한가운데에는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모레'는 '가르치는 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며, 상수리나무는 강인한 나무로 이방 신탁의 장소로 자주 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발을 디딘 바로 그곳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장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성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영적 황무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 펼쳐갈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 할 때, 주변 환경이 온통 믿음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일 때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설 때, 예기치 못한 영적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틈에 끼게 되고, 주변의 문화가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동네나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 지역의 분위기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땅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 땅, 우상숭배의 중심에서도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 있을 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가 비록 모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일지라도, 그곳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첫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 12: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삶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람, 모세, 엘리야와 같은 성경 인물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람처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예배는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힘든 노동이 되고, 억지로 드려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아브람, 모세,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며,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생업은 목축업이었고, 기근으로 인해 짐승들의 먹이와 물을 구하기가 어

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문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류하려고' 갔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구르>는 단어는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이사를 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이사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떠나고, 매사에 그분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창 12: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창 12: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창 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 12: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

고

[창 12: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창 12: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창 12: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 12: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창 12: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 12: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할 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들어서며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창 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죠.

“[창 12:13] ...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녀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뿐이었습니다.

“[창 20: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족 간의 혼인은 일반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결단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의 아름다움에 홀려 그녀를 궁으로 데려갔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피곤한 전쟁터처럼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창 12:15]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라가 바로의 품에 안겨야 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만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밤과 고통이 그들을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내를 곤욕에 빠뜨렸으며, 그의 고통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이러한 불명예를 겪었지만, 그는 이후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같은 길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근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아비멜렉 왕의 눈에 들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또 한 번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저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엔 다시금 두려움이 쌓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후손과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삭이 태어난 후, 그는 드디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결국, 그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아브라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그 길에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

[창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창 13: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 13: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벤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창 13: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 속에서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런 상황은 비단 아브라함과 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면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간에 작은 문제도 늘 생기는 법인데, 하물며 삼촌과 조카 간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자들이 다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롯과의 갈등 속에서 '헤어지자'고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죠. 이는 롯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헤

어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협력 대신 단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화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권력과 재산이 아닌, 관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분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진정한 소통과 배려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헤어짐이 아닌 연합을 추구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마음에 새기세요.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 13: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 13: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매혹적인 풍경을 발견합니다.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는 그 땅이 마치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모인 곳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그곳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유황 불로 멸망할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는 그곳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판단했을까요?

롯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는 어이없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

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영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도 룯과 같이 영적으로 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런 이유로 타락한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 죄악이 넘치는 곳에도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룯의 선택에서 배워야 할 점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기준, 즉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란함에 휘둘리지 말고,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 13:14] 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3: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십니다.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축복받을 것에 대해 되새겨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강하게 부여잡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 아브라함은 절망과 실의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4장 =====

[창 14: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창 14: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살고 있을 때, 그의 조카 롯의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어닥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원전 2000년 초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삶이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네 나라와 네 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아므라벨 왕은 고대 바벨론의 여섯째 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입니다. 그의 나라가 '시날'로 언급되는데, 이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왕의 존재는 그 지역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아리옥은 엘라살의 왕인데, 그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로 추정됩니다. 그는 아므라벨과 동맹을 이루어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함께 싸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은 엘람의 왕으로, 오늘날의 이란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도시들을 정복하고 조세 체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고임 왕 디달: 디달은 고임의 왕으로,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 지역의 특정 왕국을 나타냅니다. 고임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이 네 왕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전설에 그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짓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 14: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엠해에 모였더라

[창 14: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창 14: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창 14: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창 14: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창 14: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창 14: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창 14: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
하매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
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창 14: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
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맹군을 결성했습니
다. 그의 동맹에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동맹군을 결성하
게 된 이유는 사해 도성들-소돔, 고모라, 아드
마, 스보임, 소알-이 그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
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이 도성들은 13년
째부터 조공을 끊자, 그돌라오멜은 저들을 혼
내주기 위해 14년째에 동맹군을 조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람 왕은 기원전
2094년에 우르를 멸망시키고, 다음 해에는 마
리를 침공하여 사날의 샘족 속과 마리의 아모
리인들을 혼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전투에서 아모리족 속을 치고 난
그돌라오멜은 사해 동부 지역을 지나 사해 남
단의 네게브 지방까지 진격하여 아말렉을 빼

앗고 사해 도성을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조공을 바치던 사해 다섯 도성은 결국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까지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이런 비극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결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태평한 장소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진정한 도피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 14: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
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맹한 가신을 이끌고
단에 올라가,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과 그
의 가신들은 강력한 적들에 맞서 승리를 거두
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에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
는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군사력
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아브
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 왕들을 무찌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강력한 적들과 싸워 승리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의 군사적 전략이나
힘 덕분만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그리고 동맹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강력한 적들에
맞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
님을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승리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신뢰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얻은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믿음 기반의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직면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창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단'까지 올라가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 왕들을 무찌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서부터 거의 이스라엘 대륙을 횡단한 셈입니다. 이런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려는 그의 결단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걸기로 한 대단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 가족과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를 구출하겠다는 마음만으로 이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모험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한 힘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은 힘든 여정 끝에 결국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 14: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창 14: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
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
라

[창 14: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
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에게 십일조를 드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
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은 누구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십일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을 마음 깊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단지 십분의 일만 바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일조가 아까
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재산, 가족, 건강 등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십일조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성실한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 15: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 15:4]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15: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 15: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르러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 15:2] ...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함께 했던 충실한 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걸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가족이라

는 사실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북방의 강력한 민족에 의해 사로잡히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자, 급히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평화로운 헤브론을 떠나,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전투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나는 모습은, 인류 역사에서 남긴 수많은 전쟁의 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롯을 구하기 위해 '단'으로 향하는 데 횡단해야 했던 길은 결코 짧거나 간단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도시로,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통해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으로, 조카를 구출하기 위한 그의 발걸음에는 깊은 신뢰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무장한 하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여기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인들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깊은 신뢰를 쌓았고, 훗날 그를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변화를 목격해온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준과 믿음을 함께 나눈 존재였고, 그의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 15:4] ...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소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무너지는 내면의 불안 속에서도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 15:5] ...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위로와 힘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 15:5] ...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다수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을 때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기억하며, 그가 겪은 모든 시련과 담대한 승리를 통해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제약 속에서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며 믿음을 견고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족, 직장, 재산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상태는 자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일을 미리 알려 주셨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비록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단에 짐승을 쪼개 놓고 이를 통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한 상대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며, 이는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쪼갠 고기처럼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충격적이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갠 고기처럼 둘로 갈라져 죽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전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이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은 신앙의 중심에서 중요합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의 계약 체결 때 하나님께서 찢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일체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

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예전에는 마호메트교라고 불리우는 이슬람은 저들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Muhammad, 영어식 표기)는 자신의 계보가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바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느바웃은 이스마엘의 장자입니다. 결국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종교라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이삭'을 통한 신앙의 계승이라면 '이스마엘'을 통해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갈 4:22-23)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곧 '하갈'을 뜻합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말합니다. 하갈로부터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사라고부

터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롬 9:7)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8)고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인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시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듯 많은 아들이 있었어도 오직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창 16:15).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

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풍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나라가 되게 하려니와"(창 17:20).

이러한 이스마엘의 축복은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 16:10)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두라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겐 동방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동방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방의 자손'들이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창 25:6)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마엘의 열두 족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열 두 족속(느바욧, 게달, 앓브엘, 밍삼, 미스마, 두마, 맛사, 하닷, 데마, 여둘, 나 비스, 게드마)이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창 25:18)습니다. 야곱의 12지파와 함께 이스마엘에게도 12족속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들에게도 자손이 번성되는 축복을 주셨지만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에게도 자손의 번성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두라의 자손들은 동방에서 살았지만(창 25:6) 이스마엘 후손들은 남방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창 21:21)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란광야는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마엘은 주로 이곳에서 살았으며 그의 후손들도 이곳에 거하였습니다. 그의 열 두 족속은 하월

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살았습니다. '하월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삼상 15:7)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모세시대때 아말렉과 대적하여 모세가 팔을 들어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출 17:8-16). 발람은 "지금은 아말렉이 열방중에 으뜸이나 종말에는 멸망하리라"(민 24:20)고 예언하였습니다. 현재 아말렉은 이스라엘 나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사람은 에서의 손자로 유목민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약탈자들이었다. 따라서 '하월라부터 술까지의 지역'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방지역까지의 지역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므마엘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자주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과 결혼 했습니다(창 28:9). 요셉의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

이었습니다(창 37:27-28). 또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쳤을 때에도 성경은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리었습니다(삿 8:24). 이처럼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들과 가깝게 교류하고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 후손들은 동쪽에서 산 것이라기 보다는 이스라엘 남쪽에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좋지못한 관계로 지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찌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창 16:12)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창세기 16:12, 현대인의 성경)

또한 성경은 "그 자손들은 ...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창 25:18)고 기록하고

있는데 '맞은편'이라는 말이 '서로 적대시켰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간의 분쟁은 '십자군 전쟁'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여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전쟁은 도화선을 타고 가는 불처럼 뜨겁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종교분쟁은 중동전쟁과 걸프전, 그리고 9.11 테러사건에 의해 절정에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폭탄테러와 유혈사태 등은 두 종교간의 분쟁의 심화됨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유엔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울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의 55%를 할당받고 가나안 땅에 새로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2000년만에 갖게된 가나안 땅의 입성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160여만명의 아랍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 1948년 5월에는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주변의 아랍국가들의 공격이 시작됨으로써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 한창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슬람교 성전이 세워져 있기때문에 이슬람 성전을 없애버리고 싶은 이스라엘 민족의 끈질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

[창 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창 16: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살았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 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창 16:3] ...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사래는 소위 씨받이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늙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사래는, 하갈을 통해서라도 남편에게 자식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갈망이 그녀를 결국 이렇게 이끌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의 말을 거절해야 했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태어날 씨를 간절히 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래의 믿음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들 중에 믿음이 아직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을 경시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믿음의 여정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래의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창 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

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 하였더라

사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길 때마다 그와 함께 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이를 잉태하고, 그로 인해 사래는 차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 16:4] ...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고통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주목하는 사이, 사래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슬픔이 얹히는 순간, 하갈의 눈빛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자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을 발견하고는, 사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 말은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가? 왜 나의 기쁨이 당신의 사랑을 빼앗겨야 하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슬픔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마음에서 솟구쳤을까요? 사라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해질까 두려워, 마치 하갈의 잉태가 그녀의 인생을 판가름 지을 결정적인 순간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종종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화가 온전히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나의 행동은 분명 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딤후 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한 대화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 둘은 관계의 회복과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

품을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창 16: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창 16: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창 16: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창 16: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 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길고도 힘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래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소위 씨

받이를 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늙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남편에게 자식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의 말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남자였기에 자신의 씨를 갖고 싶어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내 사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래의 믿음은 그때까지 미약했을지라도, 이들은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래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아직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시며,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성장 가능성을 잃지 말고, 나 자신과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시다.

[창 16: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 16: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창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창 16: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창 16: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 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 예언하며 그가 장차

“[창 16:12] ...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동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서쪽의 반대쪽을 의미하며, 이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과 대립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대항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직역하면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SV 성경에서는 이를 그의 모든 친족들과 ‘대항해서’(over against)라고 번역했으며,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러한 뜻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네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창세기 16:12,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가족의 불화에 그치지 않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신념과 뿌리를 공격하며,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더욱 뚜렷하게 그 뜻을 드러냅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뿌리와 대조되는 이삭의 후손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그가 계속해서 느끼게 될 고독과 내면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관계 맺음과 역사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생존의 힘을 부여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뿌리 깊은 갈등을 경험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17:1] ...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다”는 <타밈>이라는 단어로, 이는 전혀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완전함은, 것처럼 완전해지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

은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주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한 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17: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 17:5] ...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

이 순간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정체성과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17:5] ...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슴 깊이 울리는 역설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자녀 하나 없는 불임의 고백 속에서, 그로 인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혼란과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끔찍한 아픔 속에서

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세상에 전파할 미래의 후손들을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민족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치 생명의 물결처럼 그의 마음 속에 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각자 고유한 가치와 사명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름으로 평범하게 살 때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새로워지며 믿음의 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개명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고하게 하시면서 '할례'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당시 중동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

는 성년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 남자는 이방인과 노예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확하고도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할례 의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정결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의식보다도 내면의 변화가 더욱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 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할례를 베풀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주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몸에서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사랑과 진실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할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즉 마음의 할례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뺏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할례'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창 17:10)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지 8일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눅 2:21-23)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 하시면서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었을 지라도 할례의식을 행한 남성은 며칠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병균이 몸 속으로 들어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피의 제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피가 베어지면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께

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베어진 양피는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바울은 "대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의 영적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행 15장 참조).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식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

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수 5장)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고 정탐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누워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박한 때에 할례의식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할례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

아아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4)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

이다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사래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창 17:15] ...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에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듯이, 사라는 그리 큰 믿음을 지닌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14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 사라가 이제 큰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불임과 나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바꾸어 주

신 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며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이 현실로 다가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녀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지고, 마침내 이삭을 품에 안게 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대로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약점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일이며,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창 17: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 17: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창 17: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창 17: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창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

를 벤 때는 십삼 세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넓고 포괄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세상이란 대개 뛰어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높이고 축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마음을 열어 그들을 더불어 가까이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인해 소외감과 고난 속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장벽이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품어 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눈에는 각각이 소중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창 17: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날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날에"라는 표현은 같은 날(same day)을 의미하며,

이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 17:23]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과감한 결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일을 모두 마치고서 천천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도 큰 변화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기하지 않도록 요청하시며, 나의 시선과 행동을 조정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17: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할례의 의식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식솔에게 이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솔 수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창세기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

팔 멍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숫자는 3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단순히 전투에 참여한 남자들만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축을 담당할 수많은 하인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아브라함의 식솔 수는 최소 500명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남자들에게 동시에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한 날에 수백 명이 같은 의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준비와 조직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짐승들을 돌봐야 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한 의식을 넘어, 하나님과

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

[창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갔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장소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회복되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과 방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신앙의 불꽃

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이후의 여정에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인도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르레에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 18: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창 18: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 18: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창 18: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 18: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창 18: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이들 중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두 천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를 보고 몸을 아래에 굽혀 섬기며 그들에 대한 존경과 환대를 표했습니다.

“[창 18:8]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후, 세 천사는 소돔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가기로 한 천사들은 두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창 19: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세 천사 중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절 상)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 천사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셨고, 여호수아 앞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관’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수 5: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수 5: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
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
서 주관하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
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잠시적으로 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
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만남의
시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
나님의 자리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창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
나이다

[창 18: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사라입니다. 바로 앞 장인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태어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도 사라에게 그 약속을 다시금 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씀하실 때, 아내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신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도 전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선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

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지라도, 상대방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문제나 자녀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일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사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결국 삼손의 부모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삿 13: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삿 13: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십니

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말씀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삼손의 부모와 같이,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창 18: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지라

[창 18:12]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을 보였던 그 순간, 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하여 그 웃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웃은 이유는 육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창 18: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 아이를 가질 만한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의 몸 역시 자연적인 생리 주기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메마른 나무가 찬란한 새싹을 틔우지 않을 것처럼, 그의 몸에서도 생명의 소망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의 태도 죽은 상태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처럼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나약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죽은 상태에서조차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비록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과 축복을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창 18: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 18: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
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창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
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이 아니냐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
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라가 웃었던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창 18: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
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녀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자신의 연약한 태
도로 인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웃음을 부인하며 자신을 방어하
려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

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애써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연약한 육신의 한계만 바라보며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웃지 않았습시다. 나는 절대로 웃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약속을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사라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이끌으시며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라를 언급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

신 것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내부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그녀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때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녀의 삶에 그 싹을 틔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함과 두려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 18: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 18: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 18: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동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했기 때문입니다.

“[창 18:20] ...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소동과 고모라의 죄악은 19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도시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고, 음란이 만연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마치 짐승도 하지 못할 짓을 사람은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얼마나 소동과 고모라와 같아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심히 무겁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며, 끝이 없는 탐닉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마

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은 저 멀리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사라져가는 도덕성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금 되새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창 18: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 18: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 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 18: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 18: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주장은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창 18:23] ...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듯한

용감한 외침으로 느껴집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크게 외친다면 사람들은 그를 환호하며 높이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주장이 옳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인과 함께 죄인을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와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의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족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귀찮은 가족 팔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환상이나 기대의 공간이 아닌, 그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는 말의 경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 18:26] ...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수를 조금 낮춥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실제로 의인 50명이 존재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에 의인의 수를 점차 낮춰 가며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낮추다 보니 ‘의인 1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창 18:32] ...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그는 숫자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의인의 수를 한 명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도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는 언제나 배부르게 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

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향락을 더 찾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진정한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

[창 19: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땅을 방문한 천사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가 세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돔 땅을 방문한 두 천사는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건넨 후, 멸망할 도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천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감정적 심을 가져다주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에서 살고 있었

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제애의 연대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 전쟁과 심판이 닥쳐오는 시기에 그에게 이 경고를 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과 인연이 있는 도시의 운명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소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재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자신의 믿음과 두려움이 얹히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배우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소돔의 멸망과 아

브라함의 간구는 그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관통해 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창 19: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창 19: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롯은 그들에게 친절히 제안을 합니다.

"[창 19:2] ...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

이 요청은 롯의 따뜻한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

려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명령했습니다.

“[창 18: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 18:7]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예의와 전통에 따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행위였으며, 그의 믿음과 관계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반면, 롯은 평상시에 먹던 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창 19:3] ...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은 그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대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롯도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천사들에게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
니다. 롯의 행동은 관찮은 대접처럼 보였지
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환대에 비하면 다소
소홀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돌
아보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롯처럼
천사를 소홀히 대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
다. 하나님의 종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경시하고,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
여도 행동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
습이 우리 주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맞추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음을 명심하
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
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친절
과 배려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안에서 큰 역
사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창 19: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

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 19: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창 19: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창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
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서는 소돔 땅에 찾아온 두 천사를
통해 사악한 도시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롯은 이들을 영접했지만 그와 동시에 소돔
백성들은 그 천사들에게 멸시와 폭력을 가하
려 했습니다.

그들은 무력무력 자란 세대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창 19:4] ...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외쳐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

롯이 조용히 이 사건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창 19:5]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현대인의 성경)

하갈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로,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가 하갈을 저주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고난을 통해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범죄를 개인의

권리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거나 “사랑하는 것도 죄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할 뿐,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강력히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싫어하신다고 경고합니다.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오늘날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지역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을 잊고 살아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듯이, 인간의 멸망은 언제든지 예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들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가 개인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해 그 죄의 율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주장하기 위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성애를 단순히 눈감아주고 내버려두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자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

게 이기적인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창 19: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창 19: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창 19: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나 완강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간청을 거절하며,

"[창 19:9] ... 너는 물러가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말과 함께 롯을 밀치

며 문을 깨치려 하는 모습은 그들의 참담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단순히 롯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미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집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롯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기에 더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증오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싫어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혐오하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도 영의 진리를 저버리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들은 스

스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길 원하고, 그 상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리처럼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게 되고, 갈수록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못된 소행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는 자녀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나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창 19: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 19: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 19: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며 경고합니다.

“성밖으로 나가야만 살게 되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창 19:12] ...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위험한 소식을 전합니다.

“[창 19:14] ...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소돔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무거운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차하크)’이라는 단어는 ‘웃다’ 또는 ‘비웃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롯을 비웃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위는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롯의 가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가진 사

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이 담긴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닿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순간, 그들은 소돔 땅의 멸망과 같은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사위처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의와 타락에 편승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의 소용돌이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비웃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

시며,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창 19: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천사는 롯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 19:17] ...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 말씀은 소돔의 멸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명령이었습니다. 롯에게 요구된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세속의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머무른다’는 것은 세상에 거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돌아보거나 머무는 자”는 결국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자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세상의 유혹과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온 후, 그곳의 죄악과 유혹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세속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나가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롯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하다 보면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안전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는 길을 택할 때, 세상의 풍파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산으로 도망하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 19: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창 19: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창 19: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 19: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창 19: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에게 소돔 성 옆에 있는 '소알 성'에 거하길 부탁했

습니다. 사실상 롯은 산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소돔보다 작은 성이지만 '산'보다는 소알 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소알 성에 오래 거하지 못했습니다. 소돔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창 19:30]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결국 그는 소알 성도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급히 산으로 도망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그의 생존 본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소알 성이 소돔과 같은 운명으로 향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롯의 내적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안

전을 추구하는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갈등합니다. 하지만 롯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이 다소 주저했던 그 순간조차도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롯은 결국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와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도를 따라,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을 얻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창 19: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 19: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천사는 롯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롯이 소알 성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간절한 마음을 존중한 것입니다. 롯이 소알 성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소돔 땅의 멸망은 지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소알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유향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히 우리가 선택한 길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롯처럼 항상 두 가지 선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성 안에 있었던 롯에게는 성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성 밖으로 나오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는 소알로 가는 것과 산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알 성에 머물렀던 롯은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산으로 가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롯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든지 그 길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 여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롯과 같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선택 속에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돔 성의 유혹을 잊지 못하고 그 뒷모습에 미련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소금 기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심각한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자는 소금 기둥처럼 결국에는 멸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가두고 그 마음을 단단한 기둥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매여 살도록 묶여버리며,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유혹이 심오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

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그 유혹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하길 바랍니다.

[창 19: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창 19: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창 19: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앞으실 때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여
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로, ‘기
억하다’ 또는 ‘상기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을 기
억하신 것입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
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
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는 이
유만으로 롯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
님은 그 누구의 체면을 고려하셔서 특정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구원의 반
열에 세우고 싶다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 응
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단순한 의도를 넘어,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롯을 마음에 두고 기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의 힘은 가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롯의 구출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 19: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창 19: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창 19: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창 19: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 19: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창 19: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 19: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세상의 도리를 좇아” 그렇게 행했다고 전합니다. 즉, 그들은

당시 사회가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아버지와
와의 관계를 통해 가계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잘못된 선택이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행동
은 심히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롯의 두 딸의 이러한 선택은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었고, 이들은 이후 이
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됩니
다. 이처럼 세상의 도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
들의 행동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
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
한 도리를 무시하며, 세상의 기준만으로 판
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정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무와 판단
은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
리와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실수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도리를 따르다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 19: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창 19: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 암미'로, 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후손으로 이어져야 할 그들이, 결국엔 그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편의로 인해,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주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당장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이 오랜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롯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가 그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마다 선

한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롯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삶과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길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 가뭄으로 인해 다시 남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24년 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겪었던 그 가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그랄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지역은 훗날 그의 아들 이삭도 거주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삭 또한 그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창 26: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실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불신

과 두려움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전이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을 한 그 행동은,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악순환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가족과 신뢰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 믿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 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

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라를 데려갔더니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
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
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 20: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 2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
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다시 한 번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아브라함의
결정 때문에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
었습니다.

“[창 20:2] ...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데려가다’(라카흐)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취해지
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

문에, 그 부족의 법과 관습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미비한 권력을 지닌 존재였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도, 당시의 현실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고, 어떻게든 그 외적인 압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 را를 극심한 위급함 속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라는 위험한 순간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현실에서 구해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도 우리의 곤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요즘의 삶에서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세상의 유혹,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

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창 2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
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
이 이 때문이니라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라

[창 20: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
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의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어 그를 '선지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칭호를 듣게 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에 감격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쁘고도 떨리는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브라

함의 기도를 통해 닫혔던 아비멜렉 집안의 태
가 열리게 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창 20:1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
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
으셨으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한 성도를 넘어서 하나
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의도
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통로가 된 것입
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
나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며 주변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
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사회 속
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
는 음성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20: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창 20: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창 20: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창 20: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창 20: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 20: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창 20: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창 20: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창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
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
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창 20: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
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브라함은 24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똑같
은 잘못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
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
라함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라고 말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그런 태도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아내 사라
를 아내라고 말했더라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
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때때
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정직함입니다.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진리를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도 정직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니다.

창세기 21장 =====

[창 2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 21: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사라의 기적적인 출산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삭을 얻은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믿음을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깊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차 커져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해야 합니다.

[창 21: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 21: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헌신의 상징이

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모임에도 충실하게 참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는 종종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이 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선택과 방향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람으로서의 귀한 정체성을 찾고,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

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 21: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 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 나라

사라의 고백은 정말로 아름답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은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웃음을 선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기쁨으로 웃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것은 결코 사라 스스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기쁨을 찾고자 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한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충만하고 지속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은 우리에게 깊고 풍성한 만족을 안겨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덮어주고,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창 21: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2-3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돌이 지나기 전에 젖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 시기까지 엄마의 젖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유식이 없어 엄마의 젖만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모성의 품에서 사랑과 안전을 느끼며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젖을 떼 이후, 실로의 성전에서 엘리 선지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는 그가 젖을 떼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어머니 하늘 의로드의 믿음과 헌신이 그의 삶에 깊은 뿌리

를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젖을 땔 때 큰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돌잔치와도 유사한 의식으로, 아이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명으로 자라고 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안전한 환경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품 안에 거할 때,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모성의 품에서 배달자는 상응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과 신앙, 사랑이 결합하여 공동체의 성장과 안전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과정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이

기도 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안전을 얻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21: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창 21: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 21: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놀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하크’로, ‘웃다’와 ‘비웃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리며 웃었습니다.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라에게

자녀를 낳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창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웃음에 사용된 ‘차하크’와 사라의 웃음에 사용된 ‘차하크’는 결국 이스마엘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큰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당시 나이는 약 17세로, 아브라함이 그를 낳았을 때는 86세였기 때문에 (창 16:16) 이삭이 3세라고 가정한다면 이스마엘은 17세가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만큼, 이스마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완벽한 후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살짜리 이삭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의 결정을

강요한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결정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의 적대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 간의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역사적인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분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십자군 전쟁으로 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사라의 선택은 결국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비극이 많이 존재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우리는 종종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느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을 미워함으로써 사랑을 가로막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다 보니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단순히 미운 이유로 사랑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 21: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 21: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울은 사라와 하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 4: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갈 4: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21:12]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씨는 바로 이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스마엘의 자녀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배려를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창 21:13]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에게서 열두 방백이 생겨났습니다. 이 열두 방백을 통해 방대한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마치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의 갈등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의 씨앗은 이삭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천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열두 개의 진주문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21: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가죽부대’는 정말로 적은 양식이었습니다. 이 가죽부대는 주로 집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어깨에 메거나 등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가죽이 대부분 사용되었을 따라서, 하갈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대라 하더라도 고작 며칠 분의 물밖에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들판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더라도 좋았을텐데, 왜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을 동방으로 쫓아낼 때에는 충분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창 25: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마엘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라의 강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마엘에 대한 질책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주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고통을 안겨 준 것입니다.

롯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과 결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다 나은 길을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21:15]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창 21: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들판으로 방황하면서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살 한 바탕쯤” 떨어진 곳에 가서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아들 이스마엘이 들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대략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로, 약 1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위독한 상황임을 알게 된 하갈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

느 정도 견딜 수 있었던 하갈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무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며, 하갈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이스마엘을 구출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궁핍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과, 그토록 자신을 지켜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 같은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때서도 하갈의 이 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대명제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정의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가시바닥 위에서 소리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갈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픔과 그로 인해 느끼는 무게는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겪어야 할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창 21: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마엘의 고통과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과 이스마

엘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 쪽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이 사건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그녀가 임신했을 때, 여주인 사라에게 쫓겨나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위로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라는 구절이 말해주듯,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갈처럼 소리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히 고난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약 4: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에 휘둘릴 때, 우리는 하갈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정을 다시 정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는 길은, 바로 그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 21: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 21: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 21:18] ...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며, 현재의 여러 아랍 국가와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형성한 부족들은 아랍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한 주요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입니다. 현재 아랍 세계는 약 4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 다른 자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관계와 역사를 통해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이스마엘이 형성할 민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 21: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창 21: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인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어머니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로 선택하는 데 있어 애굽 여인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의 혈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애굽의 문화와 관습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을 심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경계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아브

라함과 사라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손으로서 그가 이루어야 할 영적 유산은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과 유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여정은 그의 선택이 어떻게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며, 우리 또한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창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 21: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가신을 거느린 작은 부족에 불과했지만, 아비멜렉은 한 족속의 왕이었고, 그 규모와 인구 수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아비멜렉에게 위험한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비멜렉은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와 화친하길 원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도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창 26: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아비멜렉은 그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평화를 원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할 때, 사람들은 우리와 화합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 21: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창 21: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창 21: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창 21: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창 21: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창 21: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냐

[창 21: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

거를 삼으라 하고

[창 21: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 21: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아비멜렉에게 고합니다.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탐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화친을 제의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면, 그랄 족속과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화친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소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늘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성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창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

렸으며

[창 21: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마다 어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
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
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를 올렸
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
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으며,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주
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여정 속에
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그분
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의 예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은 예배를 통해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통해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친밀함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100세가 되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삭을 죽여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드리는 잔인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 땅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산악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이 모리아 산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번제로 드려질 것을 보여줍니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은 또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한 장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간과 조건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초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희생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언약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도 함께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삶
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
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
더니

[창 22: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
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
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
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

하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찌기’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85km입니다. 이 거리는 급히 걸어가더라도 적어도 3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체할 겨를 없이 급히 준비하고 떠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히 떠난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움이 작용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이사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정확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만약 사라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함께 공유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혼자서 그 부담을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조카 롯과의 일이나, 과거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원망하며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그 길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잠재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과 언약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급한 준비와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

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단 나무 위
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
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간결하게 기
록되었지만, 이삭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임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
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에 사용될 나무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12세 이상이 되어야
그러한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땀감을 지게에 짊어
졌던 경험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러한 나
무를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은 그가 아직 여
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
나 이삭의 혈기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에게 결박당한 상황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이는 단지 순종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했듯이, 이삭 역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려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순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믿음의 시험을 넘어서, 부자 간의 풍부한 관계와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물론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이삭 또한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며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힘든 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 22: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해야겠다는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까지의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그랄로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여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닌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삭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오를 때는 천근 만근의 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

지만, 그 산을 내려올 때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마치 날개 단 새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진리와 위로가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험난한 인생의 여행 중에 있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마치 독수리의 날개에 힘입어 창공을 힘차게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평안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여정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창 22: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재차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천사는 그를 제지하며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헌신이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창 22: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새로운 거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는 세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찾아온 후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다시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가뭄이 들어 그랄 지역으로 향한 후, 마침내 브엘세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 또한 거주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

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창 22: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창 22: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창 22: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창 22: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창 22: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재차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천사는 그를 제지하며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헌신이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창 22: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새로운 거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는 세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찾아온 후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다시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가뭄이 들어 그랄 지역으로 향한 후, 마침내 브엘세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 또한 거주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

[창 23: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창 23: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랏아르바는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브엘세바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5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살았던 장소인 헤브론으로 다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기거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그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곳이었고, 브엘세바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렸던 장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다양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브론과 브엘세바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창 23: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헛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창 23: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일어났습니다. 그가 급히 일어난 이유는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역으로 매우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매장하기 위해 서둘러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실용적인 면모와 함께, 사라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존경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 적절한 매장지를 찾기 위해 헷 족속에게 나아가 그들과 협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필요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며, 사라를 위한 마지막 예우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슬픔에 빠져만 있지 않고, 필요한 일을 신중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라에 대한 그의 사

랑과 존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을 넘어,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창 23: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창 23: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창 23: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창 23: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
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
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찾기 위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막벨라굴'을 살 수 있도
록 요청했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
에게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
의 선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은 오늘날과 같은 문서화된 등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 앞에서 구두로 이루
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나중에 문제를 일
으킬 가능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신의 소유지가 하나
도 없는 나그네의 상태였기 때문에, 헷 족속
사람들의 약속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
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장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사라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
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신중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가능한 문제까지 고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사라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을 넘어,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 23:10]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창 23: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창 23: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은 헷 족속인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관료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의 선의를 거절하자,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에브론을 통해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매장지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사라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판매했습니다. 이 거래는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고, 그의 가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신중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가능한 문제까지 고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사라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

을 넘어,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 23: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하소서

[창 23: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창 23: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창 23: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 하였더라(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결국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은 사백 세겔'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했습니다. '은 사백 세겔'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약 1,200돈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고, 그의 가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신중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가능한 문제까지 고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사라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을 넘어,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지혜로 막벨라 땅을 구입하며, 가나안 땅에서 그의 가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3: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 그의 가족을 위한 중요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

히 사라를 매장한 장소를 넘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사와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곳에 매장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 역시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고, 그의 가족을 위한 영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믿음의 유산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가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히 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

[창 24: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
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 24: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
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그 늙은
종, 엘리에셀.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
다. 아브라함에게 그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
습니다.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
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
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기록되었지
만, 본문 5절에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
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
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엘리에셀이 하란 지역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허벅지 아래'는 '환도뼈'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환도뼈에 손을 넣는 것은 약속을 서약할 때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창 32: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환도뼈는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한 뼈에 손을 대고 약속을 서약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은 서약을 요구한 것은 그가 이사를 위한 아내를 찾아

하란으로 돌아가야 할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약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속과 신뢰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를 신뢰하며 임무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4] 내 고향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
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
이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께서 그들을 싫어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400
년 후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
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
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사대 만에'는 '4세대'나 '4시대'를 의미
하며, 구체적으로 '400년'을 가리킵니다. 창세
기 15장 13절에서는 이 기간을 더 자세히 언
급하고 있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엘리에셀에게 엄히 명령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이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주인이 나오신 땅'은 하란 땅을 가리킵니다. 하란은 가나안과 비교했을 때 환경이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를 축적했지만, 그곳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란에서 이삭과 자부를 살게 하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란의 풍요로운 환경과 안정된 삶을 생각하며, 이삭과 그의 아내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서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행동은 우리에게 가족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삭과 그의 아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이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 24: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 24: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창 24: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
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
니까! 그는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
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
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
다.

"[창 24:7]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실지라..."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자신

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체험했기에, 이처럼 큰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형성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이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종은 엘리에셀이었기 때문

입니다. 엘리에셀이 향했던 곳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지입니다. 이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정착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뢰와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찾아 하란으로 보냈고,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의 임무를 넘어,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한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이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이스라엘 지역의 물길는 시간은 주로 오전과 저녁 두 차례였습니다. 이는 아열대 지역으로 낮의 햇빛이 너무 뜨거워져, 햇빛을 피해 물을

길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슬이 내리고 공기가 시원하여 물을 길러 나가기에 적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해가 지고 공기가 서늘해져 다시 물을 길러 나가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성경 속에서도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창 24:11]에서는 리브가가 저녁 때 물을 길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 24:11] 그가 그 낙타를 그 성 밖 우물 곁에 꿇어앉히고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이르되..."

이처럼 물길는 시간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교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물을 길러 나가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했

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물길는 시간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돕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물길는 시간은 단순한 일상생활을 넘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본받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창 24: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

들의 배우감을 찾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의 여러 경험을 쌓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구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인의 아들을 위한 적합한 배우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이 행동은 그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삭의 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창 24: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

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즉시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 즉시 응답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창 24:15] 그가 말을 마치지 아니하여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찾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그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들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아들을 위해 그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모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들을 사
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 4:2]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
기 때문이요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
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
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
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
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
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즉시 역사를 이루십니
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
당했기 때문에 그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
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창 24: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창 24: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창 24: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창 24:19] 마시게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창 24: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리브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삭의 배필감이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귀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씨'라는 관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외부인인 엘리에셀에게 서슴치 않고 '주여'라고 존경을 뜻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에셀의 행색이 어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부인에게 이처럼 존경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리브가의 배려심이 엿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아주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외부인의 목이 마를 것을 생각해서 아주 빨리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이 말을 했던 장소는 우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물이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까지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 내용대로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을 보기 위해 한적한 곳에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원경

이 없는 그 때인지라 그리 먼 곳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물을 길기 위해서는 다시 금 우물에 가야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끌고 온 약대는 열 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약대는 물을 몸 속에 채워 놓고 있다가 오래동안 그 물을 마시는 짐승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을 마십니다. 본문에는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열 필이나 되는 약대를 모두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수백 통은 길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서슴치 않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리브가는 보통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브가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을 길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엘리에셀과 그의 약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품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삭의 배필로 예정하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리브가의 배려심과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할 때, 리브가처럼 헌신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 24: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창 24: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창 24: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창 24: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

이다

[창 24: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쉼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엘리에셀은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이곳에 쓰인 '주목'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행동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주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깊이 있게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묵묵히 주목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묵묵히'라는 말은 '곰곰히 생각하다' 혹은 '마음을 되씹는 것'의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단순히 눈으로만 리브가의 행동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곰곰히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창 24: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길에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 알려 하였더라"

성경은 엘리에셀이 곰곰히 주목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면 순종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에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리브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야 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이 행동은 그의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창 24: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브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었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손녀와 할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족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부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족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곧 부족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 며느리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며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창 24:4] 내가 너를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거기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가치를 중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 며느리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이삭의 배필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며, 그분

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이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창 24: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창 24:30]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

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창 24:31]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따라 곧장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올 때까지 우물가 약대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굳어있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삭의 배우자감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 24: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길에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 알려 하였더라”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리브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의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에셀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의를 지키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이 행동은 그의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의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의를 지키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32]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쉼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라는 구절은 엘리에셀이 다른 종들과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이 많은 배려를 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사막 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베풀었던 예의였습니다. 이는 긴 여행으로 지친 발을 씻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의와 배려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에셀과 그의 동행자들은 긴 여행으로 지친 몸을 씻으며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신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엘리에셀과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의와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33] 그 앞에 음식을 베풀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의 단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콧 막힌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확고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의 임무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그의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으로 덩석 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곰곰히 묵상하지도 않은 채 성급히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몸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어 고통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작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곰곰히 묵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된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 24:27]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주인의 동생의 딸에게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었다 하면 세상적인 내용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 때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과 관련된 대화를 할지라도 충분히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 없는 교제 속에서 형성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영적인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곰곰히 묵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창 24: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창 24:37]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38]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

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창 24:39]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창 24: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창 24:41]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 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창 24: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창 24: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창 24: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창 24: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

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창 24:46]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창 24: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창 24: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은 라반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도 꾸미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했던 말도 그대로 전했으며,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감정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의 임무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명령과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리는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저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순

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곰곰히 묵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창 24: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창 24:51]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창 24: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창 24: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
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
물을 주니라

라반과 브두엘이 이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였
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브라
함만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라반과 브
두엘 역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창 24:50] ...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
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라”

이 말은 그 일의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
셨으니,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변경할 수 있겠
냐는 뜻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사람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
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을 때 순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제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뭘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곰곰히 묵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과 브두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54]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창 24: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창 24: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창 24:57]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창 24: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엘리에셀은 브두엘과 라반의 결정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

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만지 얼마나 되었다고 떠난다는 것입니까? 결혼을 결정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딸을 데려간다는 것입니까?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데 그렇게 빨리 떠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에셀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 봅니다. 리브가는 "지금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 24:58] ... 리브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결혼 승락을 하고 그 즉시 떠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딸을 출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딸의 결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 왔는데, 오자마자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선 바로 되돌아온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

다.

이 모든 상황을 덮어 버리고 그 즉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은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따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right now)'이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을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곰곰히 묵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

실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4: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창 24: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 24:61]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창 24:62]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창 24: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브두엘의 가족은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들

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크다는 것은 신앙생활 기간이 꽤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란에 거할 때부터 믿음이 형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두엘과 그의 부인, 그리고 라반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해 준 것은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저들의 축복문을 보면

"[창 24:60] 그들이 리브가에게 말하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였더라"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멋진 축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이런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은 저들의 영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

을 상기시킵니다. 브두엘과 그의 가족은 리브가를 보내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브두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브두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창 24: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창 24: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창 24: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창 24: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가 이삭이 오는 것을 알고서 급히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를 가리웠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 대한 여인의 예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인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를 가립니다. 이는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 대한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의 면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전 11: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

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여자들이 면박을 쓴 이유는

”[고전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히
1:3),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여자는 남
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과 예의의 중요성
을 상기시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맞이하며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이는 남
편 될 사람에 대한 예의와 겸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
손과 예의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자들이 면박
을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나

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와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과 예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

[창 25: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창 25: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창 25: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창 25: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얻은 여섯 아들을 통해 또다시 큰 족속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국의 아버지'라는 약속이 그의 노년에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들들은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했으며, 이후 이 지역에 다양한 민족과 족속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족속들의 번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 또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목격하게 됩니다.

[창 25: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총 여덟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라를 통해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여섯 아들까지 모두 합하여 여덟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여덟 명의 아들에게 모두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한 아들, 이삭에게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아무런 재물도 주지 않은 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반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일정한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보내어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아들과 이삭 사이에 명백한 차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신앙적 결정이었습

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며, 이삭을 통해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깊이 믿었고, 이삭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아들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 애정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아들들에게는 차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언약의 아들, 즉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보호하고 지

켜내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창 25: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여섯 명의 아들들에게 일정한 재물을 나누어 주어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선이었고, 대부분의 재산과 복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 주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조금의 재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는 야멸찬 처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평생토록 두 형제의 후손은 원수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조금만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긴 갈등과 반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베푼 약간의 선은 최소한의 배려였지만, 그들을 동쪽 먼 곳으로

떠나게 한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아픔을 느끼게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 결정은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함께 균형 있게 나타났더라면, 그 후손들이 좀 더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창 25:7]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칠십오 세라

[창 25:8]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경험한 인생 후반전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게 합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37세였습니다.

“[창 23: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긴 삶을 누렸습니다.

“[창 25:7]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칠십오 세라

[창 25:8]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긴 삶을 누렸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산 셈입니다.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도 137세까지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보다 훨씬 더 장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긴 수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은 전쟁이나 질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마친 후, 나이가 들어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아브라함은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다 기력이 다하는 순간 평안히 눈감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이 또 있을까요?

“[창 25:7-8] 아브라함이 향년 백칠십오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평안한 죽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 25:9]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하였으니

[창 25: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냈을 때 헛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특별한 땅입니다. 처음엔 오직 사라를 위해 마련한 무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묻히는 가족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 굴에 묻혔고,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까지 모두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창 23:19-20]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 49:30-31]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단순한 가족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과 약속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창 25: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창 25: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창 25: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

과 밍삼과

[창 25: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창 25: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이삭은 "브엘 라해로이" 근처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브엘 라해로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지역의 위치는 오늘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브엘세바보다 남쪽으로 더 깊숙이 내려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이곳 "브엘 라해로이"에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시간도 잠시, 이삭은 극심한 기근을 만나 결국 브엘 라해로이를 떠나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그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점점 풍성해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과 질투를 받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격려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삶은 브엘 라해로이에서 시작되어 그랄을 거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이어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장소와 환경은 자주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 26:23-24]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삶 또한 이삭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브엘 라해로이 같은 광야의 외로운 자리, 혹은 그랄과 같은 시험의 자리, 그리고 브엘세바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용기와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창 25: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이 방백이었더라

[창 25:17] 이스마엘은 향년이 일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창 25:18]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부짖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무려 열두 족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통해 야곱의 열두 지파를 허락하신 것과도 같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

니다.

“[롬 9: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천국을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후손 역시 놀랍도록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 특별한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꼼꼼히도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

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다. 사라가 죽은 지 4년 후의 일이었죠. 이 시기쯤 아브라함은 다시금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뒤로 여섯 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140세를 훌쩍 넘어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인생 후반 35년 동안 그에게 엄청난 육체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백세에 이삭을 얻을 당시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100세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쇠약한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40년이 지난 후 다시 여섯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 몸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가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5세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나, 99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를 보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10세가 넘었을 무렵,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믿음은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 급속도로 그의 믿음이 깊어졌

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믿음의 성장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활기 넘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었지만, 그두라를 통해 낳은 여섯 아들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실제로 강건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모세 역시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신 34: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아브라함도 영적 성숙을 통해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이 건강해진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 25: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성경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 25:20]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밧단 아람"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

안으로 향하다가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지역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믿음직한 종을 부르더니, "너는 이곳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가 떠난 고향, 바로 그 친족이 살고 있는 밋단 아람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은 밋단 아람으로 긴 여행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브두엘의 딸인 아름답고 착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 후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요.

훗날 야곱 역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할 때,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로 이 밋단 아람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야곱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밋단 아람까지 가서 친족 사이에서 며느리를 찾게 했을까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친족 간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요. 친족끼리 결혼하면 여러 유전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 결혼에서 생길 수 있는 유전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열성 유전 질환: 양쪽 부모가 동일한 열성 유전자 변이를 지녔을 경우, 자녀에게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낭포성 섬유증: 폐와 소화기관에 끈적한 점액이 쌓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 페닐케톤뇨증: 특정 아미노산을 처리하지 못해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테이-삭스 병: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 지중해 빈혈(탈라세미아): 혈액의 적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합니다.
- 우성 유전 질환: 부모 중 한 사람만 변이를 가져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 마르판 증후군: 결합조직 이상으로 심장, 눈, 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헌팅턴병: 중추신경계가 점점 손상되는 심각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친족 결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기형이 생길 확률은 대략 2-3%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결혼은 이보다 높은 4-6%, 사촌 간

결혼은 약 3-5% 정도의 위험성을 보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친족 간 결혼에서는 6-8%로, 비친족 간의 결혼(1-2%)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차이보다 친족 간 결혼의 위험성이 더 강조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친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친족 결혼을 권장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유전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끼리의 결혼은 친족 간 결혼의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우리 삶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결혼 후 오랜 기간 자녀가 없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간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삭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색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겪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간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늦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평소에는 별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맺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얻기를 더욱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전혀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부탁을 여러분이라면 흔쾌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평소에 깊고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어떻게 간구하면 응답하시는지 또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

나눔께 무작정 매달리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떤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기도는 아름답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삭과 같이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창 25: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자, 이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묻습니다.

“[창 25:22] ...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실제로 아버지가 느끼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분명히 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생생히 느꼈겠지만, 이삭의 입장에선 리브가만큼 강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답을 구한 것은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에, 이삭 또한 하나님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태중의 아이들이 싸운다는 것은 별일 아닌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여쭙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크고 중대한 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하나님께 들고 나가, 그분께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딱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태도처럼, 하나님께 작고 사소한 것까지 묻고, 의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한층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이삭은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결혼했으니,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얻은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무척이나 오랜 기다림 끝

에 얻은 두 아들이었죠. 큰 아들이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창 25:23] ...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자녀들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신령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까지도 늘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을 생각할 때 사랑 많고 온유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았기에,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같습니다. 연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서로 이야기 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도 그에게 자주 말씀하셨고, 심지어 태어나 지 않은 아들들의 미래까지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 속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삭의 축복받은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창 25: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정말로 흥미로운 두 사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자랐고, 동생 야곱은 집 안에서 조용히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에서가 사냥을 아주 능숙하게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짐승의 발자국을 기가 막히게 추적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냥하다'라는 말에는 '추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서는 마치 바벨탑 사건 때 등

장했던 유명한 사냥꾼 니므롯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반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용하다'<탐>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욥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처럼 야곱도 온전하고 신중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자녀는 에서처럼 활발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반면,

다른 자녀는 야곱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 중 한 자녀만 사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활발한 자녀도, 조용한 자녀도 모두 사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두 아들을 똑같이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역시 에서와 야곱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히 택하셨고 더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통과시키지 않고 칼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민 20:17]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민 20: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결국 다윗 왕 때 에돔은 정복당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 여러 번 이스라엘에 대항하였지만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과 함께 멸망했고, 나중에는 바사와 로마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에돔의 멸망은 결국 형제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결과였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도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듯 하나님도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번성하고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 25: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한다'라는 <아헤브>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의 뜻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이삭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야곱보다는 오히려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아들 에서를 통해서 찾으려했던 이삭의 심리적인 것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된 것인줄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똑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똑 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은 서로 싸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맘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맘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에 드는 자녀를 더 예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발생합니다. 비록 맘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예뻐해야 합니다. 맘에 들지 않는 자녀는 그 자녀 스스로 자신

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가 자신을 미워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맘에 들지 않는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은 맘에 들지 않는 야곱에게 더 사랑을 보였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맘에 들지 않는 에서에게 더 사랑을 보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맘에 들지 않는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뭣이든 할 수 있습니다.

[창 25: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창 25: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 25: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창 25: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 25: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 25: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

에서는 형제 아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기
록하고 있습니다.

“[창 25:33] ... 장자의 명분을 아곱에게 판지
라”

‘장자권’은 단순한 맏아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장
자권이 있는 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
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세상
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장자
권은 바로 그런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귀한 축복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팔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
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기는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팔아
버린 에서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의 정욕에 마

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자권보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 팔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당시 그저 순간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야곱과의 거래를 별것 아닌 농담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가벼운 말 한마디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민 14: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자신의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에서처럼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조심하여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지켜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

[창 26: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 26: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
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
하는 땅에 거하라

[창 26:3]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
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
세한 것을 이루어

[창 26: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
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
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은 흉년을 만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
록하고 있습니다.

“[창 26: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이유는 단순히 흉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 26:2] ...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사람을 만나든, 심지어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화 한 통을 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이삭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26: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있어 이 약속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낯선 그랄 땅으로의 이주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이 따뜻한 약속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삭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위로가 이삭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것입니다.

[창 26:6]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창 26:7]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라

[창 26:8]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창 26: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창 26:10]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뻔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창 26: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밀려오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 26:7] ...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웬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창 20:2] 그의 아내 사 را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그 잘못을 누구보

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를 교훈 삼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 26: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 26:15]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창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그랄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낯선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이삭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농사를 짓던 그 해에 거둔 수확은 백 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얻은 놀라운 풍요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 26:12] ...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삭이 받은 그런 백배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이삭이 받은 놀라운 축복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 26:14] …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요? 더군다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낯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이방인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아브라함 때 찢던 우물들마저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리고 맙니다.

“[창 26:15]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더 이상 이삭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창 26:16] ...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사실 이삭은 블레셋 왕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과 전쟁을 벌일 때만 해도 훈련된 병사가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삭이 거느린 하인들의 수는 최소 그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원했다면 그랄 왕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최선을 다해 땅을 개간하고 좋은 밭을 일구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쉽게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랄 땅을 떠납니다. 조건도 걸지 않았고, 우물도 모두 무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애써 만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타인에게 내줄 수 있을까요? 명백히 손해 보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평화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양보하고 내려놓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역시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창 26: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창 26:18]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
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
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여 그랄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내려간 곳은 이
전에 살던 번잡한 그랄 성읍과는 다르게 사람
들이 별로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
니다. 성경은 이곳을 '그랄 골짜기'라고 부르
고 있는데, 여기서 '골짜기' <나할>란 표현은
깊은 협곡보다는 평평한 분지와 같이 넓고 한
적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이곳에 장막
을 치고 약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아
브라함이 과거에 팠던 우물을 찾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 우물들을 훔으로 메워버렸기 때문
입니다.

"[창 26:18] ...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
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창 26:18] ...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는 이삭의 겸손한 성품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업적과 이름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한 일까지도 자신이 한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창 26:20] ...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생존이 힘듭니다. 우

물 하나는 사람과 가축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런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토록 중요한 우물을 빼앗겨도 그들과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우물을 내주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곤 했습니다.

이삭이 보인 이런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듣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바보가 바로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화를 위해서라면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화를 지키고,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우리 모두 이삭처럼, 세상의 시기와 다툼 속에

서도 끝까지 평화를 선택하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그런 이들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을 괴롭히고 생계를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결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만한 힘도, 군사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는 다투는 대신 침묵하며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결국 넓고 평안한 곳에 도달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 26:22]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원수들이 몰려와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억울함과 슬픔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삭처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때로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장소로 이끄시며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원수와의 갈등 속에서도 침착하고 평화롭게 대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반드시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 26: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쫓겨난 후 찾아온 곳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기 시작한 때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세바에 살았지만,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바로 그 헤브론에서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창 23:1-2]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트 아르바에서 죽으매...”

사라가 죽었을 당시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40세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때 그는 브엘라해로이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정확히 언제 헤브론을 떠나 브엘라해로이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삭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이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브엘라해로이에서 살던 이삭은 심한 흉년을 만나 그랄로 이주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커질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결

국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와 정착했으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까지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결국 돌아온 브엘세바는 단지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 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의 눈물이 스며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삭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혼자 길을 걷다가,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며, 그곳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삭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 26: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귀한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참으로 마음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이 한 마디에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엄청난 축복과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까지도 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지 이삭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까지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는 비결은 부모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

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창 26: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창 26: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창 26: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 26: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창 26: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창 26: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

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창 26: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
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 평안히 지낼 때, 뜻
밖에도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삭을 쫓아낸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친히 찾아와 화친을 맺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삭과 화친을 요청한 아비멜렉의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비멜렉은 단지 이삭 한 사람만을 본 것이 아
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이삭과 함께하
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삭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똑똑히 보았기에,
그는 이삭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큰 성읍을 다스
리는 왕이었고, 이삭은 그에 비하면 지극히 작
은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객
관적으로 보면 한 성읍의 왕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의 리더에게 화친을 요청할 이유가 없
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작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웠기에, 아비멜렉은 서둘러 이삭과의 화친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화친을 요청하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원했던 화친의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 26: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철저히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내보냈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욫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러한 행동은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무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자손들은 결국 언약의 축복에서 제

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을 벗어난 선택을 반복한다면 결국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창 26: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란까지 종을 보내 믿음의 여인을 데려왔건만, 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들 여러 명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약속의 씨로 택하셨습니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자녀 교육을 게을리했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은 젊은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도 흔쾌히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와 고향을 뒤로하고 믿음 하나로 낯선 가나안 땅까지 따라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씨'의 아내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쉽게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서를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온전히 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최적의 믿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선택은 에서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

[창 27: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만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창 27: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창 27: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창 27: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창 27: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창 27: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창 27: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은 점점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자,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불러 별미를 준비하여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야곱은 이삭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6장 끝부분에서 성경은 에서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에 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삭은 전적으로 육적인 시각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장남이었던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육적 생각과 다르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육적인 눈으로만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자녀를 비롯한 모든 삶의 문제를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결국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삭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 27:8]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창 27: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
들리니

[창 27: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창 27: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
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यो 나는 매
끈매끈한 사람인즉

[창 27: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
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달리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어머니가 편애한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결코 인간적인 애착 때문만
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녀가 분명히 깨달
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
하신 영적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바
로 야곱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리라" 하신 예언이 그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결국 형제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를 품었고, 가정에는 깊은 불화와 긴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러한 위험과 불화의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의 계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야곱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창 27:13]...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나...”

리브가의 이 말 속에 그녀의 강력한 영적 결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에 야곱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영적 믿음과 지혜를 지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곱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머니가 육적으로만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 역시 육적인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영적인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리브가와 같은 영적 부모가 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며, 비록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영적 축복과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 27: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창 27: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강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가족 간에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축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설령 자신의 행동으로 저주와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창 27:13]...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나..."

리브가의 이 말은 단순히 강한 어머니의 마음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철저한 믿음과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리브가의 이러한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모가 육적인 관점에서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결국 육적인 모습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자녀를 키

울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리브가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
려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우
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가장 확실
한 길입니다.

[창 27: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
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창 27: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창 27: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
들 야곱의 손에 주니

[창 27: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
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창 27: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창 27: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이 많은 형의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사용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이 예언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알팍한 계략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했던 이 잘못된 결정은, 가정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이후로 영원히 화해하기 어려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속임수나 거짓된 행동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레 19: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최악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때,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 27: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창 27: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창 27: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창 27: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창 27: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창 27: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흐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곧 에서보다 야곱을 더 크게 축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언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민하는 일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삭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흐림은 결국 그에게 찾아온 속임수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 들어온 속임수를 영적 분별력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꾸민 인간적인 속임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가정에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 형제 간의 깊은 갈등과 원한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영이 흐려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가정과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속임수와 유혹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길이며, 가정과 삶을 평화롭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창 27: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 27: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 27: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가장에게 특별한 축복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복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축복권이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듯, 목사의 축복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축복권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가정의 축복권이고, 둘째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축복권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가장을 존중하고 가장의 축복을 귀히 여겨야 하며, 목사의 축복 또한 소중히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며, 이 질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 27: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창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창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 27: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 27: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창 27: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 27: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창 27: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말한 대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어머니 뱃속

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축복은 야곱의 노력이나 계획, 심지어는 그의 계략 때문에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계략이나 속임수, 사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 우리의 계략이나 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 27: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창 27: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축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단순한 소망이나 덕담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삭이 만약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복을 베풀

었다면, 장자의 축복을 아홉뿐 아니라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정확하게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의 믿음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삭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이미 이뤄진 실상처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들을 듣고 실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이루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창 27: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장자 명분과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자리 잡은 살인과 증오의 마음은 그가 얼마나 악독한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에서와 같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온갖 악행과 비난을 받는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교

회에서는 직분과 직책을 얻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에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성품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됨의 기본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며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으나, 그의 악독한 성품이 그 복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깊이 새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난 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 27:42] 만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창 27:43]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
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
여

[창 27: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
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 27: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
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
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
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을 멀리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마 이렇게
하면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
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
니다. 두 아들이 떨어져 살게 되면, 더 이상 싸
움도 없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
만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잔
꾀였습니다. 리브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

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명목으로, 아굽을 에서로 변장시켜 축복을 받게 한 그 일이 결국 형제 사이의 원함과 갈등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잔꾀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열심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가 생겨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급히 일을 처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이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세상의 잔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력하고 완전한 해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창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오빠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남편 이삭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족속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가 한 이 말은 단순히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헷 족속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한 데는 단지 신앙적 이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헷 족속 여인들이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기에 싫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리브가의 속마

음은 훨씬 더 긴박했습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든 아들 야곱을 멀리 보내어 에서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할 당시 그의 나이는 대략 77세쯤이었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각각 40세에 결혼했음을 보면(창 25:20), 당시 일반적으로 40세 전후가 결혼 적령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77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곁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부모, 특히 어머니 리브가에게 상당히 의존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77세까지도 어머니 품을 떠나지 못한 '마마보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부모 품에서 떼어내어 멀리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철저히 홀로서기를 배우고,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통해 의존했던 것에서 떼어놓으심으로써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때로 일어나는 아픔과 어려움, 원

치 않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와 축복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

[창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창 28: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 28: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밧단 아람’은 유프라테스 강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 밧단 아람에 아브라함의

친족 브두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브두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였기에, 야곱에게 브두엘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본래 잠시 머물 예정이었지만,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의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인간적인 꾀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다듬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창 28: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28: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

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창 28: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창 28: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이삭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야곱을 통해 약속의 축복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졌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 28: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창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간곡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선택한 아내들-

헛 족속 이방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도 '믿음의 배우자'를 얻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에서가 선택한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 곧 아브라함의 손녀 마할랏이었습니다.

"[창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 하였더라"

당시 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혈통'만 보자면 가장 믿음직한 배우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씨'에 불과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련 없는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 껍데기만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혈통, 족보-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

과 약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에서의 판단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육신'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이 결정은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
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외형이나 조
건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신앙 가문이라는 이
유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입
니다.

에서처럼 자신의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려는 '착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결국은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함보
다도 순종을, 판단보다도 분별력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
로 향하여 가더니

[창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
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피해 떠나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와와 갑작스러운 이별, 아버지 이삭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던 상황은 그의 마음에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낮선 길, 해는 저물고, 목을 곳조차 없어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해야만 했던 그 밤은, 야곱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심정은 아마도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실까?” 하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밤의 야곱에게 가

장 절박하고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야곱의 밤'이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만 가득해 보일 때,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대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느껴집니다.

"[시 3: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 3: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다윗은 그 한밤중에도 누워 잠들었고, 아침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 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불면증 해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히 외칩니다.

“[시 3: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곱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돌을 베고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 밤 이후 ‘벰엘’이라 불렀던 그곳처럼,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야곱처럼 외롭고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벰엘에서 꾸었던 꿈은 단순한 심상이나 잠재의식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인 환상에 가까운 꿈이었으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은 야곱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며 받은 하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꿈은 종종 그 사람의 속사람, 곧 영과 혼의 활동이 반영됩니다. 꿈은 무의식 속에서 마음의 깊은 정서나 갈망이 나타나는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기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단순한 수면 중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을 담은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 때로 사람의 환경과 심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육적인 흔적, 정서적 반응(혼적), 그리고 깊은 영적 메시지가 복합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환상은 그와 달리, 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환상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적 요소가 거의 개입되지 않으며,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꿈과 환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조차도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벰엘에서 본 꿈, 곧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계승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과 돌아올 것을 보장하시는 보호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꿈 이후, 야곱은 인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벰엘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디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첫 번째 영적인 사건이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결정적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의 눈입니다. 꿈을 단순히 감정이나 환경의 반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베엘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꿈은 단순한 잠자리에서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도망자의 밤, 돌을 베개 삼아 누던 그 자

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 내뱉은 첫마디는 깊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짧은 한 마디에는 야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전환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 내가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깨달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돌베개 베고 있는 것만 같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외롭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단지 잠속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영적인 꿈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 고백이 은혜이고, 바로 이 고백이 생명을 붙여넣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베엘은 어디입니까? 돌베개 베고 누운 그 외로운 자리,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창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28:19] 그 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창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벰엘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믿음의 서원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외롭게 떠나는 길 위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 아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속에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 28:20-21]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

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은 야곱의 요구이자,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를 먼저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키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신이 할 일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창 28:2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결코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십일조의 약속을 서원했습니다. 이는 계산적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언약 관계 속에서 드러진 진실한 서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일조는 의무감이나 형식, 강요로 드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로 드러지는 것이 십일조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십일조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감사를 믿음의 행동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십일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마음에 ‘나는 아무 축복도 받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고통뿐이다’라고 느껴진다면, 억지로 십일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굽처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굽처럼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십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행된 은혜이고, 우리의 십일조는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원리이며, 아굽의 서원에서 배우는 십일조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9장 =====

[창 29: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 곧 가나안을 중심으로 동쪽을 바라보며 ‘동방’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방 나라’, ‘동방 사람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간 하란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하란은 야곱의 외조부인 브두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한때 이곳에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지만, 그 과정 중 한동안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고, 그의 형제들과 친족들은 하란에 계속 남아 살게 되

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 '동방 사람'의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혈통적 연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계보와 언약이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창 29: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창 29: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단순한 식수의 원천이 아니라 생존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정마다 수도가 있는 시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시설이었고, 때로는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 29: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여’라는 말은 친근함과 함께, 이 우물이 단지 한 마을의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우물임을 암시해 줍니다. 낯선 이방인인 야곱이 거리낌 없이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우물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땅은 지금처럼 포장되거나 정비된 환경이 아니어서, 흙먼지가 많고 우물 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일반적으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길어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공동체적 지혜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그 우물가 장면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당시 사람들이 삶과 공동체, 나눔과 질서를 이루었던 일상적 공

간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는 만남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계획하신 만남과 인도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 가운데 우물은 곧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것입니

[창 29: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창 29: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 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창 29: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야곱이 떠난 곳은 브엘세바, 곧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

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표현은 그만큼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 멀고 먼 하란까지 향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약 800km에 달합니다. 이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약 240km)의 3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약 10시간 걷는다 해도 평균 40km 정도밖에 가지 못하니, 쉬지 않고도 20일 이상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지 '걷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고, 곳곳에 황무지와 가시덤불, 험한 산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극심한 일교차, 목숨을 위협하는 산적이나 맹수, 먹을 것과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지나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착하자마자 우물가

에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마을이 있었던 그 땅에서, 정확하게 친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며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으며, 그의 발걸음을 정확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멀고 힘들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품고 한 걸음씩 내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베엘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라헬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야곱의 여행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닌,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 29: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창 29: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처음 만난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그는 몇몇 목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이 말은 목축업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주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높기 때문에 양들이 더 많은 풀을 뜯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목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하란 지역의 특수한 우물 사용 문화와 규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물이 열려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물을 길어 쓸 수 있었던 반면, 하란 지역의 우물은 입구에 큰 돌을 덮어두고, 모든 때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물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공평한 물 분배와 질서 유지, 그리고 우물 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체적 규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처음 하란에 왔기에 이곳의 풍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조언은 잘못된 시간과 방식에 맞춰진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낯선 땅에 들어선 이방인의 겸손함과 배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자로 변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을 때,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질서와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 역시 믿음의 사람에게 필

요한 지혜입니다.

야곱의 이 작은 실수는 그가 점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배우며 순종하며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창 29: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은 여인이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양치기는 주로 남성의 역할이었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양을 몰고 우물가로 나오며 실제적인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양을 친 이유가 단순히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 31: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

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아들들은 재산 문제에 대해 야곱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이 그 집안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라헬의 성품과 책임감, 그리고 집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라헬은 외모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가족의 재산을 돌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야곱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첫 만남은 단순한 ‘로맨틱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가정을 위한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라헬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몰고 나온 그 장면은, 당시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 믿음의 계보 속에 세워질 여인으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헬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창 29: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창 29: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창 29: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 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창 29: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창 29: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라반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고, 그녀가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만남은 단순한 목자와 여행자의 조우가 아닌,

혈연으로 이어진 극적인 재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라헬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헬은 즉시 그 소식을 아버지 라반에게 전했고, 라반은 한걸음에 달려 나와 야곱을 맞아 안고 입을 맞추며,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환영합니다.

이 만남은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난 길에서 친족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앞으로 이어질 믿음의 계보 안에서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의 고난의 길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고, 결국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정확한 곳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예상치 못한 극적인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짜여지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창 29: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삿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창 29: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창 29: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안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
다. 문자 그대로는 ‘눈’을 뜻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 ‘샘’ 또는 ‘샘물’이라
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
의 내면과 깊은 연결을 가진 상징적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는 레아에 대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
를 넘어서, 여인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다는
의미, 더 나아가 심령의 눈, 곧 마음의 깊이와
영적인 감수성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던 여인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단어가 ‘샘’ 또는 ‘샘물’과도 연
결되는 점은 중요합니다. 물은 고대 근동 사회
에서 생명, 풍요, 생산력을 상징했습니다. 따

라서 레아가 ‘안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곧 생산력-특히 자녀 출산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암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의 중요한 덕목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풍성히 하는 것이었기에, 이 표현은 레아의 외적·내적 약점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대조적으로 사용되던 문학적 장치로, 하나는 부족한 여인, 하나는 풍성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대비시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모나 첫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레아는 아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는 훗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이스라엘을 이끌 열두 지파 중 핵심 아들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여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안력이 부족하고 매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의 깊이와 정직함, 겸손함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닫게 됩

니다.

[창 29: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창 29: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라반은 야곱을 좋게 여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뢰감이 들었고, 함께 한 달을 살아보니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진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라반은 그에게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며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가족이라도 일을 하면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라반은 외조카이자 집안 식구가 된 야곱에게 정식으로 보수를 정하자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그는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흔쾌히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 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사랑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길었겠지만, 라헬을 생각하면 그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끝나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날이 되었을 때, 야곱은 뜻밖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라반은 밤중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아니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며 야곱을 당혹하게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라반에게 속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총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됩

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준 보상은 딸들과 그들의 몸종들, 즉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였습니다. 훗날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얻게 되며, 이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되는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이 긴 수고는 단지 한 여인을 얻기 위한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의 민족이 태동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채워진 14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랑과 인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 29: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창 29: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창 29: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창 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창 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창 29: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 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창 29: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레아를 먼저 주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한 계획을 달리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은 말없이 7년을 지켜보다가 결혼식 날 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창 29:26]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언뜻 들으면 지역의 관습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너무도 늦은 설명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7년을 묵묵히 일하게 만든 뒤, 이 모든 사실을 결혼 이후에야 말한 것은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그 안에는 계산된 교활함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당한 야곱이 라반의 그 속임을 알면서도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야곱은 묵묵히 그 고된 시간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과거에 속임으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보다 더한 속임을 겪으며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더 능숙한 사기꾼을 통해, 마치 거울 속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픈 상처였는지를 당해보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삶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이들을 속였던 경험, 혹은 누군가를 이용하려 했던 마음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깊이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라반처럼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거나, 계산된 친절과 속임으로 이득을 얻으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결국 공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배워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또는 과거의 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변화는 속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되었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 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창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창 29: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창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
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무려 14년
이라는 세월을 수고한 후였습니다. 그가 하란
에 도착했을 때 나이는 약 77세였고, 라헬과
의 결혼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는 이미 9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헌신한 사랑은 분명 진실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29:30]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
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기니라”

여기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는
구절은, 야곱이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되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것이 더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누군가와 비교
되며 사랑이 덜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더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누구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이를 낳고, 또 낳으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심은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유다를 낳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레아가 외면받고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족 계보인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며 은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복수결혼, 즉 여러 아내를 두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었고, 부족이 강해지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모두 야곱의 동

등한 아내로 취급받았으며, 첩의 개념이 아닌 정식 아내로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수결혼은 늘 시기와 질투를 낳았고, 아픔과 갈등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 19:5]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복수결혼의 구조 속에서 사랑이 나뉘고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비교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히 사랑하지 못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마음은 쉽게 나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감정의 깊이를 아시며, 외로이 울고 있는 레아의 기도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레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을 드립시다. 사람의 사랑에서 상처받은 우리, 비교 속에 아파했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향해 동일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레아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에게 있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 127:3]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갖습니다.

첫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총이 없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네>로써 '미워하다' '증오하다'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동생 라헬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세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를 낳을 때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아들 모두 남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해 달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을 덜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네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그녀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유다를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정이 그리워 안절부절한 여인이었

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매우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레아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녀의 남아있는 모든 상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식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한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두 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더 얻게 되었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 한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 치유함이 끝났을 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다 되었다고 방심하면 또 다시 상처를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과 레아는 자매였지만, 야곱을 사이에 두고 서로 깊은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언니 레아를 '투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까지 포함된 감정을 말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레아가 자녀를 네 명이나 낳았다는 사실 앞에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품은 시기심은 곧 언니 레아를 향한 질투로 번졌고, 더 나아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고통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라헬이 단순히 아이를 원하는 여인의 소망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자녀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회적, 정서적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비교당하는 슬픔, 사랑 받고 있음에도 무너지는 자존감은 라헬을 투기의 깊은 늪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투기의 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외로움도, 라헬의 아픔도 다 아셨던 하나님은 결국 라헬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비교하며 시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라헬처럼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질투할 것이 아니

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 보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투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게 합니다.

라헬이 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비교와 시기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창 30: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투기심이 극에 달하자, 야곱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었지만, 그녀의 투기 어린 요구 앞에서 야곱은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자녀는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누구보다 라헬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고 싶어했지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고, 자식을 낳고 못 낳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창 30: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야곱이 감정적으로 화를 낸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
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원하고 애
타게 바라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
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의 요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한 간절
한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
신의 감정이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투기심에 찬물을 끼얹듯,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그 순간, 자
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라헬처럼,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거
나 원망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
억해야 할 것은, 삶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

께만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이, 인간적인 성급함과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 30: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창 30: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창 30: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창 30: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창 30: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창 30: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결국 자신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대리출산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인정받는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시녀가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 여인의 명백한 허락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인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결혼으로 여겨졌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명령으로 야곱과 동침했고,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로 포함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堂堂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창 30: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

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창 30: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 속 라헬의 고백은, 자녀에 대한 갈망이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서 깊은 감정의 전쟁과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였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빌하의 출산을 통해 라헬은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빌하는 단지 자녀를 대신 낳은 여인이 아니라, 정식 아내로서 야곱의 가정에 편입된 인물이었으며, 그녀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도 결코 이방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대리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방식, 심지어 우리가 선택한 우회로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

며, 모든 생명의 출발과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우회로를 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간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하를 통해 이루신 언약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창 30: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창 30: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창 30: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창 30: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창 30: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

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자,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레아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바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되었고, 이 두 아들도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 30:10]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창 30: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창 30:13] 레아가 이르되 기뻐도다 모든 여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자 시녀 실바를 통해 이어지는 자녀들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갓은 '복'이란 뜻을, 아셀은 '기쁨'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는 단지 자녀를 낳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

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아는 이미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이 네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한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레아의 눈물과 갈망을 보셨고, 그녀의 태를 다시 여셔서 스불론과 잇사갈을 낳게 하셨으며, 딸 디나도 그녀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 30: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창 30: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쟁과 시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외면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녀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멈춘 듯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나는 멈춰선 것 같은 침묵의 시간-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다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레아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들의 인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 30: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창 30: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창 30: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루우벤은 어머니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

서 밭에서 ‘합환채’를 발견하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져다줍니다. 당시 합환채는 아이를 갖게 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졌던 식물로, 여성의 생식과 다산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루우벤은 그것이 어머니 레아에게 도움이 되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시 얻는 데 쓰이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합환채를 라헬이 빼앗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던 라헬은 그 합환채가 자신의 불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잔교한 꾀를 냅니다.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레아에게 양보하는 대신, 합환채를 빼앗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의 동침조차 아내들의 사이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 30: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은 그 식물을 얻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

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꾀와 계산보다, 레아의 아픔을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녀에게 또 다른 아들-잇사갈과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한 사람은 레아였고, 자녀를 낳은 사람도 레아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꾀와 계산이 때로는 현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이길 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라헬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진 레아의 상처와 외로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삶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조금은 계산하고, 조금은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꾀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와 소망을 진실하게 아뢰며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어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억지로 쥐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잊힌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

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합 환 채

성경에서 '합환채'는 라헬과 레아의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지만 아버지 라반에 의해 한 남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임을 다 기울입니다.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드릴려고 합환채를 구해옵니다.

"[출30:14] 맥추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하지만 그 합환채는 라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라헬이 르우벤의 합환채가 탐이 난 것입니다. 결국 레아는 합환채를 구경도 못한채 겨우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만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합환채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

래서 네 아들을 낳고 꿈어졌던 자녀를 다시 얻게 되어 세 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합환채를 빼앗은 것은 합환채를 통해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환채에는 무엇일까요?

합환채는 팔레스타인의 남부지역에서 많이 나는 식물입니다.

마치 인삼처럼 뿌리

모양이 사람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것이 남성의 양기에 힘을 돕고 여인에게 임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흔히 "사랑의 사과"(love apple)라고 불리웁니다.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 합환채를 최음제나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합환채는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마치 두갈래로 갈라진 뿌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마의 힘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에는 합환채를 땅에서 뽑을 때 날카로운 소

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맨드레이크가 바로 이 합환채입니다. 합환채의 영문 표기가 바로 '맨드레이크(mandrake)'인 것은 해리포터의 저자가 합환채의 고대 전승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환채는 주로 민간요법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이 합환채는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뱀이나 전갈에 물린 상처를 경감시키고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합환채의 익은 열매를 먹은 후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남성의 양기에 힘이 더해지고 여성의 자궁을 열어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합환채에 대한 효능에 대해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더군다나 합환채 뿌리는 독성이 매우 강해 다량 섭취했을 경우에 뇌신경이 마비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때의 합환채는 마치 뇌를 자극해서 다소 신경을 마비시킴으로 인한 흥분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성관계를 도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합환채에서 난 과실은 향기롭지만 유독성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로서라도 임신하려는 부부사이에서는 즐겨 사용되었

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합환채의 극소량을 술에 담가서 수술할 때 마취약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마취의 효과외에도 최면을 걸거나 마음을 진정케 하는데도 사용했으며 각종 통증 경감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창 30: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창 30: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창 30: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창 30: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창 30: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녀를 낳는 일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입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점점 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자녀 하나하나에게 그녀의 마음이 담긴 이름을 붙였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송하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면 라헬은 처음부터 자녀를 갖고자 자신의 계획과 꾀를 사용하며 애를 썼습니다. 시녀를 통해 자녀를 낳기도 했고, 합환채를 통해 임신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탄생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개입된 기적의 역사입니다. 라헬이 그 고틀를 멈추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창 30: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기도하며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레아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라헬의 소원

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 30: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창 30: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 30: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극락을 베푸셨고, 드디어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 30:22-24]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

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더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헬은 첫 아들을 얻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진정한 감사보다 아쉬움과 욕망이 더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녀는 그 순간을 깊이 누리기보다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보다, 곧 또 다른 것을 구하며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라헬의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태도로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함 앞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며,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라헬은 요셉을 얻고도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족

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 보며,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해주시길 원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불평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품에 안았던 그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눈물의 감사를 드렸다면, 그녀의 삶은 더 깊은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셉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복된 인생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 30: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창 30: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

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머물며 봉사한 후,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창 30:25-26] 야곱이 라헬을 낳은 후에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야곱의 내면 깊은 갈망과 억눌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데에 여전히 라반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신세와 얽매인 현실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승인과

통제를 받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라반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를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 30: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쉽게 얽매이기 쉬운지 보여줍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 조건 속에 눌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정체성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세상의 종으로 놀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셨고, 그를 얽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여”

우리의 삶에도 라반 같은 얽매임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함, 억울함, 헌신에 대한 무시, 반복되는 수고와 기다림 속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는 사람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창 30: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
로 있으라

[창 30: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손해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두 딸과 손주들이 떠나는 것도 아픈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은 재산의 출처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창 30: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반의 이 말은 외적으로는 야곱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심으로 야곱을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떠나면 자신의 복도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 30:27] ...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 말은 마치 감성적인 요청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복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바심 어린 설득이었습니다. 야곱이 있으면 자신이 잘 되고, 야곱이 없으면 손해를 본다는 판단 아래서, 라반은 그를 어떻게든 붙들어 두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익’과 ‘사명’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라반은 이익을 붙잡으려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은혜, 복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

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지,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 복만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진가를 알았지만, 그의 인격보다는 효용성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큰 축복의 통로를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복의 도구'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보다 이익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되,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라반처럼 계산기를 두드릴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날 것인가. 복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 30: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창 30: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 30: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창 30: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창 30: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창 30: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안이었고, 라반에게는 일방적으

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창 30: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당시 중동 지역의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흰색과 털이 고른 것이 정상적인 품종이었고,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은 희귀하거나 돌연변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런 짐승만을 품삯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라반은 마음 놓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손해 보겠다고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과 지혜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계산이나 확률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듣고 기뻐하며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창 30: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러나 그 이면에는 라반의 또 다른 간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날로 모든 점 있는 짐승들을 몰래 다른 아들에게 넘겨버리고, 야곱이 돌연변이 품종을 얻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대비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히 손해 보는 게임을 제안한 셈이었고, 라반은 그 약점을 이용해 야곱을 더 철저히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계산으로 보면 야곱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세상 모든 불리한 조건조차도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놓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 억울한 조건,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곱의 제안은 인간의 눈엔 약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손해 보는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킬 때, 그 손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창 30: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창 30: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
니라

[창 30: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
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
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창 30: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
니

[창 30: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
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창 30: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
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
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
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
늬를 내었습니다. 얼룩지고 점이 생긴 나뭇가
지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지들을 짐승
들이 물 마시러 오는 개천의 물구유 앞에 세
워 짐승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들 앞에서 물을 마시며 새끼를 밴 짐승들이 모두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짐승들이 얼룩진 가지를 보고 그와 같은 새끼를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야곱이 먼저 그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롱진 짐승을 이미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돌보던 짐승은 모두 흠 없는, 점 없는 정상적인 짐승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이미 얼룩지고 점 있는 짐승들은 따로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옮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 30:35-36] 그 날에 라반이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삼일길이 되게 하였으며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현실적으로 야곱과 함께 있던 짐승은 오직 흠 없는 짐승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대로 행동했습니다. 신통나무와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들을 꺾고, 껍질을 벗겨 얼룩지게 만들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시간과 장소를 계산해 정확히 그 자리에 가지를 세워두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야곱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곱의 행동은 단순한 육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현실로 이뤄가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제처럼 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창 30: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창 30: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창 30: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다한 사람
이었습니다.

야곱은 짐승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이미 탁
월한 지식을 가진 현장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는 짐승들의 건강 상태를 구별할 수 있었고,
어떤 짐승이 더 강하고 어떤 짐승이 약한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통찰이 있었습
니다. 그는 단지 축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습니
다.

“[창 30:41-42] 물이 동할 때에 양들이 새끼
배게 하려고 튼튼한 양 앞에는 가지를 두어
양들이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양 앞에는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되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야곱의 영적인 통찰, 현실
적인 준비,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력이 담겨 있
습니다. 그는 튼튼한 짐승에게만 껌질 벗긴 가

지를 보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품고 현실로 이를 만한 대상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수고'와 '지혜'를 간과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아래 누워 있는 신앙을 가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준비와 실행이 병행되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지혜와 행동은 그 가지와 열매입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삶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세심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실천했던 자였습니다.

무작정 감나무에 오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노력은 하되, 지혜 없이 움직이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오늘을 준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곱이 누렸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비 롯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함 속에서 삶의 모든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품되, 행동하십시오. 기도하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를 정리하고 정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믿음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꿰뚫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눈입니다.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1장 =====

[창 31: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
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창 31: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모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야곱이 정당한 계약과 수고를 통해 얻은 재산을 마치 라반의 소유를 부정하게 빼앗은 것처럼 왜곡하여 말합니다.

“[창 31: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은 단순한 험담이나 시샘을 넘어, 야곱의 명예와 성실함을 훼손하는 중대한 모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라반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곧바로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창 31: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를 통해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거리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 상황은 단지 인간적

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 31: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귀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인도하심의 확증입니다. 이제 야곱은 억울함이나 분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의 여정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상처받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야곱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창 31: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라반의 냉랭한 태도 속에서 깊은 걱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의 생계와 미래, 그리고 약속의 계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 31: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인도와 보호를 재확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동행은 이미 삶의 수많은 국면에서 확인된 진리였습니다. 브엘세

바를 떠나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도, 광야에서 외롭게 잠들었을 때도, 하란에 와서 라반의 속임수 속에 2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늘 함께했습니다. 자녀를 얻은 것도,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적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의 길을 열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 새 힘을 얻

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 31: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창 31: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 31: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창 31: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창 31: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창 31: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창 31:10] 그 양 떼가 새끼 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창 31: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는 단순한 심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창 31:11]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꿈’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꿈은 인간의 의식이 멈춘 깊은 잠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한 영적 수단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도 꿈을 통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을 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기회 때문이 아니라, 꿈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 두 왕조 아래서도 동일한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단 2장), 다리오 왕 아래서는 탁월한 지혜로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단 6장). 그가 해석한 꿈들은 단지 왕 개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곧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은 종종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환상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꿈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창 31: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 속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점 있고 아룅진 가축들만을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은 얼핏 보면 지혜롭고 전략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깎아 물가에 세우고, 얼룩지고 아룅진 무늬를 만들어 짐승들이 그것을 보며 새끼를 뱉 수 있도록 했던 방법은 '바라봄의 법칙'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실행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는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 31:10] 교미하는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룅진 것이었더라
[창 31:11]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그 꿈을 통해 자신이 본 얼룩진 숫양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의 방법은 곧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속사람, 곧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을 꿈을 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그 지혜는 삶의 실제적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축이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31: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삶이 분주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엘이었습니다. 베엘은 야곱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시절,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창 31: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회상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된 지점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압박과 인생의 피곤함 속에서 잊고 지내던 그 첫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엘은 일종의 Turning Point였습니다. 이전의 야곱이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았다면, 베엘 이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의 분주함과 고단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종종 그 은혜의 자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벤엘로 돌아가라”고 명하심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벤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시간, 눈물로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그 ‘벤엘’을 잊고 삽니다. 바쁜 일상, 얽힌 관계, 무거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첫 자리를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벤엘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주 돌아보라. 그것이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벤엘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그 벤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고,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오늘과 내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 31: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창 31: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창 31: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본토로 돌아가려는 결정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의 동의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기 이전에 라반의 딸들이었습니다. 피붙이인 아버지를 떠나는 일은 단순한 이어나 이동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의 뜻을 힘껏 지지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창 31: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창 31: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라”

레아와 라헬은 과거 자신들의 처우를 돌아보며, 아버지 라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한 야곱의 뜻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라”고 지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협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지는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와 협력은 사역의 열매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가정에서 신뢰를 세우고, 배우자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아내들의 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의 연합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도, 순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창 31: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창 31:18]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
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

새

[창 31:19]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창 31: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뜻밖에도 그녀는 집안에 있던 작은 우상 하나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우상의 이름을 '드라빔'이라고 기록합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쓰이던 가정 수호신 또는 *가신신(家神神)*으로, 가문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어지는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선 상속권을 주장하는 증거물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창 31: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애착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의 중심에 놓여있었던 드라빔을 여전히 신앙적 의미 없이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문에 대

한 상속권 주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떠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상징으로 드라빔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는 우상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자리잡기 전, 과거에 의지했던 대상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드라빔의 크기는 손에 감춰질 정도로 작았던 것으로 보이며, 라헬은 그것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겼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가장 먼저 찾은 것도 바로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이는 라반에게 이 작은 우상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이자, 가문과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옛 삶의 잔재, 곧 우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단지 목석으로 만든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과거의 성공, 세상의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라헬은 떠났지만 드라빔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단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드라빔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단 한 분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례는 철저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드라빔

'드라빔'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라핌>인데 이는 '우상' 또는 말 그대로 '드라빔'을 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드라빔을 언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고 말하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3)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엘이 언급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이라는 말은 곧 '드라빔'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드라빔은 '우상에게 절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자신의 집안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미가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드라빔이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

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삿 17:5). 미가라는 사람은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드라빔'은 '우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드라빔은 한 집안의 제사를 위해 세워놓은 우상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도 자신의 집안에 드라빔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이삭에게로 떠났을 때 라헬의 자신의 집안에 안치된 르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여 쫓아왔을 때 누군가 드라빔을 훔쳐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 드라빔을 자신의 엉덩이 밑에 놓고 앉으면서 "경수가 나서 일어나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지혜로 위기를 넘겼던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엉덩이에 깔고 앉을 정도이니 라반의 드라빔은 매우 작은 크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왔을 때 '드라빔'을 침대에 눕혀서 마치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삼상 19장).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그 침상을 확인했을 땐 그곳에 '드라빔' 누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삼상 19:13]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 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언급된 '우상'은 '드라빔'이었습니다. 같은 <테라핌>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반의 드라빔은 작은 크기였지만 미갈이 사용한 드라빔은 사람 몸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르라빔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크기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빔의 용도는 주로 점을 칠 때 사용되었거나 제사를 지낼 때 우상처럼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왕하 23: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들을 이루려 함이라"

이처럼 드라빔은 없어져야 할 매우 가증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드라빔이 가증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점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통해 점을 쳤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겔 21:21] 바벨론 왕이 갈랫길 곧 두 길 머리에서 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며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피서"

"[스 10:2]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창 31:21]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창 31:22] 삼일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창 31:23]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그 여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떠났고, 라반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에 차서 야곱을 추적합니다. 성경은 라반이 "길을 쫓아가" 야곱을 일곱째 날에 따라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야곱이 떠난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장소는 바로 '길르앗산'이었습니다.

"[창 31:23]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길르앗산은 오늘날의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 지대입니다. 이곳은 종종 성경에서 경계선의 역할을 하며,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회가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를 향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라반은 속히 야곱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창 31: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경고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직접 인도하시며, 사람의 분노나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관계의 얽힘,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등의 자리에서도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라반은 결국 야곱에게 악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길르앗산'을 지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경계선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 31: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창 31:25]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

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창 31: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창 31: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창 31:28]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창 31:29] 너를 해할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창 31:30]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창 31: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 하였음이니이다

[창 31:32]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

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창 31: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창 31:34] 라헬이 그 δρα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창 31:35]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δρα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창 31: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 같이 급히 쫓나이까

[창 31: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집물 중에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은 성경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인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한밤중,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이

유는 단 하나, 야곱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
게 보호하시는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
니다.

“[창 31: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
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
악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닙
니다.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야곱
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를 상하게 하려
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은 라반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을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눈에는 단지 도망자처럼 보였
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
님의 언약을 이어갈 귀한 약속의 사람이었습
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방인의
꿈에까지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를 줍
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

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 앞에서 계시며, 그들의 계획을 꺾고 길을 막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꿈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선인을 보호하는 방패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미치며, 선인과 악인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대적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창 31:38]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창 31: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

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
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 내었으며

[창 31: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
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창 31: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
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년, 외삼
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년을 외삼촌을 봉사하
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번이나 변
역하셨으니

[창 31: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남의
짐승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돌보았고, 도적맞
거나 찢긴 짐승은 자신의 손해로 감당했습니
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그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
이 많았고, 새벽이 되면 여전히 들판을 지켰습
니다.

“[창 31: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창 31: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셨으므로

[창 31: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토록 야곱이 성실하게 일한 이유는 라반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 31: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 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을 봉사 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도, 그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가 사람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힘을 다하지만,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실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본분을 지키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충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열한 라반 아래에서도 야곱처럼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을 깊이 보셨고, 마침내 야곱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야곱을 통해 이루신 것도 그의 충성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 31: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사기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못합
니다. 남이 수고하여 얻은 것조차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중
심성과 탐욕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땀
흘려 얻은 가축도, 수년을 봉사하며 얻은 재산
도, 심지어는 야곱의 가족까지도 자신이 소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31: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
로되”

이 한 마디는 라반의 이기적인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라반은 자신이 기른 것도 아닌 양 떼를 '내 것'이라 주장합니다. 딸들을 시집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여깁니다. 심지어 손자들까지도 '내 자식'이라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뻔뻔한 자기 중심입니까?

이런 사람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눈물은 그저 지나가는 물방울처럼 여길 뿐이며,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라반에게 있어 야곱의 고생과 땀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꾼은 대체로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경건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기꾼의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라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집니다.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

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남의 공로도 자기 몫으로 가져가고, 남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울을 들이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누군가의 것을 은연중에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처럼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반의 모습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경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기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보다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 31: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라

[창 31: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
로 세우고

[창 31: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
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
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서로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맺는 무거운 결속
이었으며, 반드시 어떤 ‘증표’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를 흘리
거나 돌무더기를 쌓거나 기념비를 세움으로
써 그 언약을 후손에게까지 상기시키고자 했
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만난 곳은 ‘갈르엣 산지’였습니
다. 이곳은 넓은 평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한 건축물을 남길 수 없었고, 돌을 쌓는 것이
언약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
습니다.

”[창 31:46]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돌을

모으라 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앉아 먹고”

돌무더기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화친과 증인의 의미’를 갖는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체결을 주도한 쪽은 야곱이 아닌 라반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간의 화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라반의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에, 더는 야곱을 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창 31: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은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상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형식 아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운 것입

니다. 이는 라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정치적 처신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의 입을 봉하신 보호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끼리의 언약은 서로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외적인 장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벤엘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 돌무더기처럼 분명한 언약의 흔적이 우리 삶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언약은 언제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 31: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창 31: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창 31: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창 31: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
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창 31: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
둥을 보라

[창 31: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
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
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
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
할 것이라

[창 31: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
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
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창 31: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창 31: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
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은

장소에는 여러 이름이 붙었습니다. 각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언약의 의미와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부른 이름은 <여갈사하두다>입니다.

"[창 31: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으니"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로, '돌 무더기'를 뜻하는 <예갈>과 '증거'를 의미하는 <사하두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이곳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무더기'를 뜻하는 <갈>과 '증언' 또는 '증인'을 의미하는 <에드>의 합성어로, 역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를 각각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불렀다는 점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 반면 야곱은 셈족 언어계의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이 언약의 장소를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창 31: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시다 함이라”

미스바는 ‘지켜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차파>에서 유래한 말로서, 문자 그대로 ‘파수대(watchtower)’ 또는 *‘감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에게 신적 감시 아래에서 나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라반은 단순히 화해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언약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라반의 가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의 의미로 이 돌무더기와 미스바를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의 장면은 단순한 이별의 제스처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신앙적 계약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함께 지녀야 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

[창 32: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창 32: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라반과의 긴 여정을 정리하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라반과의 언약이 마무리된 후였고, 그의 발걸음은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 중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만남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창 32: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창 32: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두 명의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선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고 위엄 있게 나타난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

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순간, 야곱은 그 자리의 이름을 '마하나임', 곧 '두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의 진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또 하나의 진영으로 여긴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왜 야곱과 마주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친히 동행하시며 보호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라반의 추격을 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긴장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단지 야곱의 삶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 곧 수호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히 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만난 것은 단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능한 실제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 32: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창 32: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창 32:5]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창 32: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창 32: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창 32: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을 맺고 길르앗을 떠나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과거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 이후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형과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잔꾀'를 내어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오히려 그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있어 곧 전쟁의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 32: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해졌고, 그는 급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가족과 가축을 나누는 전략을 씁니다. 혹시라도 하나가 공격당하면 다른 하나는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 32: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야곱의 기도는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안절부절했고, 그 마음

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 다른 꾀를 냅니다. 이번에는 예물을 세 무리로 나누어 형에게 차례대로 보냅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처럼, 혹시라도 “에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풀릴지 모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창 32: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대비책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듯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 다시금 예전의 야곱, 잔꾀 많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잔꾀를 내는 이 이중적인 모습은, 그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은 야곱을 다시 불안과 염려의 함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찢어진 천처럼 천 갈래로 나뉘어

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영혼은 불안에 떠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꾀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안에 계산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는 아닌가요? 잔꾀가 아닌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창 32: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 32: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

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창 32: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
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
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창 32: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
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자 두
려움에 사로잡혀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
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에게 주
셨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며 기도를 시작합니
다. 먼저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
셨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창 32: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
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자기 손에 가진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
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닥친 절체

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뿐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으니, 주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창 32: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하리니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믿음의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다음입니다. 기도한 후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에 의지합니다. 기도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대비책을 세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형을 회유하기 위한 예물과 전략을 동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수많은 대책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참 닮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후의 삶에서 전혀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는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만, 정작 기도가 끝나면 불안과 염려, 인간적인 계산과 불신이 여전히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복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이며, 진짜 믿음은 기도 이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 32: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창 32: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창 32:15] 젓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창 32: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창 32: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창 32: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창 32: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창 32: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붙듦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직후, 야곱이 꺼낸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래전 장롱 속에 감춰 두었던 ‘잔꾀’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그 입술은, 어느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수많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경력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잔꾀가 더 현실적이라 여겼습니다. 두려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위기와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믿음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음에도, 그 음성보다 내 안의 불안과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도 자신만의 방식을 꺼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눈 앞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내 생각과 잔꾀는 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라는 자만 속에 대화를 게을리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연애했 때는 밤을 새워 통화하던 커플이, 결혼 후에는 서로 대화를 피하고 무관심해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

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도 같습니다. 결혼은 시작일 뿐이며, 그 다음은 더 많은 대화와 교제가 필요합니다.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들은 말씀'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대화로 이어지는 깊은 교제입니다. 잔꾀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잔꾀를 꺼내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창 32: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창 32: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창 32: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새

[창 32: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 32: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
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창 32: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
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
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창 32: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
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어 이겼음이니라

[창 32: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지라

야곱은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난 후 혼자 남게 되자, 야곱의 마음속에는 더욱 무거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 혼자 남은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물러서면, 자신의 목숨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는 단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은 이 단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천사

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느끼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천사를 놓치면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처절한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게 되고,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영적 이름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비로소 씨름을 멈추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그 구함이 마치 씨름하듯 강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

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창 32: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창 32: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더라

[창 32: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곳은 압복강나루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그곳을 압복강나루터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곳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경험을 했고, 이러한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영적인 이름인 브니엘을 붙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얼굴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에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수록,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

[창 33: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창 33: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창 33: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압복강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안절부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였기에, 가족과 짐승들을 둘로 나누어 한 쪽이 잃게 되면 다른 한 쪽으로라도 살아남으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불안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을 통해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

으며 에서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새로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한 결단력을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며 가족의 순서를 정하는 모습에서도 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라헬, 레아, 두 여종 및 그들의 자녀들 순으로 배치한 뒤, 자신이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죽더라도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라헬과 자식들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족을 위하는 애정 어린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의 변화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바라며 이스라엘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창 33: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 33: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창 33: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창 33: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창 33: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창 33: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형 에서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와 그를 껴안았고, 기쁨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결과로, 야곱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도했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난을 겪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잘 해결되지?"라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해결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군천사를 보내시며, 우리의 곁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면서 예기치 않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운전을 잘 해서 무사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잊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전에 하나님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무사고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사고가 나면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라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

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길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창 33: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 33: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깊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만남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에서가 예상 외로 기쁘게 자신을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품었던 모든 염려가 한순

간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난관이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 짧게 파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두려움 없이 에서를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형의 반응이라는 문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때때로 힘들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이들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마련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창 33: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창 33: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창 33: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에서가 마음을 열고 그를 반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에서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브엘세바로 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세일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거주하던 지역은 에돔 땅 세일산 근처였고, 이는 사해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브엘세바로 가는 길은 어렵고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세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형의 반응을 두려워하던 과거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각자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의 두

려움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화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창 33: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창 33: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창 33: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에서가 떠난 이후, 숙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숙곳은 압복강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그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떼를 기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야곱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뒤 그는 더 이상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는 숙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삶에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특별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숙곳에서의 야곱은 외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분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를 잊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야곱은 숙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그 언약을 기반

으로 한 방향성을 회복해야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 33: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숙곳에서 잠시 머문 후 세겜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세겜은 숙곳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그의 가족에게 적합한 새로운 주거지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서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었다면 곧장 벰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벰엘 대신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이 목축업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비옥한 땅이었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겜 성이 이미 존재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서의 정

착을 결심하게 만든 요소들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성을 원했지만, 그의 선택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의 편리함이나 안정감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더 깊은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현실에 따라 즉각적인 선택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만을



쫓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 33: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세겜에 도착한 후, 세겜의 추장에게서 거할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는 그 땅을 위해 '은 백 개'를 지불했습니다. 이 '은 백 개'의 가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은 한 개의 가치가 양 한 마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머무름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세겜은 당시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장소였으며, 다양한 자원이 풍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겜은 물이 많

은 지역으로, 이는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귀한 그의 고향 땅에 비해 세겜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그 지역의 여건이나 편리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정착은 야곱에게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그의 가족과 자손에게도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이 결정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창 33: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명명했습니다. '엘엘로헤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신 후, 그의 신앙고백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단을 쌓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에서 엄청난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야곱은 베엘로 갔어야 했습니다. 베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 세겜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겜에서의 조건이 더 좋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
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창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यो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
님의 집이 될 것ि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
고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쫓게 되었습니
다. 결국 그는 세겔 땅에 들어가 단을 쌓고, 하
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며,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를 원한다
고 하면서도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대학교수
나 다른 직업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술집
같은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들의 의도는 고귀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겪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그분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

[창 34: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창 34:2]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 34: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창 34:4]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 추장은 디나를 강간한 후,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디나가 적어도 12세 이상의 여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올 당시 디나는 겨우 5살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나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요셉이 태어나기 직전에 태어났다면, 라반을 떠날 때 디나는 5세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숙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겜에서 대략 10년 정도 지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 머물렀다면 이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자 했던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상업적으로도 번창하며 다양한 자원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고,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와 자손을 위해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벰엘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신앙의 길에서 현재의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현재의 편리함이나 유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 34: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창 34: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창 34: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창 34: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창 34: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창 34: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창 34: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창 34: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주리라

[창 34: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세겜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서 자신의 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 그들 역시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인의 위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원해서 겁탈하더라도, 그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

습니다.

"[신 22: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신 22: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세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할 도리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세겔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음은 분명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이 처한 신분은 형편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점은 현대에서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는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겔의 행위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것은 그들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세겔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맵니다. 그런 후에도 그들은 시체 위를 밟고 지나가며 재산을 약탈하고, 죽은 자의 자녀와 여성들을 포로로 잡았

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할 때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 34: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의 사건은 그들의 영웅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선택한 폭력적인 방법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디나였습니다. 그녀는 추장 세겜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오빠들 덕분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결국 디나는 홀로 평생을 살아야 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인생을 마쳤습니다. 훗날 야곱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할 때, 디나와 관련된 가족은 단 한 명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창 46: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더라.”

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아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창 34: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
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창 34: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
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창 34: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
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창 34: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
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세겔

추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겜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 세겜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추장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며, 그가 할례를 받는 순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가식을 쌓으며 신의 맹세와 그 조건을 요구했지만, 속마음은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규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내세워 속내를 숨길 때 어떤 비극이 따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제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는 그들 스

스로가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
성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
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
대로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흐트러지지 않게
나아가야 합니다.

[창 34: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
겔이 좋게 여기므로

[창 34: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
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
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
라

세겔 성의 추장은 세겔이었지만, 그 집안의 어
른은 세겔의 아버지인 하몰이었습니다. 세겔
은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겔
성의 추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
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겔은 그 행동 이후
에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으로 디나를 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검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디나를 자신의 거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디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여파로 인해 세검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건 후에야 세검은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나와 세검의 이야기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당시 그들의 상황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사랑과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복잡한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합니다. 사랑이 깊어져도 과거의 잘못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디나 또한 세검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가족과 공동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검의 행동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

상 고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창 34:20]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창 34: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창 34: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창 34: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창 34: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추장 세겜이 세겜 성의 사람들에게 할

례를 받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성인 남성들이 갑자기 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인 행위 이상으로, 그들의 신앙적,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검 성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은 하몰과 세검의 리더십이 그만큼 강력하고 신뢰를 받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검 사람들에게 할례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야곱의 가족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의도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가축을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는 명분이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몰과 세검의 설득력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검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즉 강력한 동맹과 자원의 확보 등을 강조하며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연대를 이루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몰과 세겔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람들을 결집시켜야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며 할례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세겔 남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야곱의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 34: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 34:26]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겔을 죽이고 디나를 세겔의 집에서 데려오고

세겜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 가장 고통스러운 셋째 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두 사람만의 결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로 인한 고통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만으로는 많은 남자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빼앗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 다른 이들과 함께 작전을 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한 가족들 또는 야곱의 하인과 같은 노예들이 그들과 함께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겜 성의 남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진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몸이 아파서 움직이는 것이 힘든 상태였고, 이때가 바로 공격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시기를 노려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수심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디나의 사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복수와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결과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 뒤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단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이해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 34: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창 34: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창 34: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성경에서는 야곱의 여러 아들이 세겜 성에 가서 노략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셉과 같은 어린 자녀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아들은 세겜 성에 가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가축을 노략하고, 부녀자들을 사로잡는 등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생 디나가 당한 불행을 복수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그 결과로 세겜 성의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하느님의 뜻과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에 이끌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창 34: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추악한 행위로 인해 큰 불안에 떨어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듯이, 그의 불안은 극심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심각한 두려움을 잘 드러냅니다. 아들들의 행동이 가져온 영향을 걱정하는 대신, 그는 스스로의 안전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만 걱정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창 34: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추장이 디나를 범한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의 말은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과는 다른 이방인으로서, 디나를 자신의 마음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창녀 취급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누이 디나에 대한 분노

가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디나의 문제로 인한 감정이 폭발하며,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은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 본인도 세겜 성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며, 그곳에서 떠돌이 목축업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서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야곱 역시 세겜에서 천대를 받았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겼던 블레셋과 같은 방식으로, 세겜 성의 사람들도 야곱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아들들은 그러한 세겜 성 사람들에게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 안에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빈번히 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통해 화평을 이루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

[창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낚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처지를 아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세겜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헤쳐 가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맞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결코 하나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해결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굽처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편이시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힘차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 35:3] 우리가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벰엘로 가기로 결단한 후, 서둘러 자녀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 지역에서 생활하며 우상을 접하고 이방 신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학업이나 명예로운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곧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방식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살면서 세겜에 걸맞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들은 세겜의 문화에 젖어들며, 그에 맞는 방식을 따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걸맞는 의복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모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검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고, 지금은 그것들을 감추기에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상수리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였던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는다는 것은 야곱이 과거의 악습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여전히 세검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뿌리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세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찾아가고 있으며, 세검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안감 때문에 옛것을 다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단순히 외

형적인 변화를 넘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완전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겜에서의 잘못된 유혹이나 악습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회복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맡기며,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창 35: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 35: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벰엘에 이르고

[창 35: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벰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창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벰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긔이라 불렀더라

[창 35: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 35: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

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겪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추적하여 쫓아오는 이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하게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아무 일 없이 보내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

리는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사건이 단지 우리의 잘못이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보호자이십니다. 그의 은밀한 손길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말고, 그분의 보호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며,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 35: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 35: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야곱은 압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벰엘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지나온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겜 땅에도 착해 정착한 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칭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33: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주어진 후 금세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한 승리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의 기억을 다시 소환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과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분의 부름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 35: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창 35: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35: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벰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 가시는지라”는 말씀은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분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큰 영적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증명하는 엄청난 기회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이 크게 변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나 축복을 받은 후, 그 힘을 통해 신앙이 더욱 강해지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창 35:16] 그들이 벰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타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창 35: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 느니라 하매

‘에브랏’(에프랏 혹은 에프랏하)은 고대 지명으로, 훗날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지명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구절은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해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베나민을 낳은 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야곱의 인생에서 큰 상실이었고, 그 아픔은 이후 성경 곳곳에서도 상징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에서는 라헬이 자녀를 잃고 우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민족적 슬픔의 대명사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라헬이 베나민을 낳고 죽은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의 백성 안에서 태어나는 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흘려야 했던 고통과 희생의 이야기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전달하십니다. 베들레헴, 곧 에브랏은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장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라헬의 고통과 눈물은, 세월을 넘어 구원의 여명이 피어나는 땅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랏'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든 장소입니다.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눈물의 땅이 소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라헬처럼 눈물 흘릴 자리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 35: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약 15년이 지난 어느 날,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산고를 겪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라헬의 나이는 대략 40세에서 50

세 사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환경을 감안할 때,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안한 삶의 터전이 아닌, 광야를 지나며 유목생활을 이어가던 여정 중이었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기 직전, 심한 산고에 휩싸이게 됩니다.

“[창 35:16] 그들이 벤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까지 얼마 거리 되지 아니하여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녀는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부릅니다. 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마지막 감정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창 35: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이 구절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내의 아픔과, 막 태어난 자식을 안아 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슬픔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베노니'가 아닌 '베나민'이라, 곧 '오른 손의 아들' 혹은 '행운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슬픔에 머물지 않도록, 야곱은 믿음과 희망으로 그 이름을 덧씌운 것입니다.

라헬은 죽은 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곳에 야곱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기둥은 지금까지도 라헬의 무덤으로 전해지며,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과 고통 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헬은 눈물로 아들을 낳았고, 야곱은 그 눈물 위에 희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광야에서 라헬처럼 슬픔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베나민'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걷게 하십니다.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 35: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죽은 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
사됩니다.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
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가족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로
옮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헤브론 근처,
상당히 먼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중동의 뜨거운 기후는 시신을 빠르
게 부패시켰습니다. 긴 여정을 감당하며 시신
을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
다. 야곱은 슬픔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
습니다. 아내 라헬이 숨을 거둔 그 자리에, 그
녀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야곱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창 35:20]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 돌기둥은 지금까지도 라헬의 무덤으로 전해지며,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사라, 리브가, 레아와는 달리 라헬은 가족 공동묘지가 아닌 외따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단지 죽음의 분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무덤은 예언과 눈물의 상징으로,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역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렘 31:15]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죽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지 한 여인의 무덤이 아니라, 민족의 눈물이 흐르는 상징의 자리로 남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는 자리, 편안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준비된 무덤조차 멀고, 안식

은 허락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빚어 내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비록 고통과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념비로, 후대에 교훈이 되는 자취로 바꾸어가십니다.

[창 35: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창 35: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 35: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창 35: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창 35: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창 35: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은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

와 통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친 상간의 죄를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아 동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특별한 권리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장자 축복권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르우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기억에 남는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린 결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경계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정서적 또는 육체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원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의 권리와 가족 관계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직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 때,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 35:27] 야곱이 기랴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창 35:28]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창 35: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드디어 야곱은 꿈에 그리던 부모님을 만났습

니다. 그는 부모님과 헤어질 때 브엘세바를 떠났고, 다시 만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삭이 헤브론으로 이주한 결과, 야곱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 야곱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창 35:28)에서 우리는 야곱과 이삭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만났을 때의 나이는 대략 108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가 이삭보다 60세가 어린 것을 고려할 때, 야곱이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은 약 168세였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는 점(창 47:9)과 요셉의 나이가 39세였다는 사실(창 41:46)과 연결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17세였고(창 37:2), 그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을 때는 총리가 된 지 22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의 나이인 130세에서 22년을 빼면, 야곱이 이삭을 만났을 때의 나이는 약 108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 관계와 나이 계산을 통해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삶의 관계와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을 만나는 기쁨,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가족과의 유대는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사랑과 이해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6장 =====

[창 36: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 36:2]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
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
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창세기에 세 차례 등장하는 아내들에
대한 기록 속에서 이름과 혈통, 족속이 서로
다르게 언급됩니다. 이로 인해 성경을 읽는 독
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깊이 살펴보면 이 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
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서의 첫 결혼이 언
급됩니다.

“[창 26: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
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
내로 취하였더니”

에서가 택한 첫 아내들은 헷 족속 여인들이었
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꺼려했던 결혼 방식이
었습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서 신부를 맞이하
길 바랐던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저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겨줍니다.

“[창 26: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선택은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무시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인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후 에서는 자신의 결혼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음을 눈치채고,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합니다.

“[창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는 야곱이 바탄아람으로 떠나는 모습을 본 후, 자신도 뭔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겠다는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신앙의 외형을 흉내 내는 데 그칩니다. 그의 동기는 종교적 회복이 아니라, 부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감정적 시도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흉내 내는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은 흉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만 맞추며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에서의 이 결혼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창 36:2]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으니 곧 헛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이요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창 36:3]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앞선 본문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딧과 바스맛, 마할랏이 아닌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인물들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된 것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 결혼 전과 후의 이름이 달랐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한 사람에게 본명 외에도 별명이나 다른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 셋째, 동명이인이 있었거나, 이름이 당시 문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에서에게 아내가 세 명 있었으며, 그 중 두 명은 가나안 이방 여인, 한 명은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으나 언약의 계승

자 계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에서가 믿음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 받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조차 신앙 안에서 결정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감정적인 반응, 체면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의 회복입니다. 에서는 그럴 기회를 스스로 놓쳤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창 36: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창 36: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창 36: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창 36: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

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창 36: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 36: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창 36:9]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 36:10]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창 36: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창 36: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창 36:13]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창 36:14]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창 36:15]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
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창 36: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
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창 36:17]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
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
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창 36:18]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
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창 36:19]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창 36:20]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
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창 36: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
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
장들이요

[창 36:22]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
의 누이 딘나요

[창 36:23]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
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창 36:24]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창 36:25]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
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창 36:26] 디손의 자녀는 험단과 에스반과 이
드란과 그란이요

[창 36:27]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
간이요

[창 36:28]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창 36:29]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
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창 36: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
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창 36:31]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
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
라

[창 36:32]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창 36:33]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창 36:34] 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
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창 36:35]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
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윳이며

[창 36:36]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창 36:37]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창 36:38]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창 36:39]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창 36:40]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덫 족장,

[창 36:41]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창 36: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밍살 족장,

이삭이 죽은 후, 야곱과 에서는 처음에는 함께 거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형제로서의 유대감과 평화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고, 과거 야곱이 도망가던 시절의 긴장감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결국 각각의 거처를 따로 정해 살게 됩니다. 이는 형제 간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 36: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창 36:7] 그 형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흩어지게 된 사건을 기억해본다면, 그 이유는 종들끼리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 그런 갈등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분리는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각자의 복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가 과거의 앙금과 긴장을 넘어서, 형제 간에 우애와 존중을 회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훗날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점점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민 20:18] 에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 할 때, 에돔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형제 민족 간의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돔은 다윗 시대에 정복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갈등은 구약 전체를 통해 반복되며,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교만과 형제를 향한 적대감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정신과 유산이 공동체에 어떻게 계승되느냐에 따라 역사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갈등을 해소했지만, 그 화해의 정신이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깊은 민족적 반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한 세대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의 관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분리는 더 큰 다툼 없이 부드럽게 이루어졌지만, 그 정신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뿌리는 적대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 36: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민

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 36: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 36:9]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는 세일 산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 이더라”

성경은 에서의 후손을 명확히 ‘에돔 족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 하나의 민족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후손에게도 땅을 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열왕들이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 36:31]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더라”

이 구절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있음에도, 에서를 멸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한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보여주는 강력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영적 장자의 자리를 상실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쳤거나, 신앙의 실수로 인해 중심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함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야곱과 달리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에돔이라는 한 민족의 시조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만의 것이 아니라, 에서

에게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영역에서 ‘놓쳐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실조차 새로운 형태의 섭리로 바꾸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놓쳤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소망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

[창 37: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
은 그의 나이 열일곱 살 무렵입니다. 그는 아
직 어리고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
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
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등장하는 한 장면
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에서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즉
단, 납달리, 갓, 아셀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과는 어머니가 다른, 일종의 이복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중, 요셉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발합니다.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보고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더라"는 표현은 주어가 요셉임을 강조하며, 요셉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의 감독자로 세워 보고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게 처신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요셉 스스로 형제들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일러바친 것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요셉의 나이를 '소년', '십칠 세'로 강조하며, 그의 미성숙함과 판단력 부족을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후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암시합니다.

“[창 37: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고한 것, 꿈 이야기를 반복한 것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헤아리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교만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자란 영향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그 시작은 미숙하고 서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자질’ 같은 행동은 결과적으로 형제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말 한 마디가, 앞으로 이어질 긴 고난과 연단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

하는 것이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하되, 그 말이 상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신앙공동체나 가족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도 처음부터 준비된 자가 아니라, 연단과 실패를 통해 길러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미성숙하고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점점 변화하고 다듬어지는 인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연약함조차도 그를 훈련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때로 말실수를 하고,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며,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수 안에서 교훈을 주시며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첫 걸음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거쳐 그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할 자로 세우십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긴장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채색옷이라는 눈에 띄는 상징은, 단지 예쁜 옷이 아니라 가문의 대표, 혹은 장자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 외적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독차지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꾸는 꿈을 형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한 것으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점점 더 깊은 골이 생겨나게 됩니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은 명확한 상징을 담고 있었고, 형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창 37:8]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형들의 눈에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고, 스스로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비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 꿈을 나누었고, 그로 인해 형들의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창 37:9]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엔 단지 형제들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꿈에 포함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창 37:10] 내가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겉으로는 책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꿈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짧은 문장은 야곱이 꿈을 단지 허황된 말로 흘려보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그 꿈을 나누는 방식과 타이밍, 상대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함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더 악화시켰고, 요셉이 팔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어떻게 다루고, 언제 말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비전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도 미성숙한 자에게는 위험한 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자에게는 하늘의 권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요셉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꿈

을 품었기에, 먼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의 교만을 깎고, 말의 지혜를 배우게 하며, 관계 속에서 책임감과 섬김을 훈련시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높이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손 안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창 37: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씨름한 경험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압복 강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름까지 바뀌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야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녀를 대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편애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렸고, 그 결과는 형제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창 37:3]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함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음이라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 37: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하며 채색옷을 입히고, 유독 그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선물이나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장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 원하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외면당했고, 그들 사이에 억눌린 분노와 질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 미움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형제 간의 파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

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연단 받았고,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대할 때, 그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렸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매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일, 가족 안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자녀 교육 앞에서는 인간적인 감정과 편애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대로 흐르고 있는가?’

야곱의 편애는 결국 요셉만이 아닌 모든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가정 전체에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형들은 죄책감 속에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만나게 되며, 야곱 역시 늦게나마 가족 전체를 다시 끌어안는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 안심하기보다, 매 순간 가정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 37: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 37: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 37: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있었지만, 그의 성격과 태도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유독 사랑을 받았고, 채색옷을 입은 특권적 자녀로 자라나며 자신의 위치와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조차도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점점 더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 꿈을 들으시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대화는 단순히 꿈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들보다 위에 서게 될 운명임을 알리는 발표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 꿈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렴풋이 감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꿈을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 명의 형들이 이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제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생겨 있었는지를 알면서도, 아무런 여과 없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창 37:8]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이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두 번째 꿈을 또 말합니다.

”[창 37:9]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 37:10] 그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쯤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자의 태도와 성숙은 그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주인공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년의 순진함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교만함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때, 그 비전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요셉은 아직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처럼 여겼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나’라는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결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만했던 요셉의 모습조차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빚어가십니다. 그가 형제들의 손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그의 교만을 깎아내고 비전을 품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연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전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보다 듣는 법을 먼저 가르치시며, 나를 드러내는 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의 교만은 그의 부족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성숙한 겸손으로 빚어질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 두 번째 꿈, 곧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처음엔 다소 충격적인 반

응을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모두 그에게 절한다는 상징은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 37:10] 그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요셉을 책망했지만, 동시에 그 꿈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꿈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고,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때 쓰인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사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성적으로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단지 자식의 허황된 꿈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의미가 있음을 직감하고, 그 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야곱의 신앙적인 민감함과 분별을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꿈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베엘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요셉의 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방식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말이나 비전, 신앙적 감동에 대해 부모로서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사마르>-주의 깊게 지켜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성숙한 자가 아닌, 어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그들의 입술에서 시작된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펼쳐가십니다.

야곱은 그 순간엔 몰랐지만, 나중에 요셉이 야곱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이 그의 앞에 절하며 구원을 얻게 될 때, 그가 간직해 두었던 그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이 완성되지 않은 예언처럼 들릴지라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사마르>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창 37: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은 세겜에서 끔찍한 죄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딸 디나의 사건 이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약탈했던 그 일은 야곱 가문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요, 두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모두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겜 성 주변 족속들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겜에서 베엘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모두 내어놓게 했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건을 감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죄악과 우상을 끊어내는 영적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야곱은 자신이 거처를 옮겨 정착한 헤브론에서 다시 양떼를 세겜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는 그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교차한 장소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겜 주변 족속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진멸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장소였음에도, 야곱은 그 땅을 다시 찾습니다. 더군다나 세겜은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단지 방목지로서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그곳까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세겜이 더 친숙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양떼를 쳤던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겜에서 벰엘로 옮기신 이유는 그의 인생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영적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음을 그는 잊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가능성은, 야곱의 자녀들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예전에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던 우상 신상이나 귀고리를 다시 찾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쉽게 망각하며, 과거의 죄와 우상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선 떠나게 하셨다면,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끊어내야 할 죄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고, 예전이 더 편했고 익숙했다는 이유로, 다시 죄의 땅을 찾고,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세겜에서 떠났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베엘로 이끄셨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과거로, 다시 죄의 뿌리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는 인간의 본성과, 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뼈아프게 배워야 합니다. 회개란 단지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리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든 마음과 습관과 생각을 오늘 우리는 다시 멈춰 서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죄의 반복이며, 영적 미끄러짐이기 때문입니다.

[창 37: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은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그 이유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이라는 감정적 배경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을 수고했고, 결국 라헬은 베나민을 낳고 죽습니다. 요셉은 그런 라헬의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였기에, 야곱에게 있어 더없이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행위는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채색옷은 귀족 계층이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는 복장이었고, 가정 내에서라면 장자에게 물려주는 리더십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르우벤도, 유다도 아닌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장자처럼 대했고,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노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형제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음에도 ‘형제’가 아닌 ‘감시자’로서 존재했고, 이는 이미 형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고, 그런 가운데 굳은 꿈을 여과 없이 말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굳은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꿈을 전하는 방식은 지혜롭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 37:8]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

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두 번째 꿈까지 말하며 아버지까지 포함한 상징을 더합니다.

“[창 37:9]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 37:10] 그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요셉을 책망했지만, 꿈의 내용을 마음 속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사마르>는 단지 기억한다는 의미를 넘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감시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단지 허황된 환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사랑했지만, 다른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롭지 못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균형한 감정과 역할을 만든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으러 먼 세검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팔리는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맡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사랑은 결코 차별이나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도자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진리를 잊을 때, 그 사랑은 도리어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않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은 감정적 편애였습니다. 그 결과는 요셉에게도, 다른 아들에게도, 그리고 결국 야곱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요셉을 높이시지만, 우리는 이 이야

기를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분별 없는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
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비
극은 어쩌면 요셉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아버
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창 37: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
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창 37: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
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
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창 37: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
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
쳐 주소서

[창 37: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
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은 그날, 어린 몸으로 먼 길을 홀로 떠났
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그

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거리였습니다. 열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100km가 넘는 여정을 걸어서 가야했다는 것은, 단순한 심부름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형제의 환영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죽음의 계략이었습니다.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형제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얼마나 미움이 깊었으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서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교만했고 미운 구석이 있었을지라도, 한 집에서 함께 자란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인간적인 감정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분노와 악의였습니다. 불현듯 떠오릅니다. 세겜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피 묻은 기억이, 지금 또다시 그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에 익숙해진 심령,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

은 영혼은 형제의 생명조차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데에 반대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일을 피하자고 말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말은 덜 잔인해 보이지만, 물도 음식도 없는 빈 구덩이에 사람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생명을 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죄악이었습니다.

“[창 37: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들이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구덩이에 던졌다는 사실, 그 모든 상황이 열일곱 살 소년의 마음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장면은, 형들이 그 구덩이 곁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창 37: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발 아래에서 조롱하며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죽음을 눈앞에 둔 채 구덩이 안에 갇혀 있었고, 형들은 그 곁에서 식사를 하며 요셉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무정함이 이보다 더 차갑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한 줄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갑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무역 상인들이 그 길로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히 요셉이 갇힌 구덩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이자 ‘미디안 사람’으로 혼용되어 표현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미디안은 그두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에

서와 이스마엘, 미디안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서로 인접하며 살았고, 이들이 함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의 시작점에서 요셉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 37: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 다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 37: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창 37: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

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
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라

[창 37: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
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창 37: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
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 37: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
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
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창 37: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
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창 37: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
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
이 청종하였더라

[창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
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
로 갔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은 이십 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경제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성인의 노예 몸값은 은 삼십 세겔이었습니다.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지요 소는 도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노예 보상 기준을 말하는 법조항인데, 여기서 은 삼십 세겔은 건장한 남녀 노예의 표준 몸값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보다 한참 어린 17세의 소년이었기에, 형들은 그를 단지 은 이십 세겔, 즉 불완전한 몸값에 넘겨버립니다. 이 행위는 단지 물질적 저평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그저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팔릴 때도 바로 은 삼십 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마 26:15] 가로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요셉은 은 이십 세겔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삼십 세겔에 팔리셨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와 시대의 경제 가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표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숫자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고난을 당했으며, 결국 애굽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팔리셨지만, 결국 죽음을 통해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은 이십 세겔이라는 숫자는 요셉의 어린 나이와 낮은 평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받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학적 표지입니다.

[창 37: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창 37: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 37: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
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창 37: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창 37: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창 37: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 37: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가져와 그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야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뚫려 있었고, 아무리 가족이 위로해도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고 텅 빈 상태였고, 그 어떤 위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창 37:35]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딸이 일

어나서 그를 위로하되 그가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아들을 애도하며 수홀에 이를 때까지 내
려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야곱은 진정
으로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가
득 차 있었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
로하려 해도 그 위로는 그의 깊은 고통을 치
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위
로가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통과 깊은 상처 속에서 주변
의 위로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을 느
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
고, 마음 깊숙이까지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
러나 사람들은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다가가
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요셉의
죽음이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하나님

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시점에서 차갑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유일한 치유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지 순간적인 평안을 넘어서, 지속적인 회복과 힘을 주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위로를 거부하고 거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그만큼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 37: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 그가 애굽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통해 점차 알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기적인 고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에 갇혀 절망하거나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겪은 배신과 억울한 상황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을 넘어, 그를 통해 이루실 더 큰 일을 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계획의 일환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수백 년을 앞서 내다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간 것은 단지 그의 인생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그분의 큰 계획 속에 놓고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위기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과정이었고, 그가 애굽에서 큰 권세를 얻게 된 뒤에는 그의 형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불행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이스라

엘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구원할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한 부분이었으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운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

[창 38: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 나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 유다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독한 상황에서 유다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히라는 아둘람 사람으로,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가나안 성읍입니다. 유다는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 38: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구절에서 보듯이,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 그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슬픔 속에서 유다의 마음은 위로를 찾기 시작하고, 다시금 히라와 함께 딘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를 찾으려 갑니다. 이 장면은 유다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친구인 히라와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과거의 죄악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바로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실상 영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히라라는 친구와의 만남은 그에게 잠시 위로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관계는 그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히라는 그를 향한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니다. 유다는 결국 히라와 함께 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가 영적 여정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다가 히라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진로를 바르게 잡지 못했다면, 그 후의 유다의 선택은 더욱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니다. 유다에게 중요

한 교훈은 어떤 친구,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지느냐가 그의 신앙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가까워진 결과, 유다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 38: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사랑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그가 가족을 떠나서 외부 세계와 섞여 살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

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 그들의 악한 습관과 우상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족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졌고, 그 중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혼은 단지 가정적인 이유나 사회적 관습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서 유다는 점점 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는 단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방침을 따르지 않았

고, 가난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타협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선택이 결국 영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포함한 삶의 모든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영적 순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창 38: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

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창 38: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창 38: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 38: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 38: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갑자기 죽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매우 간결하게 설명됩니다.

“[창 38:7]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구절은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간단하지만 심각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저지른 죄를 명시하지 않지만, 그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엘의 죄는 우상 숭배나 심각한 음란 행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의 동생 오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죄가 "땅에 설정하여" 씨를 얻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오난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창 38:9] 오난은 알았다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음을, 그래서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그를 죽이셨더라"

이 구절을 통해, 오난은 형의 자녀를 낳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엘과 오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각했

던 만큼 하나님은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셨고, 그 사건은 유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셋째 아들이 동일한 운명을 맞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깊이 생각하며, 자녀를 신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창 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장자 엘의 죽음 후, 며느리인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수혼제도는 형제가 죽고 자식이 없으면, 형의 아내는 형제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죽은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유다는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 25: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 25: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수혼제도를 설명하며, 형제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마련하셨고, 이는 신앙적, 사회적 의무로서 가족과 후손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제도를 가족 내에서 실천하려 했고, 오난에게 이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 씨를 이을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형의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이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오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게 됩니다.

“[창 38:10] 그 일이 여호와께 악하게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더라”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부한 중대한 죄였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 한 오난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수혼제도는 단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가문의 후손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난은 단순히 형수와의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그 뜻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악하게 보셨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지만, 그 뜻을 거부할 때에는 심판이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후손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강조됩니다. 오난의 행동은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 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창 38: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창 38: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

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
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명하였
습니다. 이때 사용된 '수절하다'의 히브리어 단
어 <알마다>는 '묶어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과부로 지내다'는 의미
가 파생되었으며, 다말에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
에게 그녀가 막내아들 셀라와 결혼하는 것을
기다리게 했으며,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말에게 돌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창 38:11] 유다가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그를 친정
으로 보내었더라"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다말에게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막내아들 셀라의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는 말
로 다말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습
니다. 결국,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유다 집안에서 그녀와의 관계는 끊어진 듯 보
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인생은 단지 유다의

집안에서 버림받은 과부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계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말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유다의 대를 이을 후손을 허락하시며,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올 다윗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연결되며,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 가장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다윗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다말은 당시의 사회에서 낮고 불쌍한 여인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마 1:3]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고”

이 구절은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며, 유다와 다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다말은 유다의 부정과 부끄러움 속에서 외면받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그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말의 고통과 외면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 38: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애통하는 기간이 지난 후,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를 만났습니다. 유다는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기분 전환

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그 때는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축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창 38: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는 딘나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면서 기분을 전환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분 전환이 유다의 자제력과 이성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몸을 창녀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기분 전환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분 전환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자아를 잃게 만들고, 결국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다는 그 당시 자신의 슬픔을 달래려 했지만,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영적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채

우기 위해 쉽게 쾌락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분의 뜻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 38: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딘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창 38: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딘나 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 유다가 딘나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말은 매우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로부터 자녀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과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과부는 그의 삶에 과부복장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구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부를 표할 수 있는 복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부의 복장을 벗은 다말은 창녀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먼저 면박(베일)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복장이 창녀를 표현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 복장을 하는 여인은 의례적으로 창녀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말이 이처럼 매우 극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으로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가져야만 여인으로서는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누리게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두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여야 했던 다말로서는 이런 극악한 계획이라도 해야 놀림받은 상함심령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말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참된 해결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수치와 상처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계획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해결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고통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수치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 38:15]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 38: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창 38:17]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창 38: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 38: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창 38:20]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

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
인을 찾지 못한지라

예나 지금이나 창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창녀를 이
용하는 값은 염소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유다
가 나중에 염소새끼를 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그 약조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었
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도장을 가지고 다녔
습니다. 손가락에 끼는 도장이나 목에 걸고 다
녔습니다.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
다. 유다는 목에 걸고 다녔기 때문에 도장과
그 끈을 준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
니다. 이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
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매
우 중요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행동은 인간적
인 유혹과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떤 잘못
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이 어
떻게 중요한 증거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지
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 38:21] 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
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 38: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
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곳 사람도 이르기
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창 38:23]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다말과 함께 한 이후에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주기 위해 다말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딘나의 사람들에게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여기는 창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언급한 창녀는 <자나>의 원어를 가진 창녀였지만, 딘나 사람들이 언급한 창녀는 <케데사>의 원어를 가진 창녀였습니다.

<자나>의 원어를 가진 창녀는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케데샤>의 원어를 가진 창녀는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우상 아스다롯(Astaroth)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는 생식력을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여러 창녀를 두고 음행한 짓을 행했는데, 짐나 사람들이 바로 그 <케데샤> 창녀를 생각하면서 유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은 이처럼 음란이 문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섬김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도덕적 부패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동이 결합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는 그만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구원이 임합니다.

[창 38:24]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창 38:25]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다말이 유다로 인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 사실이 유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명령은 너무 심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신 22:20-24).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장모와 딸을 함께 취하는 자에게 화형이 행해졌습니다.

”[레 20:14]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에도 화형이 행해졌습니다.

“[레 21:9]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과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다말이 죽게 되면 자신의 막내 아들은 죽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알팍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과 후손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뵈의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혼란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 38: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 38: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다말은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유다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보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다말의 씨의 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창 38:26]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말에게서 다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의 교활한 마음을 알아차리고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은 자신의 잃었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어떻게 사람의 계산과 의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다말을 처벌하려 했지만, 다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지혜를 통해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에게 정직과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 38: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다말이 해산할 때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산파가 처음 손이 나온 아이에게 홍사를 그 손에 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누가

장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후계자로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역할이 단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역할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창 38:29]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창 38:30]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지만 둘째 아이가 먼저 태를 터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리었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터치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베레스를 통해 다윗왕이 태어났으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영적 계보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이 이스라엘 12 아들 중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음란한 행위로 인해 장자 상속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적 장자로 삼으셨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 그 장자 상속권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말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여인으로서 유다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 엘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친정집으로 쫓김까지 당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이처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축복을 주시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 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제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보디발과 요셉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여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창 39: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 그의 앞에 선지라 그가 그를 자기 집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고 그를 자신의 집안의 관리자로 삼은 것입니다. 요셉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전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으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직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형통하게 되었고,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그의 삶 속에서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뤄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창 39: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는 단연코 미남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라헬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아 뛰어

난 외모를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준수하다'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아페>는 요셉이 지닌 아름다움을 잘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건물이나 사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의 외모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페'라는 표현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 또한 미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움 때문인지 그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상 17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상 17: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씀은 다윗이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낮춰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다윗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외모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주목을 끌게 합니다. 그러나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면의 품성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윗을 통해 외모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강하고 아름답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39: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창 39: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에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라는 표현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후 대략 10년 정도 지나 그의 나이가 27세쯤 되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요셉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해 보였을까요. 그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은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유혹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짓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요염한 시선과 제스처를 사용하여 그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셉에게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그러한 인생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의 대처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교육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유혹에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걷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유혹을 마주칠 수 있으며,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각자의 신앙과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 39: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 39: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만

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대신으로서 바로왕과의 신의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이 겪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면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한 환경에서도 요셉이 원칙과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때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의지를 다지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깊이가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심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성장과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

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신의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 39: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집안의 모든 제반사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요셉에게 상당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항상 군사와 하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경계심을 늦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순간의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 틈을 노립니다. 요셉에게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심코 순간의 판단으로 큰 실수를 저지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항상 살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그

분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 39: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창 39: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창 39: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창 39: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창 39: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창 39: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창 39: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창 39: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가 원하던 대로 흘
러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도망친 것은 올
바른 선택이었지만, 왜 그가 더 일찍 행동하
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
부터 일어나서 도망쳤다면 큰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귀가 차려놓은 함
정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결국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일상 속에서 마귀가 준비한 함정에 빠
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험에 처
하고 난 후에야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를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사후 악방문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조심
하며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다양한 유혹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유혹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차려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증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히 바로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가둬놓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잘못 고발한 결과로 이곳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단순한 곳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이 얽힌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렸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요셉의 인생에서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자신의 무고함과 상관없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매우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겪는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 39: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창 39: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수감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밝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감옥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전옥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전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식하지 않고 감옥 탈출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

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위해서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으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처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

[창 40: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창 40: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창 40: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창 40: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두 관원이 범죄로 인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관원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요셉이 예전에 그의 가정총무로 일했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이 부당하게 처벌받은 것에 대한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두 관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말해주고 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이라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인할 기회를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신뢰와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겪는 난관들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셔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 40: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창 40: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창 40: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창 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 40: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창 40: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창 40: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창 40: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창 40: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창 40: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창 40: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각각의 꿈을 꿔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각각 달랐고,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을 성실하게 섬기며 신경을 쓰았고, 그들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40:6]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대답을 들으니, 그들의 마음에 큰 걱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관원은 꿈을 꿔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꿈 해석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요셉에게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두 관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 40:8]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이까?"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관원들이 요셉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땅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만큼 그들에게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두 관원의 꿈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가 세 가지 가지를 내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창 40: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요셉은 여기서 '세 가지'를 '사흘'로 해석하며

꿈 속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냈습니다. 꿈 속의 상징은 매우 중요하며, 요셉은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며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요셉은 술 많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요셉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모든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품성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복직을 위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원들을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런 마음의 자세를 통해 우리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창 40:16] 떡 굶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창 40: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창 40: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창 40: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

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창 40: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창 40: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창 40: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창 40: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꿈은 흰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 음식은 새들이 먹고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던 것처럼 보였을 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이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을 상징하며, 사흘 후에는 그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새들이

그의 시신을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불행히도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사흘 후에 있었음을 요셉이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해석은 그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다면, 결코 그렇게 과감하게 부정적인 해석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는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진실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

를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주
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진리
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자의 흐름

* 끊어진 장자상속권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
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첫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육신의 장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그가 죽
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성적 타락때문에 아버지 야곱
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르우벤의 성적타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
니다.

"[창 35: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
라"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죽
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
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
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
다마는 [창 49: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
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 르우벤은 육신의 장자 상속권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르
우벤이 가졌던 장자 상속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 메시아를 낳는 장자

르우เบน의 성적타락으로 인해 장자상속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네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 29:35)고 고백합니다. 첫번째 아들 르우เบน부터 세번째 아들 레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적인 정욕과 질투와 싸움의 연속이었다면 네번째 아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네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의 레아는 더 이상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를 낳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한 그의 축복에 "[창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며 유다가 왕권을 부여받을 자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왕이 태어났으며 다윗왕의 혈통은 예수님게로 이어졌습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 영적인 장자

역대상 5장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대상 5: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대상 5: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찌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의 저자는 욕신의 장자인 르우벤이 성적타락으로 말미암아 장자상속권을 박탈당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건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낳을찌라도"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통한 다윗왕의 왕권 상속권이 유다에게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장자 상속권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자손이 실질적인 장자상속을 얻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집어 넣습니다. 요셉의 한 이름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지파는 영적인 지파였으므로 저들은 오직 성막예법을 준수하며 살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수 14:4]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것이 모세때의 구성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자면, 요셉의 이름이 빠진 지파는 11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이름이 합쳐지니 13지파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레위지파가 구별된 지파로 떨어져 나오니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 13지파가 지금은 오직 한 지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와 함께 있었으나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에 합류되어서 결국은 유다지파만 남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천국에서 이뤄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144000명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7:4]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이스라엘의 영적 부활인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강력하게 역설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롬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스가랴 선지자도 말일에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 10: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역대상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에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의 12지파가 언급됩니다.

"[계 7:5]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낏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 지파'가 그곳에서 제외되었고 그

곳에 '레위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지파는 므낫세지파와 더불어 두 개의 지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에브라임지파였지만 천국에서는 그 에브라임지파가 요셉지파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요셉지파가 참가되었을지라도 므낫세 지파는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 요셉지파가 두 지파나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셉지파가 천국지파에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천국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국 체제는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을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그 천국 위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세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런데 그 진주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

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또한 12개의 진주문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 천국은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천국은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거룩한 성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세상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12지파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영적인 해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스라엘 자손인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에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

[창 41: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즉 자
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창 41: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창 41: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창 41: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창 41: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창 41:6]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창 41: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
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깰즉 꿈이라

[창 41: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
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
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
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 41: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창 41: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에

[창 41: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족 각
기 뜻이 있는 꿈이라

[창 41: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
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
람에게 해석하더니

[창 41: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
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
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를 먹는 꿈이었습니
다(창 41:2-4).

바로왕은 이 꿈의 의미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잠에 들어 또 다른 꿈을 꾸
게 되었는데, 이번 꿈에서는 무성하고 풍성한
일곱 이삭이 나고 그 이후에 가늘고 마른 일
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
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에게 심각
한 불안을 안겼습니다. 성경에는

“[창 41: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술객과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해석은 바로왕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당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받고, 그 해석대로 복직하게 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기억이 그를 다시 요셉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술객들과 박사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왕이 그들의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해석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 41:37]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고 기록된 것처럼, 요셉의 해석은 바로왕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고, 그는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창 41: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창 41: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있어 정말 오

랜만에 외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창 41: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17세일 때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하는 동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던 시기가 대략 27세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감옥에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가 감옥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였고, 후방에서 벗어난 요셉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의 아들이로서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만남인 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에 응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도전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 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창 41: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창 41:19]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

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창 41:20]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
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창 41:21]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창 41: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
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창 41:23]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
곱 이삭이 나더니
[창 41:24]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
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1:16] ...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
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담대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을 압도하는 듯한 용기 있는 태도를 보
였고, 감히 바로왕을 쳐다보기도 힘든 대신들
앞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
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을 비롯하여 강과 생물들까지 다양한 우상들이 숭배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상 애굽은 '우상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신교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훗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파괴를 상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 첫 번째로 들려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은 과연 이 낯선 '하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처음 듣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 불신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뛰어난 신들을 제치고,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수 있을지 의문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왕의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

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왕의 꿈 또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았을 것이며, 바로왕 앞에 설 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와 유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지시에 따라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단 4: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그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

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 41:2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 41:26]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창 41: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창 41:28]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 41: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창 41: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창 41: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해

석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1:25] ...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는 꿈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이 각각 일곱 해를 나타내며, 두 꿈이 같은 메시지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와 마른 일곱 이삭도 역시 일곱 해를 의미하며, 이는 흉년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즉시 해석한 것과 유사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듣자마자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감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꿈 해석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믿고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요셉은 매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바탕으로 바로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자신의 지혜만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상의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창 41: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창 41: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왕은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1: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이 말로 꿈 해석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꿈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세상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요셉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해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창 41: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창 41:35]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창 41: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단순히 꿈 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 꿈

이 실현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감독관을 두어 7년의 풍년 동안 땅의 1/5을 거두고, 그 시기에 수확한 모든 곡물을 각 성읍에 쌓아두도록 권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계획이 실행되면 후속으로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전하는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따른 경우에는 개인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영감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 서로 뒤섞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전하는 요셉의 자세는 그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창 41: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창 41: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서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을 또 다른 신으로 여겼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 속에서도 많은 술객과 박사들을 제치고, 하찮은 가나안

출신의 청년인 요셉의 해석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해석을 좋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해석이 매우 정확하고 시의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가져올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제안은 애굽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었고, 이는 왕과 신하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과 행동을 알게 하신 것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겸손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통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을 사용하시어 큰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신뢰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 41: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 41:40]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창 41: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어떻게 단 한 번의 꿈 해석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은 요셉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래서 그를 총리대신으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41: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바로왕이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에, 바로왕은 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무도 당신을 예전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 41: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창 41: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왕은 요셉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요셉이 단순한 노예가 아닌, 특별한 인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자리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곧 왕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특별한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요셉이 왕의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요셉을 애굽의 귀족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목에 걸어준 금사슬은 그가 귀족의 상징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은 요셉 앞에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단순히 노예에서 총리대신으로 올라서는 기적적인 경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애굽과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은 그의 성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계획을 믿고, 그 길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창 41: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창 41: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
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
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창 41: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창 41: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창 41: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
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창 41: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
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
이었더라

바로왕은 요셉의 이름을 애굽 이름으로 개명
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으
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
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왕은 요셉을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요
셉이 애굽의 명문 가문에 속하게 하려는 의도
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제사장은 태

양신 '라(Ra)'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계층으로, 그 사회에서 제사장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연합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12개의 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주마다 나름의 행정법과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모든 주를 아무런 제재 없이 총괄하며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성품이 단련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 41: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창 41: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창 41: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므낫세였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얻게 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지파로 자리잡게 되었고, 요셉의 이름은 이들로 인해 계속해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시킨 것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를 단련시키셨고, 결국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그의 후손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 41: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창 41: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창 41:55]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창 41: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창 41: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 당시의 기근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 근처의 모든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가뭄이 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은 농작물의 풍족함을 가져다주며 애굽을 비옥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애굽 땅에 7년의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근은 요셉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 대비를 위해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

놓았고, 이 덕분에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찾아온 7년의 기근은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이로써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인연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활 속의 고난이 새로운 만남과 회복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작용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2장 =====

[창 42:1]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창 42: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준비한 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

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믿음을 일깨워 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창 42:3]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창 42:4]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나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 더라

야곱은 요셉의 죽음 이후에 베나민을 매우 끔찍이 아끼며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 베나민마저 잃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베나민은 요셉과 함께 라헬의 아들이므로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무척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이 죽은 이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베나민에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식들을 보냈을 때, 베나민은 함께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요셉을 잃고 나서 베나민에게 쏟는 모든 사랑과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나민이 떠나면 또 다른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강한 보호 본능은 그가 겪은 고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나민을 보호하려는 야곱의 노력이 때로는 그가 해야 할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과하거나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도한 염려가 때로는 필요한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보호가 그리움과 걱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창 42: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창 42: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 42: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창 42:8]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어릴 적 꿈이 실제로 이뤄진 순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서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사건은 요셉에게 큰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들에게서 배신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 꿈의 선언과 함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은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그들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이끌어가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그의 뜻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42: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 42: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창 42: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창 42: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창 42:13]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창 42: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창 42: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창 42: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창 42: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대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은 요셉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 다시 한 번 그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라면,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곤경에 빠뜨리며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정말로 놀라운 지혜의 발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지혜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 42: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창 42: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창 42: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창 42: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 42: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고도다 하니

[창 42: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창 42: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창 42: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낸 후 결국 형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다가올 때에는 여러 감정이 얹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살펴 보며 형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쉽게 포착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 42: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

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형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제안은 형들은 이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 42: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창 42: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만 옥에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내 아

우인 베나민을 데려오라는 요청은, 형들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들의 마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형들은 서로의 대화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창 42: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비정한 행동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버린 일은 그들의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그들은 그 일이 자신들에게 돌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르우벤은 이를 지적하며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 42:22]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는 자신이 그 당시의 상황을 경고했음을 상기시키며, 동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들 사이에서 깊은 반성과 후회를 이끌어 냅니다.

형들이 통역을 통해 서로의 대화를 나누는데,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 42: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그들의 진솔한 후회와 반성을 듣고, 감정적으로 깊이 흔들립니다. 그는 형들을 떠나가서 울고,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창 42: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창 42: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

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다시 돌아와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여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면서, 동시에 곡물과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회상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괴로움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두고 사망의 샅을 지불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주 심어지는 유혹을 통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일단 죄를 짓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끌고 갑니다.

이런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が必要です. 회개란 단순히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애통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백 후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입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덜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가 필수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 42: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창 42: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창 42: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창 42: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창 42:30]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창 42:31]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창 42: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창 42:33]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창 42:34]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 하고

[창 42:35]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창 42:36]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형들 몰래 곡식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발견한 형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곡식을 구매한 후, 자신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 사실을 지적하면, 그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시므온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들 사이에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 말은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깊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온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다를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합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종종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기회가 되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오는 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창 42:37]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창 42:38]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보고했을 때, 야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고, 더 나아가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니, 그에게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슬픈 모습 앞에서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자라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 맡기면서, 자신이 꼭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의 강한 의지와 결단은 아버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나민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은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슬픈 심정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야곱이 겪고 있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슬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때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마음
이 우리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
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에서 느
끼는 두려움과,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
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
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롭게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

[창 43:1]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창 43:2]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창 43: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 43:4]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창 43: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창 43:6]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창 43:7]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

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 이까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아들 베나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나민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었기에, 야곱은 형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42:5] ...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지만, 그가 바로 요셉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에만 집중하게 되어 영적인 지혜와 인식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17세 때 헤어졌던 동

생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당장의 생존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에 국한되다 보니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산다면 금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도 같은 원리입니다. 며칠만 환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시각이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의 관계를 깊이 있다고 의식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창 43: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창 43:9]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 43: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이 베나민을 보내지 않고 지체하였습니다. 유다 말에 의하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창 43:10)라고 했으니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 지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손주들과 가족들이 힘이 들었을 텐데 베나민을 지키기 위해 지체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의 걱정보다는 라헬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살아남아 베나민에게 그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인해 그를 보내는 것을 미루었고, 그 결과 가족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미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맡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창 43: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

매와 감복송아이니라

[창 43: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창 43: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창 43: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나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나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창 43: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 앞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너희 형제를 돌려보내고 너희가 또 다른 형제를 데려오게 하시기를 원하

노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더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피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창 43: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

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나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창 43:16] 요셉은 베나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창 43:17]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창 43:18]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창 43:19]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창 43:20]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창 43:21]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창 43:22]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베나민을 잊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베나민을 보고 즉시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처럼 형들이 걱정하는 모습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끔찍한 선택을 한 탓에, 그들은 요셉의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대신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찮은 일을 계획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참으로 낮은 자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요셉의 선한 의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는 더 큰 힘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누립니다.

이처럼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창 43: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창 43:24]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

이를 주더라

[창 43:25]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창 43: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창 43: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창 43: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창 43: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나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용한 위로의 방법은 인간적이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에 대한 신뢰를 되살려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향으로 위로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찾게 됩니다. 친구의 위로나 사회적 인정,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위로는 종종 불안한 마음을 제대로 달래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감싸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깊고 지속적이며, 우리는 그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를 경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어

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 43: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 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 43: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 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창 43: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창 43: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창 43: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나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참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 그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품지 않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요셉은 정말로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용서함으로써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었고, 그가 가진 사랑은 원수를 넘어서 더욱 깊은 이해와 동정의 마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과 같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상처를 기억하지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형

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심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용서를 부르시며, 그를 통해 우리 삶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44장 =====

[창 44:1]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창 44: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창 44: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창 44: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창 44: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창 44: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창 44: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창 44: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창 44:9]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창 44: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창 44: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창 44: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나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창 44: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창 44: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른 아침, 요셉은 형제들이 떠날 때 일부러 베나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은잔은 점을 칠 때 사용되던 도구로, 애굽의 주술가들이 이를 이용하여 물이나 술을 담고 점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은잔을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대신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뒤 따라 가서 그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청지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 44:4]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청지기는 형제들의 짐을 뒤지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미리 계획해 놓은 일로, 형제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창 44:8]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들은 자신의 의무와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한 사람씩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끝에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요셉의 거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보인 모습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의 결과였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며, 이렇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는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창 44: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창 44: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
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
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창 44: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
로 올라갈 것이니라

[창 44: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
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
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창 44: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
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
시기에

[창 44: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
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
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창 44: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창 44: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
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창 44: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창 44: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창 44: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창 44: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창 44: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창 44: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창 44: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창 44: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

게 가지 아니하면

[창 44: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창 44: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창 44: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음으로써 형제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끌려오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 44:15]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형제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

셉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형제들이 여전히 그들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 중 유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전체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창 44:16]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나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결정은 형제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붙잡힌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다시 잃어버린 상황에 아버지가 얼마나 큰 슬픔을 겪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고, 한 아들은 죽었으며, 남은 막내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밝혔습

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 44: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 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로 남기를 자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책임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와 동생을 먼저 생각하며,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족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창 44: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

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애굽의 총리대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친 대가는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잔을 넣은 후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결정한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정직함을 알려주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가 담대하게 요셉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베냐민을 구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의 담대한 태도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연합을 넘어, 더 큰 책임을 깨닫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믿음 있는 행동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행음으로 인해 장자권을 잃었고, 그 권리는 유다에

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은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신뢰와 용서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

[창 45: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창 45: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은 놀라움에 휩싸였고, 과거에 저지른 죄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

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5:5]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러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가족을 구원하려 하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과 같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근심과 한탄으로 가득 차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

상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창 45:10]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창 45: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 45: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나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창 45: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창 45:14] 자기 아우 베나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나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창 45: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제들과 만난 것은 이미 흉년이 2년째 접어든 때였습니다. 앞으로도 5년간의 더 긴 흉년이 예고되었기에,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위해 그의 삶이 준비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창 45:6] 이 땅에는 흉년이 이르러 지금은 이르렀고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이나 그치지 않을 것이니..."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에 그는 이러한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창 41:30] 그러나 그 후에 오는 흉년이 그 모든 일을 잊게 하리니 그 흉년이 심히 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분명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 45: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창 45: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창 45: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창 45: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
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창 45: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창 45: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
고 길 양식을 주며

[창 45: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창 45: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을 실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
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궁
궐까지 전해졌고, 이 소식에 바로왕과 그의 신
복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창 45:16] 바로왕의 곁에 있는 그의 신하들
이 기뻐하며 이르도...”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귀중한 인물인지, 그
기쁨이 왕과 신복들의 기쁨이 되었음을 잘 보
여줍니다.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이처럼 요셉의 기쁨은 그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우리를 감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져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처럼 손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타인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창 45:24]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창 45:24]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그 많은 말 중에서 왜 “싸우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논쟁과 다툼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과거의 죄악을 다시 끄집어내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 37:18] 그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 하여 서로 이르되...”

더 나아가 요셉은 베냐민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준 상황을 자칫 시기심으로 해석할 형제들의 마음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화합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처럼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합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해야 합니다.

[창 45: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창 45: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창 45: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창 45: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온 자식들을 맞이했을

때, 그의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그는 비로소 소생하였습니다.

“[창 45:27]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잠잠하였으니, 이는 그가 요셉이 살아 있는 줄을 믿지 못함이었더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야곱에게는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야곱은 여전히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요셉을 제자로 살리시고 총리대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쁨은 더없이 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뒤,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롬 5:3-4]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까닭이라.”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을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창 46: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46: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 46:3]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

었으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 34:18]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든든한 위로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 46: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창 46: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창 46: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 46:4]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삶에 큰 용기와 확신

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곁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비록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신뢰를 쌓기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창 46:8]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창 46:9] 르우เบน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창 46:10]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창 46:11]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창 46: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창 46:13]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창 46:14]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창 46: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창 46:16]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창 46:17]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창 46:18]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라

[창 46: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창 46:20]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창 46:21]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빔과 빔과 아룟이니

[창 46: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 명이요

[창 46:23] 단의 아들 후심이요

[창 46:24]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창 46:25]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 명이라

[창 46: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창 46:27]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

[창 46: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창 46: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

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창 46: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은 총 70명
이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
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아내들은 제외되었지
만 딸들은 포함되었습니다. 이 작은 숫자로 시
작된 야곱의 가정은, 400년 후에는 얼마나 놀
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출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이 장정의 수만 해도 60만 명에 달했고, 여인
과 어린아이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200만 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약
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창 46: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창 46: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그의 행동에서 친절함과 지혜로움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상세히 알려주며 만약의 실수에 대비했습니다.

“[창 45:17]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짐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당신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요셉의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의 계획과 행동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삶의 여러 도전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도 지혜를 얻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
니다.

[창 46: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
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창 46: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
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
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에서 고센 땅은 풀이 무성한 지역으로, 나
일강의 가장 최상단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가증스
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굽의 식솔들은
고센 땅에서 마음껏 목축업을 할 수 있었습니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식구
와 가축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 46:34] 너희는 이르기를, '당신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기르던 자들이니, 우리가

당신의 종들에게 이 땅 고센에 거주하려 하노라.”

고센 땅의 목축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제공받은 자원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

[창 47: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창 47: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창 47: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창 47: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창 47: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창 47: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였

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왕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게도 바로왕 앞에서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덕분이었지만, 형들은 바로왕에게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접근은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겸비해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쉽게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기쁨을 주는 말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실수를 줄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창 47: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 47: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냐

[창 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 47: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 47: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창 47: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대사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바
로왕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
로 축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사람들을 축복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
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
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
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
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작은 실천이 바로 축복
입니다.

[창 47: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창 47: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창 47: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창 47:16]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창 47:17]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창 47:18]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창 47:19]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

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창 47: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결국 곡식을 사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희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흉년은 해를 거듭해서 지속되었고,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돈으로 곡식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짐승을 팔고 곡식을 사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속되지 못했고, 마침내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곡식을 사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흔히 지켜왔던 것들, 즉 재산과 소중한 자원을 희생

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애쓰며 발버둥쳤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자원이거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잃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교훈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창 47:21]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창 47:22]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다라

[창 47:23]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창 47:24]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창 47:25]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창 47:26]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은 이러한 토지법을 바탕으로 바로왕의 재산을 축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고, 짐승도 처분하고, 결국 자신의 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바로왕에게 감사하며 그의 종이 되겠다고 나

섭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처럼 완벽한 행정을 세울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요셉의 지혜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 지혜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 47: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

하였더라

[창 47:28]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 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창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 47: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 47: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자신의 유골을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가족의 묘지에 묻히겠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야

곶에게 이방나라였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애곶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과 소속은 가나안 땅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곶은 겉으로는 애곶의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곶의 부탁은 단순히 자신의 유골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야곶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48장 =====

[창 48: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창 48: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창 48: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 48: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 48: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창 48: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창 48: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

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12아들처럼 양자로 삼았습니다.

“[창 48:5]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니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이 요셉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이 깃든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육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었으며, 그리하여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지파로 우뚝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창 48: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창 48: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창 48: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창 48: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창 48: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땡에 얹드려 절하고

[창 48: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창 48: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

[창 48: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 48: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창 48: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창 48: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
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 48: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
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
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 48: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
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
시려니와

[창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손자를 축복할 때 특별한 방법을 선택
했습니다. 그는 손을 어긋나게 하여 오른손으
로 에브라임에게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므낫
세에게 향하는 방식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
은 이러한 야곱의 축복 방식이 마땅치 않아
서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
호하게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라고
말하며 요셉의 손을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신 뜻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따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에브라임은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므낫세보다도 더 뛰어난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택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

[창 49: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 49: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창 49: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9:1]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

눈 것과 같이, 야곱 역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 덕분에 야곱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의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단순히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 이러한 축복에 대한 당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가장을 통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나라나 다른 단체는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권세는 가정의 가정과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권세를 활용하는 가장은 자녀를 복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복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목사는 교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창 49: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 49: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창 49:7]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창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행실이 축복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한 일이 있어, 그 사실이 그의 삶에 남긴 영향을 통해 축복의 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창 35:22]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장자가 되긴 했지만, 그의 행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는 세겜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짐승의 발목을 끊어버린 잔혹한 행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악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개인의 삶의 모습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전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행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됩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국에서 입게 되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에 비해 적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몬 지파의 숫자가 가장 적었던 것과 같이,

“[민 26:14]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 된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시몬이 차지한 성읍도 다른 지파에 비해 적었습니다.

더불어, 레위 지파는 본래 영적인 직무를 맡은 지파였지만, 그들도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고, 형제들이 차지한 성읍 중 몇 곳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풍성한 재물이 축복이며, 가족과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레위 지파로 비유되는 영적인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바에 따라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앞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 49: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 49:13]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창 49: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창 49:15]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창 49: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창 49:17] 단은 길썬의 뱀이요 샅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 49: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 49: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창 49: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창 49:21]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창 49: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창 49: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창 49: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
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 49: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 49:27] 베나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
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
누리로다

[창 49: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
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
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
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자녀를 축복할 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축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마음과 목숨
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판단하십
니다.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모두 똑같이 사랑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분께 마음이 닿은 자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 49: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에게 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

사하라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단순히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 속에는 '부여조'라는 말, 즉 '조상'과 함께 묻히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뿌리와 신앙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그를 찾아오셨고, 도와주셨으며,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기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멋진 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있으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느끼며 평안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 49: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
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
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
았으므로

야곱이 자신의 유골을 묻게 해 달라고 요청했
던 곳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급하
게 구입한 땅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창 23:19]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막벨
라 굴을 사서 그의 집이 세워진 땅을 소유하
였느니라."

사라의 죽음 이후,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
족묘가 되었고, 이후 그곳은 야곱과 그의 자녀
들의 유골이 묻히는 성스러운 장소로 자리 잡
았습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
의 개인적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
약, 그리고 그의 조상의 뿌리를 깊이 있게 다

시 한 번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의 가족이 하나로 묶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히 육체적 요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믿었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창 49: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창 49: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치되어 있고,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혀 있으며, 야곱은 나중이라도 그녀의 뼈를 막벨라 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가족묘가 아니라, 하나님

과 함께 하신 위대한 영적 선지자들의 묘로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비록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레아만이 안치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뼈를 막벨라 굴로 옮기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의 뼈를 막벨라 굴에 옮기려는 시도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그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라헬의 시신을 이름 모를 곳에 두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앙과 이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혈통과 전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관계를 단순한 물질적 소유로 규정짓지 않고,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창 49: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질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적들과의 전투에서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참으로 귀한 죽음입니다.

누구나 질병으로 힘들게 고통받으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까지 소중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신앙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평안과 안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영적 지혜와 위로를 전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창세기 50장 =====

[창 50: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창 50: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창 50: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창 50: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창 50: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창 50: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결국 야곱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몸에 향 재료를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의사가 향 재료를 야곱의 시신에 넣는데는 무려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요? 그것은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귀족들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부모였기에 특별한 귀족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를 위해 자그마치 70일 동안이나 애곡한 것은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곡했다면,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날 법도 하지만, 향재료를 40일간 넣어 보존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 보존된 시신 덕분에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육체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그가 남긴 유산과 신앙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존재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창 50: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창 50: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창 50: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례를 위해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군사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단순한 귀족의 죽음으로는 여길 수 없는 장대한 모습으로, 마치 국장이 치러지는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또 바로왕이 요셉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장례는 야곱의 삶의 영향력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차지한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넘어서, 가족과 하나님의 복을 세대에 걸쳐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창 50: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닷 타작마당’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서쪽인지 동쪽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서쪽에서 바라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 될 것이고, 동쪽에서 바라봤다면 그곳은 서쪽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타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마을에서 함께 타작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애곡 풍습에서 '호곡하다'는 단어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곡의 기간 동안에 먼지와 티끌을 머리에 흑뿌리며, 큰 소리로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이러한 애곡의 의식을 갖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의 기억을 기리며, 공동체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가 잃은 이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애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슬픔을 나누는 과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통해 치유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창 50: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

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아벨미스라임’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벨’은 ‘슬픔’이나 ‘비애’를 의미하며, ‘미스라임’은 ‘애굽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벨미스라임’의 뜻은 ‘애굽인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 명칭은 야곱의 장례식과 관련된 감정과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애굽에서 그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에서, 애굽인들이 느낀 슬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야곱 개인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그가 남긴 유산과 가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기억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고인이 남긴 사랑과 기억은 이 후에도 계속해서 큰 의미를 갖게 되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창 50: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창 50: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르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헛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 굴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창 49:29-31]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으려 하니 너희는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주도록 하라..’”

야곱이 이렇게 큰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애굽에 자신의 시신이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 15:12-21] 언약의 세우심이 이루어지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음으로

써,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일부로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결단은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헛된 세상의 부귀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창 50: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호상군’은 바로왕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 동원한 애굽 군대입니다.

“[창 50: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 했고,”

야곱의 장례식에는 애굽의 높은 직위에 있는

신하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호상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 50: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수의 방대함은 야곱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애굽의 모든 권력자들을 동원할 만큼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의 모습은 단순히 슬픔의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생애와 신앙,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상군의 존재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과 후손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 50: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죽음 이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요셉과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처럼, 그들의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죄는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 없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완전한 회개에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죄를 하

나눔께 고백할 때, 그의 크신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신앙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주님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이며, 형제 간의 관계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회개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창 50: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말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야곱의 말을 꺼낸 이유는 그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부모님의 유언이니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진실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이자 편지처럼 자기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리 쉽게 정서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두려움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종종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오해를 반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요셉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은 그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이 관계의 경계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 50: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

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과의 과거와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으로 인해 깊은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형들에게 주고 싶은 이해와 용서를 표현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두려움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형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을 놓치기 쉽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눈물은 이러한 소통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으로, 형들과의 화해의 서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창 50: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다

[창 50: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창 50: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창 50: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 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

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대신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권한을 사용하여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사랑은 형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강조하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형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지겠다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창 50: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 역시 야곱처럼 그의 시신이 미이라로 보존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과 요셉만이 미이라로 시신이 보존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이라화 과정은 애굽에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죽은 후 그들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특별한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두 사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고백하며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종결된 후에도 그의 존재와 유산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요셉의 시신이 미이라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보존을 넘어서, 그의 삶과 신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단순한 물질적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와 연결짓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 그의 잘못된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가족을 이끌어가는 좋은 모델로 남게 된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창세기

초판발행	2025. 10. 2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